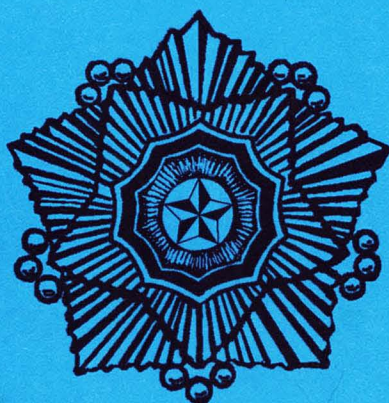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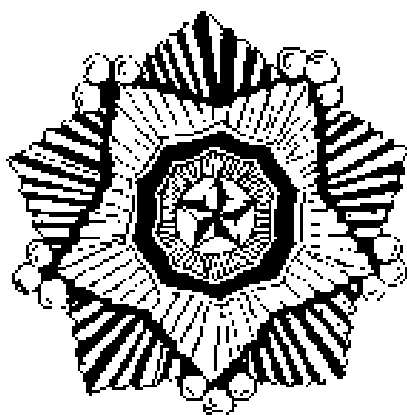
# 조선문학



4

주제 95(2006)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5 (2006)년 제4호

(루계 제 702 호)

## 차 례

|                                    |    |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을 더 빛나게 창조하자 ..... | 3  |
| 이 땅의 4 월 .....                     | 7  |
| 우리 함께 웃으십시오 .....                  | 7  |
| 만경대고향집이여 .....                     | 8  |
| 가실 때에는 .....                       | 8  |
| 만경대고향집 .....                       | 9  |
| 축복 .....                           | 10 |
| 지하시장에 대한 이야기 .....                 | 21 |
| 원군 원민은 내 나라의 전통 .....              | 21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 22 |
| 인사를 드립니다 .....                     | 22 |
| 따뜻한 불빛이 흐르는 저녁 .....               | 23 |
| 장군님 사랑인 나의 조국아 .....               | 23 |
| 날개돋친 백마 .....                      | 24 |
| 야전차의 흰눈 .....                      | 24 |
| 짧은 한생을 불꽃처럼 산 혁명시인(1) .....        | 25 |
| 그날의 총대는 조국이였다 .....                | 27 |
| 위대한 병사 .....                       | 28 |
| 철령의 선군전설 .....                     | 28 |
| 친근한 부름 .....                       | 29 |
| 몸소 입어보신 군복 .....                   | 30 |
| 뜻깊은 봄날에 깃든 자연 .....                | 31 |

|                                       |    |
|---------------------------------------|----|
| 병사의 하루 .....                          | 31 |
| 주체문학의 대강 .....                        | 32 |
| 명작창작의 대강을 받아안고 힘차게 달려온 자랑스런 10년 ..... | 32 |
| 제대병사 고향역을 지나가네 .....                  | 34 |
| 만경대고향집 달 밝은 밤에 .....                  | 35 |
| 영원한 삶을 주는 은혜로운 품 .....                | 36 |
| 세 사진속에... (외 1 편) .....               | 37 |
| 꽃은 태양이 피운다 .....                      | 37 |
| 동갑나이 .....                            | 38 |
| 어랑메아리 .....                           | 38 |
| 그날의 그 수류탄을 .....                      | 39 |
| 내 사랑 푸른 숲이여 .....                     | 39 |
| 봄같이하는 들에서 .....                       | 42 |
| 경구, 격언 .....                          | 42 |
| 정향꽃 .....                             | 43 |
| 내 사랑 별이여 .....                        | 50 |
| 총탄처럼 박히는련속단편소설의 형상세계 .....            | 51 |
| 병사의 가정 .....                          | 54 |
| 저가락 .....                             | 63 |
| 좋은 충고 .....                           | 64 |
| 국장이 오전에 할 일 .....                     | 64 |
|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림걱정》과 주인공들의 형상 .....       | 65 |
| 녀류소설가 강경애 .....                       | 71 |
| 철령으로 갑니다 .....                        | 71 |
| 욕망, 고민, 교훈 ... (1) .....              | 72 |
| 영웅과 시 .....                           | 79 |
| 평양에서 받은 충동 .....                      | 79 |
| 구월산의 《아사남바위》 .....                    | 80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을 더 빛나게 창조하자

최연경

오늘 우리 작가들은 전체 군대와 인민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4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이 땅에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고있듯이 성스러운 수령형상문학의 창조사도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이것은 충성과 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 선군조선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궁지로운 현실이며 인류문예사에 전무후무한 문예사적사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성스러운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시고 수령영생문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수호해나가는 시련많은 선군장정의 나날에 선군혁명문학의 새 력사를 펼쳐시고 그 맨 첫자리에 변함없이 수령형상문학을 내세우시였으며 그 한편 한편의 작품이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되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리하여 이 땅에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나 오늘이나 어버이수령님의 생존시와 다름없이 해마다 태양절이 오면 《4월의 봄 친선에술축전》의 막이 성대히 열리고 설날이면 설날마다 수령님을 모시였던 그날처럼 아이들의 설맞이노래소리가 강산에 메아리쳐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작가들도 수령영생문학의 초행길을 개척하면서 선군혁명문학의 맨 앞장에서 수령형상문학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수령영생에 대한 불멸의 서사시적화폭인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과 영원불멸의 수령영생송가인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수령영생찬가인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등의 수령영생명작들이 그것을 웅변으로 확증해준다.

우리 작가들은 최근시기에만도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인 《붉은 산줄기》, 《천지》, 《삼천리강산》을 내놓은데 이어 《최후의 결전》(가제), 《청산리별》(가제) 등의 창작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또한 우리 작가들은 단편소설들인 《동지에

대한 추억》, 《따뜻한 눈》, 《미래에 살자》, 《대홍단의 아침노을》, 《따스한 바다》와 《샘물터》, 《병사들을 위한 날》, 《류성이 없는 세계》, 《불타는 백설》, 《떼가 흐른다》, 《뜨거운 석양》 등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품모를 훌륭히 형상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 내놓았다.

그리고 최근에 《김일성상》계관인인 시인 김만영은 이 땅의 모든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으로 더욱 빛나며 이 땅의 날과 달은 수령님의 세월속에 흐른다는 의의깊은 종자를 잡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토록 높이 모셔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전인민적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한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를 명작으로 창작해내놓았으며 《김일성상》계관인들인 시인 류동호와 송찬웅은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충정을 감명깊게 노래한 서정시 《우리 사는 세월의 하루하루에》와 《길이 빛나 시라 태양의 영상이여》를 창작발표하였다.

또한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 《추모설화집》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령영생문학이 수많이 창작되어나온것은 수령형상문학사에 특기할 성과들이다.

참으로 우리 문학이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성과는 크고 자랑스러운것이나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업적이 불멸하며 영원무궁하듯이 수령형상문학창조사업도 끝이 없으며 우리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을 더 빛나게 창조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부문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크지만 조금도 자만할 근거가 없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는 아직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기수로서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다.》

수령의 형상을 더 빛나게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 혁명전사들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수령님의 고결한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잘 그리는것이다.

최근 수령형상문제와 관련하여 기교문제가 많이 논의되고있는것은 더 말할것없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기교문제를 포함하여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미학적문제는 수령의 위대성을 더 빛나게 형상하는데로 지향되고 더욱 집중되어야 하며 여기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걸출하고 비범한 위대성에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이 있는것이다.

수령의 형상을 더 빛나게 창조하는데서 우리의 모든 사색과 탐구는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대성을 더 잘 형상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어야 한다.

수령의 위대성을 더 빛나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있는 그대로의 숭고한 높이에서 진실하게 그리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수령형상문학의 철학성과 감동성의 담보가 있고 그가 가지는 높은 품격과 가치의 근본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간과 그 생활은 절대적으로 위대하다. 그러므로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형상하는 경우 최대의 과업은 그 무한대의 위대성의 높고도 넓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펼쳐보이는것이다.

위대한 인간, 위대한 생활은 그 위대성에 있어서 우주와도 같이 무한대한것이어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는 수령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려는 작가의 한없는 충정과 이 성스러운 위업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겠다는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탐구정신이 필요하다.

이처럼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는 위업은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전사, 지칠줄 모르는 탐구력과 사색력을 지닌 문필재사만이 수행할수 있는 어려운 일이나 우리에게는 따르고 본받을 그 빛나는 본보기가 있다.

그것은 력사에 전해오는 명작을 다 합쳐놓아도 결코 따를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이다.

회고록은 소설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제의 백만대적들 벌벌 떨게 하고 세상천지를 들끓다놓은 보천보전투, 력사에 류례없는 최악의 역경을 이겨낸 인간의지에 대한 위대한 상징인 고난의 행군과 같은 거대한 력사적사건으

로부터 무인산중의 이름없는 로인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위인의 발자취가 어린 가지가지의 위대한 생활이 글줄마다 그렇듯 생동하게, 눈물겹게 아로새겨져있는것이다.

얼마전 텔레비존에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옮긴 기록영화를 화면에 담았다. 회고록 제 4권에 수록되어있는 경박호기슭에서 남다른 인연을 맺은 채화로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서 경박호반의 소산저자에서 사귀여 그 호수를 쉽게 건너올수 있게 해준 채화라는 중국인어부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격강이 천리란 말처럼 군대의 원정에서 앞길을 막는 강물은 천리길에 맞먹는 장애물이였다. 그러기에 적의 눈을 피해가며 원정대의 경박호도하를 전력을 다하여 보장해준 채화의 수고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1959년에 우리 답사단동무들이 중국에 갔다가 그의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다. 사진속의 채화는 이미 70살고령에 이른 주름많은 로인이였다. 그러나 키가 크고 목이 성큼한 옛모습만은 그대로 남아있어 자못 감개가 무량했다.》

이 이야기는 광대무변한 바다와도 같은 회고록의 방대한 내용에 비하면 하나의 물방울과도 같은 작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작은 이야기에 얼마나 위대한 인간의 세계가 그토록 가슴뜨겁게 비껴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름없는 한 로인, 그것도 내 나라 사람도 아닌 이국인어부, 이런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을 두고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중의 기쁨은 동지와 벗을 얻는것이요, 슬픔중의 슬픔은 그것을 잃는것이다.》라고 이처럼 엄청난 인생의 리치, 혁명의 철리를 밝혀주신것이다.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이보다 더 의의깊게 이야기하지는 못할것이다.

진정 회고록의 갈피갈피마다는 그모두가 온통 보통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로 별처럼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담고있는 그 위대한 인간의 한없는 세계를 통채로 가슴에 받아안고 그것을 그대로 문학에 빛나게 재현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영생》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이처럼 뜨겁게 울리는것도 묘사나 구성의 기교에 앞서 바로 그 화폭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주체 83(1994)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위대한 생활을 력사문헌과도 같이 진실하게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인간의 그 무한한 세계를 우리는 열혈의 심장에 그대로 받아안고 걸음걸음을 따라배



우며 그것을 한점의 티와 그늘도 없이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 한생의 심혼을 깡그리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을 더 빛나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또한 수령형상을 민족의 운명과 직접 연결된 각이한 인간들과의 뜻깊은 인간관계속에서 민족의 어버이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을 인간학적으로 감명깊게 그려야 한다.

오늘 우리 문학이 내세워야 할 가장 의의있는 인간문제는 민족의 운명문제이다.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도 있는것이다.

바로 우리 시대가 제기한 민족문제,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주체의 민족관의 견지에서 빛나게 해결하였다는데 주체문학예술의 총화작, 세계적인 걸작으로서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가장 큰 성과가 있다. 여기에는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겨레가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주체의 민족관이 빛나게 구현되어있다.

그런데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다면 그 민족의 운명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근본적인 인간문제이며 혁명의 근본문제가 아닐수 없다.

민족의 운명과 그 위대성은 령토나 인구수, 력사의 유구성에 의해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내세운 수령의 위대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령이 위대하여 그 나라와 민족이 위대하고 위대한 민족의 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존엄과 자주성이 빛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내세우지 못한 민족은 아무리 광대한 령토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더라도 자주성을 잃고 그 존엄을 잃게 된다.

반대로 위대한 수령을 모신 민족은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지도사상의 조국으로 될수 있으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다.

이것은 《김일성상》계관작품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눈물의 아리랑노래를 부르며 가슴을 뜯던 아리랑민족으로부터 오늘 온 세상이 우러르는 존엄높은 태양민족으로 자랑떨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민족사가 보여주는 혁명의 진리이다.

이처럼 수령이 위대해야 민족이 위대하고 개인의 운명도 빛난다는 혁명의 철리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낸다는데 그 어떤 다른 문학도 대신할수 없는 수령형상문학의 높은 세계가 있다.

수령형상문학의 이런 높은 품격에 맞게 수령이 위대해야 나라도 민족도 위대해진다는 혁명의 철리를 깊이있게 밝히려면 수령형상을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각이한 전형적인인들의 운명선과의 관계, 뜻깊은 인간관계속에서 인간학적으로 의의있고 감명깊게 창조하여야 하며 그들의 운명을 통하여 민족의 운명문제가 수령에 의하여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심오하게 밝혀내야 한다.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대표자들이 걸어가는 운명의 길은 각이하지만 그모두는 민족이라는 보다 공고한 집단에 의하여 규정되는 공통의 운명을 지니게 되며 바로 그 민족성원 모두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자주성을 실현해주는것이 위대한 수령이다. 바로 여기에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수령의 절대적인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의 장편소설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인 반영인 동시에 조선인민의 전인민적인 민족사로 되는것은 바로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각이한 인간들의 뜻깊은 운명사, 우리 민족의 력사가 있기때문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의 해방후편에 속하는 작품인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해방직후 치열한 계급투쟁의 소용돌이속에서 것처럼 심각하고 날카롭게 제기되었던 지식인들의 운명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하고 갈길을 몰라 방황하던 오랜 지식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새조국건설에 떨쳐나서게 되는 뜻깊은 운명선들을 폭넓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들중에는 최준걸, 한명구와 같이 스스로 해방된 새 조선의 지식인으로서의 자기를 자각하고 처음부터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병철, 안동권과 같이 동요도 하고 곡절도 겪다가 혁명의 편에 서게 되는 사람도 있으며 양춘만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을 경원시켰다가 피의 교훈을 찾고서야 새 조국건설의 길에 나서는 사람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곡절많은 각이한 운명의 오랜 지식인들을 두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 출신과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였으며 오직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깨끗한 민족적량심과 애국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모두를 크나큰 사랑의 한몸에 안아 참된 인생의 길, 건국의 길로 이끌어주시는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각이하였으나 식민지민족의 지식인이라는 하나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건국대강을 받들고 성스러운 건국사업에 합류해나선 이 나라 지식인들의 도도한 흐름이었으며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조선민족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수령의 위대성을 더 빛나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형상의 철학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인간학, 인간생활의 철학으로서의 문학의 사상에술적가치는 중요하게 그 철학적깊이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그것은 수령형상작품에서 더욱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수령은 다 걸출한 철학가들이었다. 수령은 선행시대의 철학사상을 전면적으로 검토총화하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철학사상을 내놓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지도리념으로 삼는다. 수령의 모든 사상리론활동은 지도사상으로 내세운 철학사상을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리론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도 바로 그 철학사상에 바탕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을 창시하신 가장 탁월한 사상리론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있으며 수령님의 사색과 활동의 전과정은 특출한 철학적예지로 빛나고 있다.

수령형상문학은 아버지수령님의 이 비범한 철학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보일 때에만 수령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그릴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혁명적문학의 정수로, 그 가장 빛나는 본보기로 되는 중요한 형상적요인도 그 심오한 철학성에 있다.

여기에서 특히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세계를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보여주는 내면세계의 심오한 묘사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주체의 철학적인념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의리와 포용력을 비범한 인격속에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인간의 끝없이 심오한 내면세계가 참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펼쳐져있다.

물론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을 담보하는 내면세계의 형상은 소설에서만 가능한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빛나는 모범을 수령영생문학의 명

작인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에서 가장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이 서사시들에는 우리에게로 오실 때에는 그리도 조용히 오시었다가 우리결을 떠나가실 때에는 천지를 진감시키고 세계를 한꺼번에 울게하신 그 위대한 한생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리도 애끓게 바치신 가장 거룩한 헌신과 사랑과 의리의 세계가 참으로 감동적으로 펼쳐지고있으며 수령님의 생존시는 물론 서거이후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한없는 충정의 세계가 눈물겹게 그려지고있다. 이러한 감동은 그것이 절절한 그리움의 서정으로 분출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더욱 뜨겁게 안겨온다.

그리움은 인간이 인간에게 주고받을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정화이다. 서사시들에서는 특히 두분의 위인들의 교감세계에 대한 묘사로 그 숭고한 내면세계의 절정을 이루고있다.

겹쌓인 일감을 놓고 자신도 모르게 문득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수령님의 집무실을 찾아 전화를 드시게 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슴저린 그리움의 심중,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보면 가슴아파할세라 80 고령의 년세에 짚으셨던 지팡이마저 승용차에 두시고 인민들에게로 가군 하시였지만 그 지팡이의 사연을 알고계시는 이 세상의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의 가슴에 아프게 걸려 내려가지 않는 아직도 손잡이에 수령님의 더운 땀이 젖어있는 그 지팡이...

참으로 이 못잊을 화폭들은 위인들만이 체현할수 있는 심원한 철학의 세계, 위대한 사상과 감정의 가장 빛나는 정화로서 수령영생과 함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운을 남기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해방후편 창작의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 그가 담을 생활내용자체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생활과 혁명활동이 더욱 밀착되게 되는 조건에서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심중세계와 함께 두분의 위인의 교감의 세계를 더 많이 그리고 감명깊게 보여주는것은 수령형상문학의 철학적심오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형상적요인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더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 이 땅의 4월

리명근

4월  
4월이 왔다  
여느날 여느때도  
못견딜 그리움에 살던 마음들이  
어버이수령님 생각에 사무쳐  
더욱 목메이는 아, 4월

이해따라  
류달리도 아름답게 피었구나  
온갖 꽃 송이송이  
수령님을 위해  
진한 향기 풍기며 떨기떨기

부르는 노래에도  
하많은 사연이 깃들어  
자꾸만 젖어드는 목소리  
우리 인민과 그리도 가까이 계신  
어버이에 대한 정으로  
땅도 하늘도 꼭 차있는  
우리의 4월

조국과 인민위해 바치신  
그 헌신의 자욱자욱이  
세월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이 강산  
만나주신 사람들앞에  
다녀가신 곳곳마다에  
더 생생히 안겨오는 그 영상

백두산을 바라보면  
항일전의 그날처럼  
젊으신 빨찌산대장으로  
우리앞에 계시더라

저기 최전선을 바라보면  
전화의 그 나날 최고사령관으로  
오늘도 우리앞에 계시더라

노을비긴 구내길에도  
연백벌의 포전길에도  
연풍마을 작은 학교에도  
4월의 봄빛이 넘치는구나  
어버이수령님과 이어진  
하많은 인연이  
현실로 펼쳐진 이 땅의 4월이여

4월의 이 땅은 꽃의 바다  
만경대와 만수대  
금수산에 넘치는 꽃의 흐름  
진정의 대하  
흙모의 바다-

온 세계가 모여와  
태양절을 맞는  
이 환희로운 4월  
우리 장군님 계시어  
영원히 가지 않는  
만경대의 4월이여  
조선의 4월이여  
인류의 4월이여

아, 이 땅의 4월, 수령님 탄생하신 날은  
태양조선의 무궁세월이 열리고  
태양민족의 만년축복이 비낀  
세상에 다시없는  
우리의 태양절이다!

가사

## 우리 함께 웃으십시오

장선국

밝게밝게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  
수령님은 그 어디나 계시옵니다  
우리 마을 앞내벌에 가을이 와도  
그 기쁨 함께 나누며 웃으십니다

그 언제나 어버이로 계시는 모습  
수령님은 우리 함께 계시옵니다  
마을에서 영웅 나도 혁신자 나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웃으십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도 영원한 모습  
수령님은 우리 함께 계시옵니다  
보다 좋을 래일 안고 꽃피는 마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웃으십니다

어버이수령님 영원한 태양의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네



## 만경대고향집이여

리금녀

만경봉에 랑랑한 그날의 글소리  
여기서 다 따라배우라고  
잔디푸른 학습터 내앞에 있고  
단발머리 어린시절에 마음속에 그려 보던  
푸른 솔 그네터 여기 있네

이 나라의 설음을 다 담은 물동이  
초가집 처마아래 있고  
이랑이랑 땅을 갈던 가난의 보습  
온 나라에 풍년봄을 불러놓고  
이 트랙에서 빛을 뿌리네

저 등불아래 쉼을 삼으신  
할아버님 일손 언제 한번 빈 날 있으셨으랴  
혁명의 길로 떠나신 위대한 수령님을  
기다리신 할머니의 마음 담아  
눈오나 비오나 열려만 있는 사립문  
언제한번 닫긴적 있었으랴

아, 벼루를 갈아드리면  
양춘을 찾으신 아버님의 노래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어린 남산에  
금시 울려퍼질듯  
이 딸이 부엌에 내려서면  
장하다고 환히 웃으시며  
우리모두를 방안에 들여 앉히시고  
어머님께서 손수 술을 여실듯

여기 계셔라  
새벽안개 가르는 대동강의 뚝배우에서도  
숫눈길 넘어오신 타향의 등불밑에서도  
걸음걸음 광복의 봄을

가슴마다에 안겨 주신  
위대한분들이

여기 다 계셔라  
투쟁의 마당에 큰 걸음 떼여주시며  
물레질을 하셔도 밭을 가셔도  
짓밟힌 동포들을 생각하신 마음이시기에  
고향집 트랙을 삼천리에 넓히시고  
3천만을 한품에 안아주신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광복의 길에  
조국땅을 따라세우고  
그이께서 개선하신 날  
기다렸던 사립문으로  
온 겨례를 맞아들인  
인민의 고향집

지구우에 은금빛지붕 많아도  
하늘가에 솟은 집 많아도  
내 이 초가집을 고향집으로 부르는  
조선의 딸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양으로 솟으신  
혁명의 집을 고향집으로 부르는  
조선의 딸로

내 이 땅에 태어나 행복은 끝없고  
이 땅에 살아 궁지높은 세대여라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아, 만경대의 초가집이여!  
인류의 태양이 솟은 고향집이여!

주체 66(1977)년

## 가실 때에는

조성관

오실 때에는  
손잡아 맞아주는 사람 하나 없더니  
가실 때에는  
떠나가실 때에는 어찌하여  
온 마을이 부어잡고 놓지를 못하는것인가

《우리 옥순이》로 불리우시던  
김정숙어머님 대오로 돌아가신다고  
장군님 계시는 유격대로 돌아가신다고  
따라서며 눈물 짓고

눈물지으며 바래우는 사람들-

마을의 딸 되시여 언니 되시여  
살뜰히 보살펴주시던 그 사랑  
웃을 일 드문 마을에  
언제나 기쁨을 주시던 상냥한 그 미소

그 사랑 그 미소속에  
멀리하던 이웃과도 주고받는 눈빛은 뜨거워  
한집안처럼 화목한 마을에

밤마다 유격대원호미의 발방아소리 높았어라

별빛 총총한 야학당 초가지붕아래  
청고운 목청으로 불러주시던 노래소리  
받아부르는 그 노래에  
저도 몰래 가슴은 후더워  
혁명의 씨앗은 움텄어라

함께 타고 넘으시는  
발이랑 이랑마다에서도  
장군님의 큰 뜻을 심어주시고  
한몸은 죽어도 조직은 살아야 한다고  
총칼 삼엄한 감방속 살창을 뚫고 넘어  
소리높이 울려오던 그 목소리

아, 어두운 숲속에 비쳐드는 해빛이

락엽속에 싹을 띄우고 꽃을 피우듯이  
먹장구름 뒤덮인 이 강산에  
장군님의 해발로 피워 가꾼 혁명의 꽃들...

함께 못갈 길이건만  
잊지 못할 혈육의 정에 얽혀  
하나로 이어진 장군님의 뜻으로 얽혀  
대오를 짓듯 따라서고 따라오는 발걸음들-

오실 때에는  
홀몸으로 마을길에 들어서시더니  
가실 때에는 떠나가실 때에는  
장군님의 전사로 키우신  
은 마을을 혁명의 대오로 뒤따라 세우시며  
김정숙어머님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네  
주체 65(1976)년

## 만경대고향집

### 문동식

찾아오고 또 찾아와도  
언제나 오고싶은 집  
이 봄날에도 불같은 그리움 안고  
내 찾아온 만경대고향집

이런 날 이런 순간이면  
마음속에 간절한 수령님생각  
민족최대의 명절인 생신날에도  
고향집을 멀리 뒤에 두시고  
인민들을 찾으시던 우리 수령님

뜨거웁게 젖는 눈길로  
내 바라보는 이 나라 산천  
멀고도 먼 높은 령길위에  
우리 수령님의 옷자락 오늘도 날리는듯

찾아가고계시여라 그이는  
만민이 태양절을 노래부르며  
축원의 꽃을 안고 찾아오는 이날에도  
평범하고 소박한 인민들을 찾으시여  
정검돌도 건느시고 오솔길도 헤치시고

언제 한번 쉬어서 가신적 있었으랴  
비가 오면 찬비를 맞으며 가시였고  
어깨우에 쌓인 눈은 정으로 녹이시며  
찾고 찾으시던 인민의 집집에  
오늘도 계시는 우리 수령님

마치 일가분들과 마주 앉으신듯  
농민들과 토방우에 자리같이 하시고  
새로 심을 벼종자이야기도 나누시고  
부엌세간살이도 의논해주시며

좋은집 쓰고사는 할머니를 보시면  
더 좋은 집을 지어주시려  
좋은 옷을 입고사는 녀인들을 만나시면  
더 고운 비단옷을 입혀주시려  
그리도 마음 쓰고 또 쓰시며  
가시던 그 길은 천리던가 만리던가

만경대언덕길을 온 나라 동구길에  
고향집뜨락은 온 나라 집집들에  
다 이어놓으시고 한가정 식구처럼  
인민들과 정을 나누시던 수령님

인민에게 행복만을 안겨주시려  
어느 하루 신들메 푸실새 없이  
불벌속에 눈비속에 가고 또 가시던  
아버이의 그 사랑 그 진정에  
열화같이 불타는 인민의 한마음  
대하처럼 만경대로 굽이쳐오나니

아, 만경대고향집  
온 나라가 다 쉬는 생신날에도  
인민들을 찾으시는 수령님 계시여  
이 땅우에 솟아오른 모든 집들은  
이 지붕을 이고 사는 하나의 고향집  
수령님과 인민이 함께 있는 고향집

바로 이 집에서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정으로 굳게 뭉쳐 화목하게 살리라  
세월의 끝까지 그이의 식솔로  
그 품속에 만복만을 누려가리라



최 련

아침해살이 살쾅이 도시를 품어안을무렵에야 승용차는 평양거리에 들어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잠시 보시던 문건들을 밀어놓으신채 창가로 흘러가는 수도의 풍경을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황해남도 연백벌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닷새만에 다시 보시는 풍경이었지만 새로운 기쁨과 정취를 자아내는것이였다.

《좁 천천히 가시오.》

수령님께서서는 차창가까이로 몸을 기울이시며 운전사에게 이르시었다. 지금 그이의 관심은 사람들의 옷차림새에 가계였다. 떠나실 때에는 미처 느끼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초여름에 들어설 때여서 여름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녀인들의 차림새는 치마저고리가 위주이다. 연한 남색의 저고리에 분홍빛치마차림이 환하게 안겨 든다.

수령님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였다. 한달전 개성방직공장에서 짠 여름옷천을 평양시상업관리국에서 접수하지 않겠다고 하던 일이 생각나셨던 것이다.

그때 평양시는 이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팔리겠는지 확신이 없다며 접수하지 않았던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림 그천을 함흥이나 남포같은데 보내라고 말씀하시였다. 예상대로 함흥과 남포에서는 녀성들이 겨금 내기로 새 옷감들을 사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평양시상업관리국에서는 부랴부랴 경공업성에 다시 제기하여 옷감을 받았다. 그 옷감들이 지금 꽃처럼 도시에 활짝 핀것이다.

(아직 일군들의 관심이 낮았거든. 사람들의 문화수준은 날로 높아지고있는데...)

문득 그이께서는 시선을 한곳에 멈추시었다.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속에서 얼핏 지나칠수는 없는 모습을 보신것이다. 주위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다. 침울한 아들이 질게 덮인 얼굴,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눈빛이 허

둥허둥 길을 더듬는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문득 그이의 뇌리에 그 사람이 낮익다는 생각이 떠오르였다. 누구더라? 갱뽀한 얼굴, 약간 휘우뚱한 잔등.

《리종현이...》

그렇다, 민족보위성(당시)의 중요한 부서에 있는 일군이다. 그런데 오늘은 어째서 저렇게 허청거리며 걷고있는가?

《가만, 차를 좀 세울가. 저 사람을 좀 만나야겠는데.》

수령님의 시선을 따라 주의깊게 회색양복차림의 사나이를 바라보던 부관이 저으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수령님, 오전 8시부터 농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수령님께서서는 얼핏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차는 종현을 멀리 뒤에 두고 달렸다. 수령님의 안색은 흐려있었다. 리종현은 경공업성 부상인 김영심의 남편이다. 그러고보면 영심이도 요즘 어째서인지 보이지 않는다. 김일성종합대학시절부터 아끼며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영심의 남편인것으로 해서 리종현은 수령님의 인상에 또한 깊이 새겨져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무거운 표정을 가지지 않으신채 부관에게 말씀하시었다.

《리종현동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봐야겠소.》

부관은 거리에서 얼핏 띄워보신 한 일군의 얼굴빛을 두고 마음쓰시는 수령님앞에 새삼스레 목메이며 정중히 대답올리었다.

《알겠습니다, 수령님.》

✕

북방의 초여름날 저녁기운은 서늘하였지만 배낭을 멘채 걸음을 다우치는 영심의 이마에는 땀발이 솟았다. 길천장공장에서 화물차를 타고 떠난 걸음이다. 그곳 일꾼들은 하루밤 쉬고 떠나라고 팔을 잡았지만 그럴 경황이 없는 영심이고보면 30리라는 길은 그리 먼 길이 아니었다.

지금 영심의 가슴속에는 눈이 초롱초롱하여 기다리고있을 딸애의 모습이 그냥 매달려 떨어지지 않고있었다. 출장길을 떠날 때마다 애써 울먹울먹한 표정을 감추려들던 딸 별이었다. 요즘은 무슨 눈치라도 챘는지 좀처럼 웃을줄을 모르고 말뚱한 눈길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눈길이 마주치면 얼른 시선을 거두어버린다.

어제 영심이가 집을 나설 때에도 어떻게 설명할가 바재이는 엄마의 마음을 미리 안듯 밥상을 물리자마자 제격 《엄마, 나 학교 가》 하고는 서둘러 가방을 안고 나가버린 딸애였다. 그때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빠져나가던 뜨거운 숨...

시내중심에서 떨어져 나지막한 둔덕에 자리잡은 단충구역에 들어선 영심은 불이 꺼진채로 있는 자기집 창문을 알아보자 훑듯 걸음을 멈추었다. 부엌문에는 자물쇠가 매달려있었다. 그 싸늘한 랭기가 가슴에 찌르르 흘러드는듯 싶었다.

이 애가 어딜 갔을까?

영심은 서둘러 옆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토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심이 부국장으로 있는 관리국산하구역장공장 너지배인이 살고있었다.

앞치마를 두른채 문을 열고 나오던 옥순은 불빛에 드러난 모습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부국장동지시군요. 어떻게?》

영심은 미처 말을 받을새없이 다우쳐물었다.

《저...우리 별이를 못봤어요?》

《못봤습니다. 아까 6 시경에 퇴근해올 때 토방에 앉아있는걸 봤는데 ...》

밖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별이와 동갑인 이 집 딸 은주가 두사람사이에 빠르게 얼굴을 내밀었다.

《별인 아까 역으로 갔어요...》

순간 영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듯 싶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긴 왜?》

은주는 얼굴을 외로 돌렸다.

《나도 몰라요. 나랑 함께 놀다가 갑자기...》

영심은 서둘러 배낭을 벗어 너인에게 내밀었다.

《이걸 받아줘요.》

방금 열차가 출발한 뒤여서인지 역구내에는 정적이 깃들고있었다. 바래주러 나왔던 사람들이 다정한 인사말을 나누며 서로 헤어져가고있었다.

《방금 청진-평양행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다음 열차는...》

《청진-평양행》이라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영심의 뇌리에 화살처럼 박혔다.

영심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채 허둥지둥 텅빈 홈에 나섰다. 멀리서 빨간 신호등불빛이 외롭게 빛나고있었다.

《별이야!》

경황없이 흠을 돌아가며 웨치는 영심의 목소리는 간단없이 울리는 기관차의 기적소리에 묻히곤 했다. 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혹시 이 애가 평양에?! 느닷없이 찾아드는 예감에 몸을 떨던 그는 문득 전기에 감전된듯 굳어졌다. 기둥옆에 오도카니 서있는 자그만 형체의 뒤모습을 본것이였다.

《별이야!》

영심은 한아름에 딸애를 그러안았다.

《너 여길 왜 왔니? 응, 왜 왔어?》

걱정과 흥분에 떨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듯 마는듯 별이는 그냥 서있었다.

《가자, 별이야 줍지?》

손을 잡아끌던 영심은 딸애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듯 한 충격을 느꼈다. 무한한 슬픔이 깊은 호수처럼 가라앉은 눈빛, 넘칠듯 떨리는 그 눈빛에 외로운듯 한 신호등의 불빛이 하릴거리고있었다.

《너 왜 그러니. 별이야. 응?》

아이는 먼 어둠속에서 힘겹게 시선을 떼더니 엄마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엄마, 난 아버지랑 오빠랑 보구싶어. 난 평양에 가고싶어.》

영심은 무너지듯 주저앉아 딸애의 손을 모두어 쥐었다. 얼어든 자그마한 손의 싸늘한 촉감이 자기의 피속으로 곧장 흘러드는듯 싶었다.

《별이야!》

자기 손을 가져다 불에 비비는 엄마를 보면서 도 딸애의 눈가에 어린 슬픔은 지워지지 않았다.

《엄마, 애들이 그러는데 엄만 떨어졌대. 영영 평양에 다시 가지 못한대.》

《누가 그러던? 응?》

별이 의혹에 찬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왜 열달이 넘도록 아버지가 있는 평양에 올라가지 않나, 응?》

영심은 싸늘한 두손을 맞잡았다.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해줄게.》

영심은 별이를 등에 업었다. 별이는 엄마의 잔등에 다소곳이 머리를 박은채 말이 없다. 그러나 어린것의 가슴속에 끓던 그리움은 영심에게 새로운 아픔으로 옮겨졌다.

아버지를 보고싶어하는 딸애에게 한주일전 어느 한 일꾼과의 담화내용을 이야기해준단 말인가. 그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가 지금도 가슴을 에이는듯 싶다.

《왜 지금껏 백부의 경력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은 왜정때 그 집과 장백현에서 갈라진 뒤로 생사소식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풍편에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전쟁시기...》

《몰랐다?! 몰랐기때문에 해방전에 큰 포목상이면서 <협화회>회원까지 지낸 백부의 경력에 대해서 책임질수 없다는것인가요?》

무엇을 변명할수 있단 말인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배치를 기다리던중에 있었던 담화에서도 어떤 이상한 감촉을 받은것은 사실이였다. 백부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싸늘하고도 야릇하게 자기를 바라보던 일군의 눈빛에서 그는 이 조치가 어떤 권견일수도 있다는 의혹이 떠올랐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아직은 모든것이 명백치 않았으며 또 직무의 변동을 가지고 말을 들고다니는것 자체가 그에게서는 있을수도 없는 일이었던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자기 운명에 검은 구름이 덮쳐 들고있다는것은 명백한 사실로 되였다.

잠에 푹아떨어졌는지 팔애의 머리가 어깨에서 실그러 떨어졌다. 걸음을 멈추고 팔애를 바라보는 영심의 눈가에 갑자기 눈물이 펴 돌았다.

《엄마... 엄만 떨어졌다. 다신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할수는 없어. 아직은 자기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할지 가늠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일군의 위협적인 목소리는 그의 지금 지위가 공고한것이 아니며 그 한단계일뿐이라는것을 분명히 암시하고있었다.

《부국장동지!》

코앞의 어둠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영심은 편뜻 정신을 차렸다. 가로등불빛에 드러난것은 옥순이였다. 부한 몸집에 어지간히 빨리 달려온듯 숨소리가 높았다.

옥순은 실한 팔뚝으로 영심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무작정 자기가 돌쳐엎었다. 별이는 깊이 잠들었는지 그러거나 말거나 쉼쉼 숨소리만 낼뿐이였다.

《고마워요.》

영심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관리국내에 몇명되지 않는 너지배인이여서 서로 마음을 터놓을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언제 그럴세도 없었다.

《별말을 다 하십니다. 부국장동지를 도와드리고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저 생각뿐이었습시다.》

옥순의 목소리에도 진정이 넘치고있었다.

영심이 알고있는 옥순은 문자그대로 사나이 못지 않은 왕성한 정열과 드센 손탁을 가진 녀인이였다. 옥순이 일하고있는 구역장공장을 돌아보면서 영심은 진정으로 그에게 감탄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못하겠으면 여기에 바지를 벗어놓고 가요. 치마는 저기 있으니 제창 갈아입구요.》

서너마디의 우는 소리 뒤끝이면 울러나오는 너지배인의 절한 목소리였고 그러면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바를 모른다는 그 공장 일군들이었으며 그래서인지 그만하면 수월히 되여가는 공장사업이였다.

《길천에 가셨던 일은 잘 됐습니까?》

옥순의 물음에 영심은 활기가 되살아났다.

《잘 됐어요. 그 공장에서 쓰는 종균을 좀 가져왔어요. 옥순동무네 공장에서도 한번 써보세요. 장맛이 훨씬 좋아질거예요. 종균은 거기 분석실

장동무가 배양해낸것이라는데 난 종균에 비결이 있다는걸 제격 알았어요. 그 동문 화학공업대학을 졸업했는데 원래 식료공장이 마음에 안드라고 판데로 보내달라고 했다는거예요. 이번에 만나보니 좋각이더군요, 글썄...》

영심은 흥에 겨워 분석실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옥순은 말없이 듣고있었다, 이 우람하고도 다심한 녀인은 분석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영심의 마음속에 가득차있는 공허를 어느정도 메꾸어주리라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영심의 목소리에 귀를 강구며 즐거운 미소를 띠우고있던 녀인은 이야기가 끝나자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바재이다가 결심한듯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부국장동진 벌써 전쟁시기에 중앙기관에서 경공업과장을 했대더군요.》

너무나도 뜻밖의 물음이여서 첫순간 영심은 놀랐다.

《그래요. 한데?》

옥순은 눈길을 돌리며 긴 숨을 내쉬었다.

《지금 관리국에 소문이 돌고있어요. 부국장동지가...》

옥순은 미처 말끝을 맺지 못한채 아픈 눈길로 영심을 바라보았다. 영심은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한동안 멀리서 빛나는 불빛들을 바라보던 그는 나직이 말했다.

《내가 인차 해임되리라는것 말이나요? 사실일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정류소가 어딘지는 나 자신도 몰라요.》

《난 그 모든것이 거짓이라는 소릴 듣고싶었어요. 난 돌아가는 소문을 믿고싶지 않아요...》

옥순의 격한 마지막말은 막히고 말았다. 영심은 눈길을 들어 눈물을 머금은듯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참 곱기도 하지 하고 그는 문득 생각하였다.

저 별한텐 아마 아픔도 보석같은 장식인게지, 그저 그냥 저 혼자 곱기만 하구나.

그날 밤 방바닥에 쓰러진채 잠에 들었던 영심은 꿈을 꾸었다...

그것은 아주 생신하고 호합진 꽃송이였다. 타는듯한 붉은 빛에 생기를 띤 꽃잎들이 만첩을 이루었는데 그 꽃잎들에는 맑은 이슬방울까지 령롱하게 반짝인다. 영심은 환희에 넘쳐 얼른 장미꽃송이를 꺾어들었다. 자기가 것처럼 바랐던 소원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다는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꽃이 어떻게 이런 인적없는 산중, 우중충한 숲이 병풍처럼 둘러선 골짜기에 피여있을가. 나는 왜 여기 와있는걸가. 더럭 무섭증이 나서 걸음을 다우치는데 손에 쥔 꽃송이가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 떨어졌을가. 황황히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뒤엀킨 수풀뿐 꽃송이만은 보이지 않는다. 눈가에 언뜻 비끼는 붉은 빛 눈을 들어보니 그 꽃송이가 바람에 실려 훨훨 허공을 날은다. 영심은 자기의 꽃송이를 따라 뛰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걸음은 떼여지지 않는다. 목청껏

소리를 치려고 했으나 어째서인지 목소리마저 막혀버렸다. 영심은 너무도 안타까와 울었다. 그렇게 찾고찾던 꽃송이, 험한 산밭속에서 마침내 찾아낸 꽃송이를 이렇게 잃어버리다니, 목이 메이듯이 터져나오는 설움이였다...

영심은 눈을 떴다. 꿈이었다. 그러나 불이 화락하니 젖도록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아, 그 꽃송이, 세월을 넘어 내 마음속에 피어있던 그 꽃송이! 그 꽃송이가 마침내 시들어버리는것인가. 영심은 소리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그는 뜬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

다음날 예정된 시간인 9시가 가까와오자 도 지방산업관리국산하 공장, 기업소 지배인협의회에 참가하러 온 사람들로 회의실은 사뭇 술렁거렸다. 오래간만에 만난것도 만난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회의가 부국장이 소집한 회의라는것이였다. 국장은 중앙에 올라가 강습중이였다.

《아니 부국장은 인차 해임될거라고 하던데 무슨 작별인사를 하려는건가?》

《글쎄, 내 듣기엔 중앙에서 부상을 하던 녀자를 단번에 떨구는게 격이 안돼서 그랬다나 봅디다.》

《우리 도가 뭐 그런 사람들의 도중정류순가?》

회의장 뒤쪽 창문가에 앉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는 옥순지배인은 저절로 마음이 쓰러왔다. 어제밤에 본 부국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등뒤에 아이를 업은채 땀결은 이마에 머리카락을 나뭇기며 걸어오던 그 녀인의 모습이 아프게 밝혀왔다. 옥순은 그담지 않게 호 긴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주석단 좌측에 있는 문이 열렸다. 맨앞에 서서 나오는것은 역시 영심부국장이였다. 그 뒤로 관리국산하 과장들이며 도수매상사 지배인이며 맨뒤에는 도기계공업관리국과장이 따라섰다.

옥순은 눈이 등그래졌다. 그는 이것이 그 무슨 《작별인사》회의가 아니라는것을 대번에 깨달았다. 그것을 확신하자부터 웬일인지 가슴이 울렁거린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옥순이 잘 아는 대머리과장이 왜서인지 안경을 몇번이고 추스르며 개회를 선언했다.

《먼저 도인민위원회 상업부과장동무가 도내 경공업실태와 상품공급실태에 대한 자료보고를 하겠습니까.》

이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또 한번 술렁거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얼굴이 길죽하고 창백한 도상업부과장은 마른 기침을 해가며 열심히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덤덤히 듣고있다가 차츰 귀를 강구었다.

보고는 부문별 계획수자들을 미달하고있는 실태들을, 거의 비다싶이한 상점들을 열거해나갔다. 엄밀하고 정확한 그 보고의 수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점점 고개들을 떨어뜨리고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그다음 토론한것은 송천식료공장 지배인과 길천장공장 기사가장이였다.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그나마 자기나름의 소박한 긍지가 있었다. 산열매가공설비를 새로 만들어 첫 제품들을 상점에 내놓기 시작했다는 송천식료공장이였고 새로운 종균을 도입한 결과 상점에서 체화품으로 되어있던 간장, 된장들이 점점 활기를 띠고 팔리고있다는 길천장공장이였다.

보고며 토론들은 짧았다. 그러나 명확한 수자들로 요점화된것이여서 이런 회의에 참가하면 의례히 줄 생각을 앞세우던 사람들마저 웅송그리게 하는것이 있었다.

회의마감에 영심부국장이 나섰다. 연락에 나와선 영심을 보는 순간 옥순은 놀랐다. 어제저녁에 본 영심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모습이였던것이다. 먼지가 낀 얼굴에 피곤이 실려 팔애를 아프게 바라보던 그 영심이 아니다. 축간 얼굴은 그대로이지만 활기와 열정과 신심에 넘치는 눈빛에서는 사람의 가슴을 찡하니 만드는 청신하고 강렬한 기운이 내뿜기고있었다.

《보고와 토론에서 언급되었기때문에 도내 지방산업실태에 대한 분석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있는가 하는것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천리마시대입니다. 천리마의 대고조를 창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는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마치도 판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영심의 말을 듣고있었다. 듣고보면 그것은 자기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이미 알고있는것이였지만 지금 그것을 말하는 영심의 목소리에 뽕고있는 절절하고 뜨거운것이 모두의 심장에 그대로 전달된것이였다.

《시대의 격변이 저절로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진군길에 내세우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내 지방공업은 잠을 자고있습니다... 이것은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시며 우리 인민들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잘살게 하시려고 것처럼 애쓰시는 우리 수령님앞에 죄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처절한 아픔이 울리는 그 목소리에 사람들은 눈길을 떨구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안개마냥 서리었다.

영심은 눈길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 국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설 길은 없는가. 있습니다. 길은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민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려는 심장만 있으면 됩니다.》

계속하여 그는 수령님께서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대로만 하면 우리 도에서는 얼마든지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풀수 있다고 하면서 판리국의 전망목표와 당면계획을 발표했다.

도내 12 개 장공장전체에 직화식이 아니라 보이라를 통한 장생산공정을 설치하는 문제, 송천 식료공장 송이버섯가공직장건설과 회성식료공장 백살구가공직장건설문제...

이 모든것이 매년 당창건 20 돌까지 무조건 해내야 하는 과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아연해졌다. 가슴을 조이며 듣고있던 옥순이조차도 탕개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영심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돌고있다는걸 압니다. 그런속에서 부국장인 제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놓았다고 놀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제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꼭 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기때문입니다.

전 로동자가 된다고 해도 인민의 총복으로 살립니다. 실사...벽돌 한장 두장을 쌓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장내는 쥐죽은듯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감히 눈길을 들어 부국장을 바라보기를 꺼려했다.

옥순은 눈물이 그렇하니 고인 눈곱을 훔쳤다.

(장해요. 정말 고마와요.)

쓰러질줄로만 알았던 녀인이 저렇듯 다시 일어서서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필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회의는 끝났다. 여느때처럼 상업과 지도원(당시)를 따라 어느 식당으로 향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사색에 잠겨 각기 헤어져가고있었다.

옥순은 낮익은 처녀지도원에게서 부국장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3 층계단을 올라갔다.

영심은 자기방에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창백한 얼굴, 가까스로 자기자신을 받들고있는듯 한 몸가짐이었다. 옥순을 보자 그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옥순은 년장자의 체험으로 영심이 지탱하고있는 정신력에 대해 내심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가냘픈 몸매다. 피기없는 얼굴에 피로와 고뇌가 짙게 서렸으나 눈가에는 정기가 반짝인다.

《평양에 출장을 갈수 있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뜻밖의 질문이었지만 복순은 저도모르게 머리를 끄덕였다.

《예. 무슨 일입니까?》

영심은 책상우에서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건 중공업성의 홍부상동지에게 보내는것입니다. 보이라 12 대문제때문에 제가 따로 쓴 편지예요.》

《알겠습니다.》

영심은 말없이 옥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서 믿음과 고무의 빛을 읽었는지 영심의 입가에는 가느다란 미소가 다시 그려졌다.

《집일은 일없겠어요?》

《일없어요. 거야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라를 꼭 해결해가지구 돌아오겠어요.》

영심은 옥순이 팔을 살짝 건드렸다.

《고마워요.》

진심에 넘친 눈빛이었다. 조갈이 든 입술이 가볍게 떠다. 옥순은 어째서인지 이 몸매 가냘픈 녀인을 꼭 품어주고싶었다. 제발 쓰러지지 말라고 부축해주고싶었다. 힘을 내서 꺾이지 말라고 당부하고싶었다. 그러나 영심은 곧장 자기 책상앞으로 가서 전화기의 번호판을 돌렸다.

《그럼, 전...》

옥순이 인사를 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다.

《아니 잠깐!》

옥순은 돌아섰다. 또 다른 봉투를 든 영심이 문가로 다가왔다.

《이 편지도 좀 전해주세요.》

옥순은 걸봉에 썩여진 주소를 얼른 알아보았다. 그것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별이한테서 버드나무거리의 3 층아파트에 대해서 들은적이 있었던것이다.

《직접 그럴 필요는 없고 가까운 체신소에 넣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꼭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심은 다시금 송수화기를 들었다.

옥순의 발자욱소리가 멀어지자 영심은 손에 들었던 수화기를 맥없이 떨구었다. 창가로 휘청거리며 다가간 그는 정문밖으로 멀어져가는 옥순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간밤에 한잠도 들지 못하고 새벽에 쓴 편지였다. 더이상 회피할수 없는 진실앞에서 마지막기운을 다 하여 쓴 편지였다. 그 편지가 평양에 간다. 무너진 마음속에 새 기둥을 세우는것 같은 심정이다. 그렇다, 사랑은 깨졌지만 의무는 남아있다.

×

안개가 흐른다. 조용히 물결처럼 밀려와 정원수들의 밑둥이며 아지들을 부드럽게 감싸안은 안개였다. 마치도 무슨 사연인가를 조용히 속삭이는듯 싶은 그 유정한 흐름속에서 수령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시여 보던 문건을 그대로 놓으신채 집무실을 나서신 걸음이었다. 리종현의 안해 김영심이 가정주위환경문제때문에 경공업성 부상직에서 해임되어 지방에 내려가있으며 일부 중앙의 일꾼들이 그를 비호하고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된다는것을 보고드린 그 문건이 수령님의 심중에 던진 충격은 너무나 컸다.

(영심인 지금 어찌고있는가?)

언제나 바쁘게 출근길을 달리던 영심이었다. 시내로 오가는 길에서 띄여보신 모습마다가 다 그렇게 뛰고있는것이어서 그에게 차를 보장해주

라고 지시를 주셨던 일이 있었다. 그후 영심은 눈물로 쓴 편지를 수령님께 올렸다. 이제부터는 수령님 달아주신 날개를 더 활짝 펴고 더 많이 일하겠다는 그 편지에서 영심의 진정을 력력히 읽을수 있으시였다.

《수령님!》

등뒤에서 울리는 조심스러운 부관의 목소리에 수령님께서서는 상념에서 깨어나시였다.

《왔소?》

《왔습시다》

부관의 등뒤에서 중키의 일군이 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홍부상동무, 이렇게 늦게 찾아서 안됐소.》

《수령님...》

홍부상은 오히려 자기를 넘려해주시는 그 말속에 목이 메여 말을 잊지 못했다. 홍부상은 바로 수령님께서 방금전에 읽으신 그 문건에 써여있는 《일부 중앙의 일군들》 다시말하면 해임된 김영심을 싸고돈다는 일군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 보이라문제가 어떻게 되였다구?》

홍부상은 수령님의 물으심이 다소 뜻밖인듯 굳어져있었다.

《저...》

《함북도에서 보내달라고 했다는 보이라문제말이요.》

그제서야 수령님께서 찾으신 의도를 알아치린듯 홍부상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사실 영심동무에게서 보이라 12 대를 꼭 해결해달라는 편지가 온건 사실입니다. 대안중기계의 전달 생산량중에 함북도에 배당할것도 있고 해서 다는 못주더라도 5 대쯤 해결해주자고 했던 건데... 비판을 받고서야 제가 개인안면관계로...》

수령님께서서는 홍부상에게 다우쳐물으시였다.

《그래 그 보이라를 무엇에 쓴다는거요?》

홍부상은 그닥 확신이 없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예. 함북도내 장공장들에서 직화식으로 장을 생산하다보니 타거나 설고 해서 장이 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열매랑 송이버섯이랑 가공하자고 보니...》

수령님께서서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좋구만! 정말 좋아.》

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홍부상에게 물으시였다.

《동문 영심동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오? 같이 일한적도 있다지?》

홍부상은 눈길을 들었다.

《예. 7 년전 함북도당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같이 일한적이 있었습니다. 정열적이고 마음이 깨끗한 동무라고만 알고있었는데...》

말끝을 맺지 못하던 홍부상은 수령님을 우러르다가 굳어졌다. 수령님의 만면에 미소가 흐르는 것이였다. 어둠속에서도 환한 그 미소로 주위가 밝아지는듯 싶었다.

《그 믿음이면 되는거요.》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옮기시였다.

《동무가 뛰어서라도 보이라를 12 대 다 해결해주요.》

수령님께서서는 뒤따라선 홍부상에게 돌아서시였다.

《무엇보다는 믿음을 주시오. 비록 내려갔지만 동지들은 여전히 영심이를 믿고있다는 확신을 주시오. 그건 보이라 10 대, 100 대보다 큰거요.》

《알았습니다. 수령님!》

뜨거운 걱정과 흥분을 안고 떠나는 홍부상을 바라우시던 수령님의 심중에 불현듯 섬광처럼 번쩍이는것이 있었다. 그렇다, 무엇때문에 20 년가까이 아무일도 없었던 가정주위환경문제가 왜 이제야 제기되는것인가? 인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일군,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더더욱 커지는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얼굴도 모른다는 백부의 경력문제가 떠오르는 이유는...

수령님께서서는 결연히 집무실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

누구도 연한 밤색 머리수건을 잘끈 동여맨채 벽돌집을 지고 달리다싶이 발판을 오르내리는 녀인이 영심인줄을 몰랐다. 그저 이 보이라설치전 투장에 하얗게 널린 지원자들중 한사람으로 레사롭게 볼뿐이였다. 그것이 영심에게는 마음이 편했다. 간밤에도 도내 각지 장공장들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보이라설치공사때문에 밤늦도록 협의회를 하고나서 집으로 돌아갈념도 못했다. 그래서 긴의자를 붙여놓고 거기서 쪽잠을 자다가 해가 뜨자마자 다시 공사장에 나온것이였다. 이제 이 속도로 내밀면 8 월초부터는 보이라에 의한 장생산을 시작하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파자며 사탕이며 기름생산도 새로운 기술적도태에서 체계화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된다.

열두번째 보이라가 어제 역에 도착했다. 이제 설치공사만 끝내고 불을 지피면 된다. 아니, 너무 속도 일면에만 치우치다가 질을 따라세우지 못하면 안된다. 덩그렇게 세워놓고 보수만 하다 말수 있다. 오늘 저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전체 공사장들에 강조해야 한다...

해가 중천에 퍼졌을무렵 공사지휘부의 기술공정을 맡고있는 설비과장이 허둥지둥 영심을 찾아왔다. 그가 중언부언 늘어놓는 말을 듣고있던 영심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보이라설치를 보류한다는데 누가 동의했어?》

얼굴하관이 긴 설비과장은 어느정도 기가 죽은 목소리로 떠들거렸다.

《저... 그건 석탄을 보장하기 힘든 그곳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 거기서 자체결심을...》

영심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날았다. 현기증에 금방 쓰러질듯싶은 몸을 가누며 그는 그루를 박듯 말했다.

《그건 나도 알고있어요. 석탄은 없지만 버거는

있어요. 버거로 얼마든지 보이랴를 가동시킬수 있어요. 그 기술이 얼마전에 개발되어 성공했어요.》

설비과장은 아예 허리를 굽적하며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하... 그런걸 모르고 참...》

영심은 설비과장이 경동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자 눈을 감고 한동안 서있었다. 지탱해내야 한다는, 이 고비에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이라는 예감이 지긋게 머리속에 갈마든다. 어째서 일이 이렇게 힘들게 진척되는 것일까. 왜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걸까.

물이라도 한고뿌 마시고 올라. 아니, 거기까지 가려면...

영심은 다시금 걸음을 내짚었다. 모래우를 걷는 것처럼 바닥이 흔들거린다. 더럭 무섭중도 났다.

이러다가?

그때였다. 누군가의 억센 손이 영심의 팔을 잡았다. 한순간 전류에 감전된듯 흠칫 놀라던 영심은 뒤이어 찾아드는 직감에 다시금 몸을 떨었다. 꿈속에서도 보이던 사람, 그만이 이렇게 억센 손으로 나를 잡아줄수 있지.

《영심이!》

영심의 남편 리종현이 눈앞에 서있었다.

《당신이?》

종현은 묵묵히 영심의 어깨에서 질통을 벗겼다.

《언제 오셨어요. 예?》

《아침차에. 오전내껏 당신을 찾았소.》

질통을 한손에 쥔채 종현은 영심의 손을 잡아들었다. 영심은 기쁨과 놀라움과 당황함에 휩싸여 종현이 잡아끄는대로 끌려갔다. 그에게는 어떻게 남편이 불쑥 나타나리라는 예상이 전혀 없었고 그대에 어떻게 남편을 대하리라고 미리 정해둔 마음도 없었다.

《그래 이제 당신이 진심으로 쓴 편지요? 난 그걸 알자고 찾아왔소.》

남편이 내민것은 영심이 보낸 편지였다. 보풀이 일고 구겨진 봉투, 그 속에 썩여진 글줄들은 잉크가 아니라 영심의 눈물로 쓴것이 아니었던가.

《리훈이라구? 누가 그런 권리를 당신에게 주었소. 누가?》

종현의 눈에서는 불이 일고있었다. 영심의 몸은 한층만하게 졸아드는듯싶었다.

《대답해보란 말이요, 이젠 무슨 타락인가 아니면 배반인가.》

영심은 부르튼 입술을 가까스로 열었다.

《그건 저의 결심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뭐요, 뭐가 말이요?》

영심은 숨을 들이그었다. 어차피 아프더라도 진실을 회피하지는 말아야 한다.

《전 저때문에 당신이 불행해지는건 바라지 않아요. 당신이 군복을 벗고 여기로 내려오는건 상

할수 없어요. 또 제가 갈 종착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전 당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종현의 눈에서는 더욱 거센 불이 황황 내뿜겼다.

《나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는 불행을 선택한다는건 무슨 소리요. 그게 어디 될번이나 한 말인가.》

영심은 눈길을 들었다. 피로와 설움이 비낀 눈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맑은 정기가 비쳐나오고있었다.

《그럼 당신은 저 하나때문에 우리모두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가요?》

종현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따로따로 선택할수 있다고 생각해본적은 단 한번도 없소.》

《별이 아버지!》

영심은 나직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왜서인지 항상 두렵게만 생각했던 이 마당이 스스럽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래요. 저도 행복과 불행을 갈라본적이 없어요. 당신의 행복이자 저의 행복이에요. 당신의 꿈이자 저의 꿈이고... 당신과 우리 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본다면 전... 언제나...》

《영심이!》

종현은 영심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부여잡았다. 불처럼 뜨거운 그 손, 룡담산시절에 책을 읽던 자기 손이 얼음장처럼 차지면 그 손안에서 온기를 되찾곤 했었지.

《정신을 차리라구. 지금 무슨 말을 하는거요. 그건 본심이 아니지 응?》

영심은 그런듯 서있었다. 종현은 대리석상처럼 굳어진 영심의 싸늘한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한순간 영심은 종현의 손을 조용히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질통의 끈을 잡았다. 차갑고 절망적인 것이 종현의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떨어졌다. 이 순간 그는 안해에게서 새로운것을 발견하였다. 그 얼굴에는 이전에 그가 알고있던 열정적이고 사랑스럽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인생의 빛이 꺼져버린 녀자의 냉혹함이, 자기를 지탱해내려는 모지름만이 비껴있었다. 이름할수 없는 공포속에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종현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것 같았다. 말없이 영심을 노려보면서 종현은 한마디한마디를 씹듯이 외웠다.

《난 부대에 제대를 제기했소.》

그때 굳게 닫겨졌던 영심의 입이 열렸다.

《전 이미 부대당위원회에 저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보냈어요.》

종현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편지를?!》

영심은 돌아서서 공사장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요, 서란 말이요.》

그러나 영심의 걸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설사 내 가는 앞길에 바람이 불고 가시밭이 나

진다고 해도 나는 가야 해, 내 한생 당을 믿고 가는 길, 그 길을 걷는 나의 자옥자옥에 눈물이 고인다 해도 멈춰설수는 없어. 그러면 난 쓰러지고말아.

《지독한... 악한... 녀자!》

내뺨듯 하는 피가 배인듯 한 준절한 말마디들이 녀인의 발부리에 아프게, 아프게 떨어졌다. 때 아닌 바람이 공사장 한구석에 불어오더니 두사람 사이를 차갑게 지나갔다.

×

영심은 꽃을 만들고있었다. 언제인가 꿈에서 본 그 꽃을 생각하며 빨간 명주천을 정성들여 접어나갔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겹한겹 접을 때마다 타는듯 붉은 꽃잎들에 생신한 물기가 돌고 폐부깊이로 진한 향기가 스며든다. 꽃잎들마다에 충충히 반짝이는 이슬방울까지 내뿜는다.

《아이, 어찌면!》

영심은 너무나도 신통하고 황홀하여 저도모르게 환성을 내뿜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준공식에 나오실 김일성장군님께 달아드릴 꽃송이다. 그 꽃송이를 달아드릴 과업을 받은 순간부터 영심의 심장은 줄곧 두근거렸고 피는 그냥 뜨겁게 전신을 달음쳤다. 고심끝에 눈처럼 하얀 명주천에 빨간 물을 들여 꽃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어쩔 꽃이 내 마음을 알고 생명을 지닌걸가. 수령님께서 달리는 내 마음이 그대로 이 꽃의 생명이 된줄도 몰라.

《영심동무!》

누군가가 등뒤에서 찾는다. 영심은 꽃잎을 접는 자세가 흐트러질까봐 조바심이 났다.

《날 다치지 말아요.》

그러나 누군가의 손은 그냥 등뒤에서 그를 흔든다.

《영심동무!》

야속했다. 지금 이대로 놀았다가는 꽃이 생기를 잃고 시들어버릴텐데, 누가 찾는걸가. 제발 이 순간만은!

《제발 빌어요. 난 지금...》

그러나 너무나도 세차게 흔드는 바람에 손에서 꽃송이가 떨어질뻔 하였다.

《누구예요? 날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영심은 순간에 설음이 북받쳐 오열을 터뜨렸다...

꿈이었다. 영심은 비몽사몽간에 누군가가 자기 팔을 끄당겨 일으켜세우는것을 감촉했다. 옥순이다. 무슨 일때문인지 얼굴이 온통 붉게 상기되어 있다.

《부국장동무, 수령님께서 오셨어요. 수령님께서...》

이것 또한 꿈속이란 말인가. 수령님께서 오셨단 말이지. 그래 그때 난 수령님께 꽃을 달아드렸지.

《정신을 차려요. 예? 부국장동무!》

그제서야 영심은 잠기가 가셔졌다. 그는 자기가 질통을 진채로 주저앉아 쪽잠에 들었다는것을 느꼈다. 그런데 이 녀인은 왜 그렇게 흥분하는것인가.

《됐소. 놔두오. 깨어났으니 됐소.》

갑자기 영심을 통채로 흔드는 목소리. 갈린듯 하지만 사람의 심장전체를 지렁지렁 울리는듯싶은 그 목소리는 하늘에서 울려오는것인가.

《영심이!》

영심은 눈물 흘렸다. 그는 자기앞에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 주위에 여러 문명의 일꾼들이 서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회색여름옷차림을 하신 수령님의 모습만이 비온 뒤의 태양마냥 눈부시는것이였다.

《수령님!》

영심은 절이라도 드리려는듯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러나 인사는커녕 뜨거운것이 목을 짖 메웠다. 먼지가 올라 뿌연게 빛을 잃은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우에서 물결치듯 떨어졌다.

《자, 어서 일어나라구. 응?》

수령님께서서는 서둘러 영심의 어깨에서 질통을 벗기시였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영심을 달래시는 그이의 눈가도 젖어들고있었다.

《그만하라구. 이렇게 만났는데 왜 울기만 하나...》

수령님께서서는 영심을 데리고 현장휴게실로 향하시였다. 영심은 수령님께 도내의 전반적인 지방산업실태들을 보고드리느라 걸음을 헛디더 비칠거리기까지 했다.

《수령님, 송천 송이버섯통줄임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칠보산에 미리 나무통과 소금을 준비해왔다가 송이버섯철에 따서 현지에서 소나무잎과 소금에 절구어가지고 공장에 와서 가공했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구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루 바다를 리용해먹기 위한 작전도 했습니다. 영성에선 명태팽창능력을 두배반정도 늘이고...》

한참 말을 엮어나가던 영심은 순서를 엇갈려 멈칫했다가 또다시 열심히 말씀드렸다. 눈물에 젖었던 눈이 지금은 시내물우에 비낀 해빛처럼 한껏 아름답게 빛뿌린다.

수령님께서서는 줄곧 웃음을 머금으시고 영심의 말을 듣고계시였다.

《응, 그새 정말 많은 일을 했어. 길천에서는 어떻게 했대구?》

칠부지어린애처럼 지칠줄 모르고 흥겹게 이어지는 영심의 자량이였다. 그속에 그의 기쁨과 행복, 희망과 애정이, 그의 삶이 통채로 비껴있다는것을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생각하시였다. 사실 북부지구의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도를 하시면서 제일먼저 만나시려고 한 사람은 바로 영심이였다. 번민과 쓰라린 아픔속에 몸부림치고있을줄 알았던 영심이 질통을 진채로 쪽잠에 든것을 보시고는 너무도 놀랍고 가슴저리시여 한동안 그의 잠을 깨우지 못하게 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어느덧 현장지휘부앞에 이르렀다. 부관이 황급

히 먼저 가서 치우느라고 했지만 장공장휴계실이었던 방은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변변한 의자 하나 없는것이 새삼스레 눈에 띄우자 영심은 당황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조금도 탓하시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영심을 긴의자에 눌러앉히셨다.

《부관동무, 가져왔소?》

수령님의 말씀에 부관이 서둘러 책상우에 종이 꾸러미를 펼쳐놓았다. 하얗고 동실동실한 증기빵이 나타났다.

《자, 어서 들라구. 내 이럴줄 알았으면 뭘 좀 준비하는건데.》

수령님께서서는 고뿌에 물을 부으시여 굳어져있는 영심의 손에 들려주시었다.

《수령님!...》

영심은 눈물을 감추려는듯 고뿌를 들어 얼굴을 가리켰다.

《영심이가 안들면 내가 일어나지 못하지, 어서 들라구.》

《예, 먹겠습니다.》

영심은 눈물이 흐르는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빵을 집어들었다. 영심이가 두개를 먹고 물을 마시고 나았자 수령님께서서는 더 편하지 않으시었다. 대신 조용히 물으시었다.

《부대당위원회에 편지를 보냈지? 뭐 리혼을 제기했다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는 어린애처럼 만지름을 잊고 밝게 웃던 영심은 갑자기 머리를 푹 수그렸다. 그러니 수령님께서서는 모든것을 다 아시는것이다.

《그게 진심이요?》

터갈라진 입술을 감빔하며 눈길을 들던 그는 수령님의 시선에 부딪치자 흠칫 몸을 떨었다, 자기 마음속 밀바닥까지 들여다보시는것 같은 그 안광, 어찌보면 격분하신듯도 한 그 눈빛앞에 영심은 자기라는 존재전체가 산산이 부서져버리는것만 같았다.

《수령님! 그건...》

《대답해보라는데, 정말 사랑이 식어서 그런 제기를 했는가.》

수령님의 음성이 약간 노기를 띠었다. 영심은 두손으로 가슴노리의 옷깃을 꼭 감싸쥐었다.

《수령님, 전...그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명?》

수령님께서서는 다소 뜻밖이신듯 영심의 대답을 되뇌이시었다.

《제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더 멀리로 가서 일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저때문에 그 길을 같이 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하나는 불행한 처지에 놓인다 해도...전 인민의 총복이 되려고 했습니다....》

영심은 가슴속의 눈물을 한방울한방울 태우는것 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렸다.

《자기의 불행으로 행복을 가꾼다...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단 말인

가?...》

이윽하여 수령님께서서는 혼자소리처럼 조용히 물으시었다. 진정 답답하신듯 여름양복의 앞단추를 두개씩이나 끌러놓으시었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는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는다. 창밖의 애어진 살구나무는 까딱하지 않고 서있었다...

털차는 평양으로 달리고있었다. 창가림이 돛꼭처럼 바람을 안고 펄럭인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마냥 답답하신 심중이시었다. 이번 현지지도 결과는 한마디로 만족할만한것이였다. 전반적인 경제가 또 한걸음 크게 전진하고있었다. 했으나 마음속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수령님께서서는 그 대답을 찾으시려는듯 손에 쥐신 문건에 시선을 집중하시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김영심은 XX에 나가 정치공작대로 사업중 후퇴의 길에 올라 자강도 만포까지 들어왔다.》

김영심의 리력문건이였다.

(너무나도 간단해. 너무나도...)

수령님께서서는 말없이 속으로 뇌이시었다. 언젠가 영심에게서 직접 들으신 이야기가 생각키우시었다. 정치공작대로 나갔다가 일시적후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뿐 누구도 그에게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라는 지시를 주지 못했다고 했다. 그만큼 급변하는 정황이였고 눈에 보이는것은 사람들의 침울한 얼굴표정뿐이었던 때였다. 그때 영심은 주저없이 북쪽으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당중앙위원회를 찾아갈 결심을 했다고 한다. 2500 여리의 먼먼길, 그 길에서 제일 아픈것이 발이였고 제일 그리운것이 잠이였다고 한다.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고 그 자리에 돌맹이가 쏠려 생살을 파고들 때 영심은 울었다. 그러나 멈춰설수 없는 절음이었다. 장군님께서 날 기다리고계신다, 난 장군님께서 계시 최고사령부를 찾아가 장군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하나의 목표가 초인간적힘이 되여 그는 걸고 또 걸었다...

수령님의 추억속에는 1952년 영심이 국가계획위원회경공업과 지도원으로 자강도 만포에서 사업할 때 당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정준택의 목소리도 울리고있었다.

《정말 불덩이같은 녀자입니다. 막달이 된 몸으로 자리를 뜨지 않고 일하다가 새벽녘에 집으로 퇴근하던 중에 길바닥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홍분과 격정에 차있던 그 목소리를 지금 귀전에 들으시는것만 같다. 그래, 영심인 그런 불덩이였지. 그런 녀인을 모해하다니...

이 순간 수령님께서서는 걸으신 혁명투쟁의 먼먼 길에서 겪으신 가지가지 아픔들이 다시금 되살아오르는듯싶으시었다. 인민을 등진자들, 걸으로는 당을 받든다고 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탄뎀을 꾸는 자들은 혁명에 충실한 일군들을 우리 가까이에서 떼어내려고 갖은 비렬한 음모를 다했다. 인민에게 헌신하고 조국앞에 충실할수록 그것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는 자들의 그 모략에 마음속

상처를 입어야 했던 사람들은 얼마였고 우리 혁명은 또 얼마나 가슴아픈 시련을 겪어야 했던가. 그이께서는 차갑게 얼어붙은 어둠속에 《민생단》 보따리를 활활 태우던 그 불길을 눈앞에 보시는 것만 같으셨다.

그것이 그 어떤 모해로만 끝나는것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용서받을수 없는 배신으로 되기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했던 그 비극이 아직도 재현되고있음을 느끼시는 지금 그이의 심중에서는 참을수 없는 분노가 이글거리는 용암처럼 끓어오르는것이였다.

수령님의 눈앞에는 로열에 기대여 쪽잠에 들었던 영심의 지치고 파리한 모습이 다시 떠오르시였다. 그 모습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초기에 나가셨을 때 보신 아름답고 생기에 넘친 모습으로 바뀌여진다. 아직은 조국건설의 첫기슭이지만 부디 민족을 위하는 끝끝한 아들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던 그 녀원, 그 기대로 일떠세우신 대학, 그 대학의 첫 아들딸들이 너무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우셨던 수령님이시였다. 그때의 자신의 그 기대를 한생로록 안고사는 영심의 모습을 되새기실수록 그 훌륭한 인간이 왜서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지 못한가가 더욱 절통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이 순간 더없이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안겨드는 영심의 모습을 눈앞에 보시는듯 수령님께서서는 속으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영심인 평양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결코 외로웠던것이 아니야. 인민을 위해서 자기를 깎그리 바친 인간은 언제나 조국의 사랑속에, 나의 마음속에 살고있는거야.》

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흥분되신듯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차창가로 다가가시였다. 황혼에 물든 전야가 흘러가고있었다. 붉은 노을은 지평선 한 끝에서 장엄하게 불타오른다. 오로지 당만을 믿고 인민을 위해서 한점 열룩도 없이 한생을 불태우는 유명무명의 애국의 녀이 비껴 이 나라의 노을은 저처럼 아름다운가.

문이 열리더니 부관이 들어섰다.

《그래 어떻게 되였소?》

벌써 세차레나 물으시는 수령님께 이번에는 바라시는 대답을 드릴수 있어 부관의 얼굴은 활짝 피어있었다.

《수령님, 종현동무를 찾았습니다. 수령님께서 평양에 도착하시면 즉시 만나실수 있도록 조직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소.》

수령님께서서는 퍼놓으시였던 리력문건을 덮으시였다. 그 문건의 글줄보다는 지나온 년대들에 기억하신 영심의 얼굴들이 더 선명히 떠오르시는것이였다. 그 옆에 어깨가 축 처져있던 종현의 모습이 나란히 새겨진다. 그래서 안돼. 어깨가 처져있을것이 아니라 것처럼 훌륭한 안해를 둔 사랑으로 가슴이 벌어져야 해. 그렇구말구.

수령님께서서는 창가로 흘러드는 바람을 시원스럽게 들이키셨다....

하지만 그로부터 6 시간이 지난 한밤중 종현을 만나신 수령님의 안광에는 짙은 의혹이 서리였다.

《뭐라구? 영심이가 변했다구?》

수령님께서는 놀라우신듯 반문하시였다.

얼굴이 흠뻑이 된 종현은 금방 방속에라도 찾아들려는듯싶었다.

《그게 진심이요?》

종현은 한참만에야 눈길을 들었다.

《수령님, 전 영심이가 이미 모든것을 포기했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를 돌려세우기는 이젠 힘들것 같습니다. 리혼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혹시... 그의 결심대로 하는것이 제가 줄수 있는 마지막사랑이 아니겠는지...》

종현은 맥락이 닿지 않는 말들을 떠염떠염 이어붙였다.

《마지막사랑이라...》

이윽하여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깊어가는 밤의 고요속에 모든것이 자기의 운동을 멈춘듯싶은 순간이였다.

《마지막사랑이라. 그러니 동무의 가슴속에선 이미 불이 꺼지고있었구만.》

잠시 침묵을 지키시던 수령님께서는 격한 음성으로 다시금 말씀을 이으시였다.

《하지만 난 이번에 꺼지는 불이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고왔소. 동무가 마지막사랑으로 위해주고싶은 그 영심이의 가슴속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더 크고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을 보았던 말이요.》

영심인 이번에 정말 많은 일을 했소. 난 가는 곳마다 더 윤택해진 인민들의 생활을 보고 정말 기뻐소. 이젠 우리 일꾼들이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생활로, 체질로 만들었다는것을 확신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아글타글 뛰어다니며 인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남편과 멀어지려고 그렇게 일했다고 불수 있는가. 동문 왜 그의 헌신속에서 자기 가정에 대한 더 크고 뜨거운 사랑을 보지 못했는가. 난 이것이 가슴아프오.》

수령님께서는 종현의 앞으로 다가서시였다.

《종현동무, 동문 영심이한테서 무엇을 사랑했소, 얼굴이요? 지성이요? 사랑이란 단순히 처녀 총각이나 부부사이의 정일수만은 없어. 그건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뿌리를 둔 꽃과도 같은거요. 그 뿌리가 없이는 꽃을 피우지 못해. 그 뿌리가 튼튼할 때 아무리 된 서리를 맞아도 꽃은 다시 피는 법이거든.》

종현은 열없이 서있었다. 수령님의 음성은 그의 온 뒤통에 뜨거운 쇠물처럼 흘러들고있었다.

《난 영심이를 만나고 오면서 속으로는 눈물이 나더구만. 영심인 자기의 불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수만 있다면 더 소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니요. 조국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헌신한 삶에는 반드시 행복의 꽃이 피는거요.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장한 자식들을 그가 바친



헌신의 열매, 백배로 넓고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아주는거란 말이요. 불행도 웅대한것으로 여기며 혁명을 한다면 그건 결코 아름다운것이 못되는 법이요. 우리 혁명은 인간들을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이요. 난 그것을 믿소.》

《수령님!》

종현은 머리를 떨구며 흐느꼈다. 고뇌로 하여 꺼칠해보이던 두볼로 맑은 눈물이 쉬임없이 흘러내렸다.

《수령님, 제가... 제가 속통이 좁은 놈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시각 창밖을 보고계시였다.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 그 별들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아낌없이 바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비껴있는듯싶었다. 김혁, 차광수, 김책, 강건, 안길...

그들의 희생이 안겨주는 아픔이 클수록 그런 충신들, 그런 애국의 한생들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빛내여주고싶으신 수령님이시였다.

×

영심은 이제 곧 평양으로, 수령님곁으로 간다. 복직에 관한 소식이 알려지고 소환장이 나온지도 벌써 이틀이 된다. 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날개라도 돌친듯 가벼웠다. 주위의 모든것이 그를 향해 행복, 행복하고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거리와 사람들은 온통 음악으로 가득차있고 기쁨으로 속속들이 젖어있는것만 같이 그에게는 느껴졌다. 지금 그의 뇌리에는 남편이 보내온 편지의 구절구절이 그냥 떠오르고있었다.

《영심이, 어제 수령님께서 직접 보내신 일군이 우리 집을 찾아왔댔소. 이번에 해명된데 의하면 영심의 백부는 <협화회>회원으로 위장했던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었다는거요. 수령님께서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자 가까이에 있는 집에 먼저 알려주라고, 겹해서 당신이 복직되었다는 사실까지 다 알려주라고 하셨다오. 난 그저 울었소.

영심이, 난 요즈음은 우리가 꼭 통남산시절에 사는것만 같소. 생각나오? 당신이 그때 수령님께 꽃을 달아드리던 그 행복한 순간이...》

아아, 어찌 한순간인들 잊어본적이 있었으랴. 그 순간이 있었기에, 그 소중한 추억을 안고 지금껏 자기를 지탱해낸것이 아니었던가.

10 월의 그 푸르고 푸른 가을하늘, 태양빛처럼

눈부시던 수령님의 미소... 그때 영심은 옆사람의 재촉을 받고서야 수령님께 달려나갔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수령님께 꽃송이를 달아드렸던지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그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것만 같이 뛰던 그 고동소리가 메아리로 남았을뿐

《고맙소. 조선의 훌륭한 딸이 되기 바랍니다.》

즐겁게 웃으시는 수령님, 좌중에 설레이는 웃음과 환희의 바다.

《여보 별이 아버지. 난 그때 수령님께 내가 꽃을 달아드렸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선 바로 그때 나의 행복한 한생을 축복해주셨어요.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한생 지지 않는 꽃을 피워주셨어요. 난 지금에야 그걸 깨닫는군요.》

너무 기뻐 나비처럼 팔랑대는 별이와 함께 한 발 앞서 역함에 나와있던 옥순은 꽃단지를 들고 나타난 영심을 보고 눈이 둥그래졌다.

《이건 무슨 단지요요? 짐이야 이미 다 부치지 않았나요.》

영심은 마치 소녀와도 같이 수집은 웃음을 피우며 단지를 쓰다듬었다.

《이건 수령님께서 어제 전화로 말씀하신거예요. 우리의 땀이 깃든 된장을 맛보시겠다면서...부탁한다고...》

옥순은 말없이 행복에 습벅이는 영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 너인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수령님의 축복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의 절정에 오른것이다. 래일은 더 행복해질 인생...)

《부상동지!》

옥순은 걱정에 싸여 영심의 손을 부여잡았다.

평양으로 달리는 차안에서 영심은 술곳이 잠이 들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하늘을 메우며 천송이, 만송이로 꽃송이가 떨어져내린다. 붉고 호합진 꽃송이. 영심은 너무 기뻐 두손을 펼치고 그 꽃송이들을 받아안는다. 머리에도 어깨에도 날아내리는 꽃송이. 다시 눈길을 드니 푸른 하늘가에 어버이수령님께서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영심을 굽어보신다.

《수령님!》

수령님께 꽃송이를 한아름 안은 영심은 달리고 또 달려간다. 어서 오라고 수령님께서서는 손저어 부르신다....

## 지하시장에 대한 이야기

럼형미

전쟁의 포연자욱한 하늘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하얀 눈이 쏟아질수 있는지  
그이께선 놀라우신듯  
평평 눈내리는 재빛하늘을 올려다보신다  
수령님의 어깨에  
숨숨이 내려앉는 함박눈  
금시 주르르 녹아내리는 물방울들은  
달아오른 가슴에서 떨어지는  
아리고 쓰린 락수물인듯  
왜 이리도 답답하고 가슴 무거운지  
그이께선 마침내 생각해내셨다  
낮에 보셨던 사창장마당의 할머니를  
푸실푸실 연기내는 화로앞에서  
지짐을 부치며 매운눈 비비던  
백발로인의 처량한 모습  
바작바작 타들어가던 록두지짐이  
지금도 그이 가슴에 끄스름을 일구는듯  
-아들은 군대에 나가구  
며느린 며칠전 폭격에 잘못됐지요  
그러나 내 세 손주녀석을 보란듯이 키우려구  
이렇게 나섰지만 미제놈비행기때문에...  
눈발속에 서계시는 그이의 눈앞으로  
꽉 감으신 그이의 눈앞으로 흘러간다 지나간다  
하늘만 쳐다보던 장거리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  
그들앞에 옹기종기 놓여있던  
호미며 가마, 실토리며 옷가지, 학습장...  
아, 삶이란 이렇게 억세게 이겨내야 하는것이며  
가사

전쟁이란 결코 총과 대포만이 아닌  
더 강한 삶의 세계를 창조하는것인가  
저 하늘에선 포연이 타래쳐도  
이 땅의 눈세계는 티없고 깨끗하듯이...  
그이께선 숫눈우에 폭폭  
힘찬 첫 자욱 찍으시였다  
기둥처럼 믿던 장정들을 전선에 보내고  
후방에서 삶의 보습을 억세게 끄는 사람들  
농사짓고 원호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 힘껏 어울려 생을 창조하는  
성실하고 강의한 인민이 고마우셨다  
아, 원쑤 미제가 아무리 폭탄을 퍼부어도  
이 나라 너인의 바늘쌈지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이 나라 할머니의 지짐 한점 흩어놓지 못하게  
이 나라 아이의 책 하나 불태우지 못하게  
그이께선 지켜주고싶으시였다  
불비속에서도 도도히 흐르는  
줄기찬 생의 흐름을 소중히 지켜주고싶으시였다  
평양 시내의 여러 산들에 굴을 뚫어  
지하시장을 만들어  
인민들의 전시생활을 안정시켜주자고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전승을 약속하며  
아, 력사에 없는 지하시장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날은  
전쟁의 차거운 눈송이 눈송이가  
그이의 체온에서 뜨겁게 녹아내리던  
전쟁의 어느 겨울날이였다!

## 원군 원민은 내 나라의 전통

리명복

인민의 마음속엔 군대가 있고  
군대의 마음속엔 인민이 있네  
아 원군 원민의 영원한 기풍은  
장군님 꽃피우신 내 나라의 전통일세  
  
기쁜일 생기여도 인민을 찾고  
고난이 막아서도 군대를 찾네

아 원군 원민의 영원한 기풍은  
장군님 꽃피우신 내 나라의 전통일세  
  
군대를 따라가면 승리만 있고  
인민을 사랑하면 기쁨만 있네  
아 원군 원민의 영원한 기풍은  
장군님 꽃피우신 내 나라의 전통일세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의 생애는 조선의 근대력사에서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중첩되던 1910년대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전에 우리 나라는 벌써 일본의 독점적인 식민지가 되었다.》

## 인사를 드립니다

리명옥

물랐습니다  
대동강기슭 아담한 나의 집에  
새해의 웃음소리 더 높아만 지는 정월에  
우리 아버지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을 다녀오신줄  
소문도 없이 다녀오신줄

이 저녁 구슬같은 딸애의 노래들으며  
마음껏 터뜨린 단란한 가정의 웃음소리조차  
아버이의 크나큰 헌신앞에  
송구스러워지는 마음입니다  
인민은 언제나 기쁨속에 살고  
장군님은 정초부터 먼먼길 걸으셨으니...

부모의 사랑 다 모르는 자식들처럼  
우리 언제가면  
장군님 그 사랑의 깊이 다 알수 있으랴  
언제가면 그 헌신의 깊이  
다 알수 있으랴

하얀 연 높이 뜬 대동강반에  
뛰여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도 맑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의 얼굴이  
저리도 활기찬것은  
인민위한 헌신의 그 길에서 피어난것임을

눈곱젖어 생각하는 이 마음에  
다함없는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행복의 꿈나라 편 나의 집 창문을 지나  
정월의 차디찬 눈바람속을 뚫고 가신  
장군님의 전선길 굽이굽이가  
이 마음에 다 보여옵니다  
순간의 휴식도 없이 또다시 이어가신  
머나먼 중국방문의 수만 굽이굽이가  
이 마음에 다 보여옵니다

장군님의 걸음엔  
자신위한 걸음은 단 한걸음도 없으시고  
인민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오직 그 하나의 걸음뿐이시니  
어찌 인민이 그이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며  
어찌 인민이 그이께 심장을 바치지 않으랴

조종천선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조국과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 쌓으시여  
더 큰 행복을 안고오신  
장군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헌신앞에  
인민은 감사의 인사 드리옵니다  
다함없는 축원을 드리옵니다

## 따뜻한 불빛이 흐르는 저녁

주광일

창밖엔 눈보라가 일고  
방안엔 따뜻한 불빛이 흐르는 저녁  
나는 들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소식을

-장군님 소식이에요!  
안해는 반가워 부엌에서 들어오고  
철없는 세살짜리 아들도  
초롱눈 반짝이며  
텔레비죤앞에 모여앉은 이 저녁

그 어느때 들어도 기쁘고  
깊은 밤에 들어도  
새힘이 솟구치던 장군님소식  
조국을 떠나계신  
그 수만리길을 마음속으로 밟아보는  
그리움의 이 저녁

나도 안해도  
다는 모른다  
장군님 가고 오신  
그 길이 얼마나 멀고 먼 거리인지  
또 얼마나 추운 길인지

허나 우리 어찌 모르랴  
이 땅의 천만가정 천만자식들을 위해  
이국의 수만리길  
멀고 먼 사랑의 길 이어오신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이름없는 우리 집의 행복도 있었음을

차창밖에 흘러가는  
류다른 이국의 산발을 보시면서도  
두고온 조국의 푸른 숲을 그려보시고  
그 어느 공장 그 어느 거리를 돌아보셔도  
사랑하는 인민의 모습을  
눈앞에 먼저 그려보신 장군님

다 안고 가셨으리  
설날아침 찾으셨던 초소의 병사들도  
꼬마재간둥이들의 창창한 미래도  
원대한 포부안고 비약의 나래펼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가슴에 안으시고  
천리길 만리길을 가셨으리

아버이수령님 가고 가셨던 조종친선의 길을  
새 세기의 넓은 길에 튼튼히 이으시며  
장군님 가고 오신 날과 날들은  
멀고 가까움이 따로 없는  
인민을 위한 낮과 밤  
조국을 위한 낮과 밤

장군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따뜻한 불빛이 흐르는 이 저녁  
아 아버지 돌아오신  
이 저녁은 우리 집의 명절이여라  
이 저녁이 우리 집의 가장 기쁜날이여라

가사

## 장군님 사랑인 나의 조국아

최정용

선군으로 시련의 광풍헤치며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주신분  
장군님 자욱으로 다져진 이 땅  
한줌 흙도 목숨같이 귀중하여라  
아 장군님 사랑인 나의 조국아  
천만년 빛나라 태양조국아

선군의 사랑으로 인민을 안아  
그 운명 그 존엄 지켜주신분  
장군님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

둘도 없는 우리의 생명이라네  
아 장군님 사랑인 나의 조국아  
천만년 빛나라 태양조국아

선군의 총대우에 아침해 솟고  
선군의 해빛아래 새봄 꽃피네  
장군님 위대한 품속에 안긴  
내 조국 미래는 창창하여라  
아 장군님 사랑인 나의 조국아  
천만년 빛나라 태양조국아

## 날개돋친 백마

뛰어난 천품과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의 갈피갈피에는 전설적이야기들로 가득 차있다. 그 가운데는 날개돋친 백마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였던 주체 22(1933)년 11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소왕청 유격구의 한 마을에 주둔하고있던 반일부대를 찾으시였다. 반일부대두령들이 그이께 자기 부대병사들의 사격훈련을 지도해주실것을 간절하게 말씀 올리였기에 시간을 내신것이였다. 이날 그해 첫눈이 내리였다. 첫눈이 오는 날 태양의 존함으로 명성떨치시는 백두산청년장군을 맞이한 반일부대병사들은 류다른 감격에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먼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강의를 하시였다. 그것은 그 반일부대가 거의다 기병들로 꾸려져있기때문이었다. 그이께서 가르쳐주시는 사격의 묘한 리치가 하도 신통하여 반일부대장병들은 연방 무릎을 치며 탄복해마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설명을 끝내시고 사격동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백마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 박차를 가하시자 백마는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백마의 하얀 갈기가 훑날리는 흰 눈발과 조화롭게 어울리였다. 모두가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누구도 따를수 없게 말도 잘 타신다고 감탄하면서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고있는데 야무진 총성이 려달아 가락맞게 울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달리는 말우에서 권총사

격을 하신데 이어 재빨리 기병총을 벗겨드시고 나타나는 목표판들에 총탄을 날리시였다. 매번 목표판 한가운데 명중이였다. 그때마다 하늘땅이 들썩하게 환성이 터져올랐다. 맑은 날 땅에 엎드려 총을 쏘아도 맞히기 어려운 목표들인데 쏘아지는 흰눈속으로 질풍같이 말을 몰아 달리시며 백발백중하시는 백두산청년장군의 신비스러운 사격술에 모두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총성이 려거퍼 울릴수록 백마는 네굽을 안고 속도를 더욱 높이였다. 번개같이 언뜻거리는 말발굽에 눈보라가 뽀얗게 일었다. 그것은 마치 힘차게 퍼덕이는 흰 날개처럼 보였다. 어떤 병사들은 그 광경이 너무나도 희한하여 쟁충쟁충 뛰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웨치였다.

《백마에 날개가 돋쳤다!》

사격훈련장은 말그대로 놀라움과 끝없는 격정의 도가니로 끓어번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범사격을 끝마치시고 말을 몰아 제자리로 돌아오시였을 때였다. 반일부대병사들은 백마를 신비스럽게 쳐다보며 옛말에 장수가 나면 룡마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더니 이 백마는 틀림없이 백두산장군을 모시기 위해 백두산의 하늘에서 내려온 룡마일것이라고, 서있을 때에는 몰라도 빨리 달릴 때에는 날개가 돋친다고 저마나 한마디씩 감탄을 터뜨리였다.

그러면서 백두산장군의 기상앞에서는 아무리 많고 강하다는 적들도 바람부는 가을날의 락엽처럼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고들 하였다.

그후 백두산장군의 날개돋친 백마에 대한 혁명전설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가사

## 야전차의 흰눈

오정로

들에는 따뜻한 봄이 왔는데  
장군님 야전차엔 눈이 실렸네  
높고 험한 전선고지 넘고 또 넘어  
마지막 흰눈도 맞고 오시네  
아 야전차의 흰눈

언덕엔 꽃나무 망울을 짓고  
들에는 아지랑이 피어오르네  
독지 못한 흰눈을 바라볼수록

장군님 헤치신 길 어리어오네  
아 야전차의 흰눈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려  
맞으신 찬눈은 얼마이실가  
이 강산 꽃들을 피우고서야  
장군님 야전차의 흰눈이 녹네  
아 야전차의 흰눈

## 짧은 한생을 불꽃처럼 산 혁명시인(1)

조기천은 현대조선시문학력사에서 창작년한이 가장 짧은 시인의 한사람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시인은 수령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에서만 작가의 삶과 창작적개성이 꽃피나고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이 태어난다는것을 자기 문학으로 확증한 혁명적시인이다.

일찌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인 조기천이 해방직후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말도 쓰지 않던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조선식으로 쓴데 대하여 탄복한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장편서사시《백두산》은 우리 식 장편서사시의 첫 표본으로 되였으며 우리 식 수령형상서사시의 첫 모범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해방후 불멸의 혁명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편서사시<백두산>의 창작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조기천은 해방후 불과 여섯해밖에 창작활동을 하지 못한 단명의 시인이다.

주체 2(1913)년 11 월 6 일 함경북도 회령시의 빈농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부모를 따라 이전 쏘련 원동지방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중학교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생활을 하였다.

어려서 조국을 떠나 오래동안 이국풍토에 젖어 있던 그는 조국의 모든것이 낯설었고 조국의 말마저 멀었다.

그러한 그가 조국해방후 귀국하여 어떻게 짧은 기간에 장편서사시《백두산》을 비롯한 많은 명작들을 남길수 있었고 인민의 사랑받는 혁명시인으로 될수 있었는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문제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창작성과를 타고난 재능의 꽃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의 불같은 정열의 산물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타고난것은 아니였다.

시인에게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재능, 정열의 싹을 터쳐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보살피심이었으며 오늘도 그의 작품들이 그렇듯 빛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따사

로운 품이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인 조기천을 알게 되신것은 해방된 조국땅에 첫 봄이 한창 질어가던 주체 35(1946)년 5 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날 김책동지로부터 조국해방과 함께 귀국한 한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서사시를 준비하고있는 한 시인이 김일성장군님을 몹시 만나뵙고싶어한다는것이였다.

첫 순간 그는 벌써 확 안겨오는 김일성장군님의 그 비범한 인품과 고결한 덕망에 무한정 마음이 끌리는것을 어찌지 못하였다.

만주광야의 눈바람에 철색으로 물드신 얼굴, 영채도는 안광, 천하를 호령하시던 우렁우렁한 음성, 과연 전설적영웅, 강철의 령장이시라는 느낌이 온 마음을 사로잡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려서 조국을 떠난 그가 조선말을 잘한다고 못내 대견해하시면서 오래동안 해외에 살며 조선문학을 공부하고 조선말을 열심히 익혀온것은 찬양할만 한 일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그 말씀에 시인의 가슴은 뭉클했다.

간악한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일찌기 부모를 따라 고향을 떠났던 그는 이국땅에서 30 이 훨씬 넘도록 조국의 흠냄새를 모르고 자랐다.

그래도 조선사람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조선문학과 조선말을 배우겠다고 모지름을 쓰던 그 나날, 그러다가 백두산에 장수별이 솟아오르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해방의 기치 높이 추켜드시고 왜적을 쳐부신다는 소식을 들으며 감격에 잠 못이루던 밤들... 시인은 그 모든것을 장군님께 말씀올리지 않고서는 건딜수가 없었다.

꼭 생각깊으신 안색으로 시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나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을 잊지 않는것이 귀중한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소행을 항일혁명선열들의 열렬한 애국심에 비쳐주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애국의 필봉을 높이 들고 인민대중을 투쟁으로 고무하는 전투적인 글을 많이 써낼것을 기대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그가 요청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은 처음부터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된 영웅적투쟁이었다고 하시면서 항일혁명투쟁의 그 간고하고 성스러웠던 로정을 개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야기는 무려 4 시간나마 계속 되였다.

이 4 시간동안에 시인의 눈앞으로는 인류사상 류례없이 간고했던 20 여성상의 항일혁명투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오직 자기 힘을 믿고 들고 일어나 누리에 붙는 불로 타 오르며 일제의 100 만대군을 통쾌하게 족치던 영광스러운 항일대전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생생한 화폭으로 과도쳐왔다.

시인은 이 성스러운 싸움을 조직하고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 절세의 위인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리러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투쟁사적이야말로 이 세상의 시인들에 붓을 모아 칭송하고 길이 전 하여야 할 가장 숭고하고 빛나는 혁명력사가 아닌가.

수령님을 노래하는것은 력사가 지워준 과제이다. 시대의 가수로서 이것을 떠나서 그 무엇을 노래할수 있단 말인가.

번개 일듯 번쩍하는 시적령감과 충동에 억제할수 없는 힘을 느낀 시인은 집에 돌아오기 바쁘게 책상에 마주 앉았다. 창작의 나날이 흘렀다.

그러던 주체 35(1946)년 9 월 어느날 시인 조기천은 몇명의 작가들과 함께 뜻밖에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에게 《애국가》와 《인민군행진곡》을 창작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런데 수령님의 말씀이 끝나자 조기천은 일어나 창작중에 있는 서사시에 대한 지도를 받고싶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시며 환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시며 크게 도움은 못되겠지만 다 함께 듣고 토론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시인은 일어서서 서사시의 머리부분을 읽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인이 《따-웅-》하고 백두산호랑이가 나오는 장면을 호기있게 랑송할 때 그 호협한 패기가 마음에 드신듯 미소하시였다.

그러시더니 동무들, 어떻습니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다들 웃고있을뿐 말이 없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두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며 그런데 사건을 라렬하지 말고 보천보전투와 같은 의의있는 소재를 기본으로 하여 쓰는것이 좋겠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항일혁명전쟁이라는 거대한 력사적화폭에 매혹된 나머지 사건들속에 포로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고있던 시인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순식간에 눈앞이 환히 트이는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몇달후였다.

작품을 완성한 시인은 뒤설레는 마음으로 원고몽치를 꾸러안고 어버이수령님 저택으로 다시 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책동지를 통하여 동무가 서사시를 다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어서 작품을 보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원고를 받아드시고 읽어내려가시였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심정에서 시를 읊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웁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며 시인의 랑송을 주의깊게 들으시였다.

서사시의 1 장부분을 읽은 시인이 랑송을 잠시 멈추였다.

몹시 바쁜신 **김일성장군**님께 다음부터는 흐름을 요약해 설명해드리고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만을 말씀드리자는것이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없습니다, 동무가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것 같은데 조금도 걱정할것이 없습니다, 내가 잠을 한두시간만 덜 자면 됩니다, 동무는 이 시를 쓰느라고 밤을 샌 일도 있었겠는데 우리가 잠을 좀 덜 자면 뭐랍니까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시인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작가동무들이 창작한 작품을 봐주는것은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하시였다.

한사람의 시인을 위하여, 한 시인의 문학을 위하여 베푸시는 이 뜨거운 은정에 시인은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일찌기 호메로스시대로부터 시인도 시도 무수히 많았지만 그 어느 시인의 시가 이처럼 은혜로운 사랑속에 태어난적이 있었는가.

이날 서사시의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품의 기본사건인 보천보전투를 군사적각도에서가 아니라 정치적각도에서 더 심오히 형상할데 대하여, 이 부분의 형상을 따로 하나의 절로 형상하되 바로 그것이 서사시의 전반흐름에서 절정을 이루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빨찌산대장을 주인공으로 그린 시에서 주인공을 유격대원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며 꼭 그렇게 하라고 거듭 당부하실 때 시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끝없이 겸허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에 깊이 감동되였다. 그러나 시인은 다른 말씀은 다 받아들여도 그것만은 지킬수 없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수령님을 노래하고 칭송하는것은 시인 조기천에게 있어서 온 생애를 바쳐도 한이 없을 지상의

의무였고 드릴수 없는 신념이었으며 행복이였다.

그리하여 주체 36(1947)년 2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모신 해방후 우리 문학의 첫 서사시이며 기념비적대작인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세상에 나왔으며 이 작품은 나오자마자 우리 문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전체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읽히우기 시작하였다.

**박준택**

(다음호에 계속)

## 그날의 총대는 조국이였다

**김충기**

선군으로 빛나는 오늘

나는 생각하노라

세월의 저 멀리

이 나라 선군의 시원이 열린

력사의 첫 기슭을

그러면

봄빛 푸른 안도의 밀림에 터져울랐던

총대의 그 메아리

지금도 이 가슴에 들려오는듯

그날엔 축포도 오르지 않았다

허나 청년장군 김대장을 우러러

우리 혁명무력의 첫 대오가 터친 만세소리

해방의 봄우뢰되여

먹구름덮인 조선의 하늘을 뒤흔들었다

총대만이

빼앗긴 나라를 찾는 길이었서

오직 총대만이

수난당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이었서

《지원》의 뜻어린 두자루의 권총을

우리 수령님 천만자루로 높이 드셨거니

그날부터였다

포악무도한 침략자의 발굽아래

짓밟히고 신음하던 겨레의 가슴에

백두산이야기 전설처럼 깃들고

희망의 새 봄빛이 비껴든것은

그날부터였다

어디선가 총소리만 들려도

백두산대장수 축지법을 쓴다고

삼도왜적이 벌벌 떨고

《무적황군》이 비명을 지른것은

총대가 약해

나라를 빼앗기고도 피눈물만 흘려야 했던

그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며

조선이 더는 약소민족이 아님을

온 세상에 선언한 총대!

그 총대에서 태어났더라

해방된 새 조국이

난생 처음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된

자주적인민의 아름다운 삶이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조국이기예

두번 다시 노예로 살수 없는 인민이기예

우리 장군님 오늘도

선군의 머나먼 길 이어가시거니

아. 우리 수령님 높이 드신

그날의 총대는 조국이였다

우리 장군님 오늘도 높이 드신 선군의 총대는

천만년 강성하고 또 강성할

우리의 영원한 조국이여라

# 위대한 병사

김석주

장군이 아닌 보통병사처럼  
전선전호를 걸으시며  
1 자동보총수부터 마지막전사까지  
분대의 좌지들에 서보기도 하시고

최고사령관이 아닌 보통병사처럼  
수수한 나무결상에 앉으시여  
상학시간 강의도 들으시고  
탁상교양자료도 한장한장 읽어보시여라

중대나 대대의 훈련장에서 한때를 보내시며  
훈련모습을 보아주기도 하시고  
병실이나 휴식장에서  
흥겨운 오락시간을 보내시며  
병사일과도 함께 하시여라

어디서는 기상구령을 들으시고  
어디서는 취침구령을 들으시며  
그렇게 날이 밝고 날이 저무는  
바쁘신 그 전선길우에

온 나라 병사일과가 흘러라

그이의 야전복엔 전호가의 풀냄새 배였더라  
그이는 병사들이 흘리는 땀에 대해 잘 아시고  
야전식궤기밥에도  
야간행군의 쪽잠에도 습관되시였더라  
보통병사와 다름없이

다만 보통병사와 다른것이라면  
그이의 일과엔 교대도 휴식도 없는것  
하나의 좌지나 구간이 아닌  
온 나라 전선들을 다 맡으신것  
중대나 대대의 대렬명단에 이름을 올리듯  
모든 초소들과 군부대들에 마음을 두고계시는것

그러하여라 그이는 위대한 병사  
사랑으로 수천수만의 병사들을 불러일으키시는  
장군중의 장군  
강철의 런던과 사단들우에  
승리의 기치로 빛나시는 최고사령관이시여라

# 철령의 선군전설

박웅전

피여오른다  
험준한 산악을 감싸안고  
몽개쳐오르는 안개발들이  
굽이굽이 유정한 령길을 쓰다듬으며

한껏 피여오르는 안개속에  
못잇을 철쭉꽃들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며  
철령의 새 전설을 이야기하누나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이 나라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우리 장군님  
철의 의지로 넘고넘으신

철령길

비가 와도 가시고  
눈이 와도 가시며  
굽이굽이 넘으신 벼랑길 얼음길  
장군님 넘으시자  
천리방선에 터져오르는 환호성  
흔비백산한 원썩들의 아우성

봉쇄와 압살의 검은 구름장  
산산이 깨여지고  
낮아졌다 고난의 고개고개들은  
허리띠를 조이며 뿔아오르던  
사람들의 어깨엔 날개가 돋혔다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이 열린  
 낮아진 고개길들로  
 넘어갔다  
 토지정리 기계화대부대가  
 발전기를 실은 대형차들이  
 야영을 가는 아이들의 꽃땀들이

낮아진 시련의 고개들을 넘어  
 열리었다  
 시원하게 펼쳐진 청년영웅도로가  
 철보산 구월산 관광길들이

개건확장된 공장구내길들이  
 강성대국의 가까운 앞날이

오,  
 위대한 천출명장을 모시여  
 가장 엄혹한 조국수호전의 나날  
 대지각변동이런듯  
 우리 장군님  
 한 령을 짊어 시련의 천만령을 낮추고  
 한 길을 열어 행복의 천만길을 꽃피우신  
 선군의 철령전설 태어났도다

## 친근한 부름

국방위원회 위원장!  
 크나큰 승리의 언덕우에서도  
 영광과 축원의 꽃바다우에서도  
 그이는 모든 칭송을 마다하시고  
 이 부름에 헌신으로 대답하신다

거룩한 업적도  
 불멸의 공헌도  
 그이는 적으신듯 다 잊으신듯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그이는 이 부름앞에 충실히 복무하신다

우리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  
 이 부름 처음으로 외워보던 그날부터  
 우리 미처 알지를 못하였구나  
 언제 어느새 그리도 빨리  
 이 부름 가슴깊이 자리잡았는지

오성산 가파로운 절벽가에서  
 야전차의 자욱을 쓰다듬던 그날인가  
 철쭉꽃 가득히 핀 철령의 언덕에서  
 조국의 봄을 두고 생각깊던 그날인가

걸음걸음 안고가신 뜨거운 사연  
 인민이 다 아는 눈물겨운 이야기  
 허나 우리 미처 다 알지 못한  
 그이의 마음속 크나큰 심정이

승리와 변혁속엔 더 많이 깃들고  
 걸어갈 래일에 가득히 비껴있나니

노예의 설움에 눈물을 뿌리던  
 망국의 그 세월과 결별하고  
 세계앞에 조국을 당당한 강국으로  
 존엄높이 내세우신 민족의 은인  
 우러러 부름은 왜 이리도 소박한가  
 소박한 이 부름이 왜 이리도 친근한가

원췌가 들으면 공포에 떨고  
 인민이 들으면 용기가 백배해지는  
 이 부름 떠나선 그 어떤 행복도  
 영광도 미래도 바랄수 없음을  
 뼈와 살로 깨닫게 한 불멸의 나날이여

사랑으로 증오를 이긴 심장의 열  
 정으로 조국을 이끄는 그이의 마음  
 가득히 깃들어 뜨겁게 어리어  
 가장 거룩하고 친근한 부름

아, 그 부름 심장처럼 간직한 대오속에  
 그 부름 기발처럼 날리는 대오앞에  
 가장 친근한 그이가 계신다  
 인민의 사랑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시여라

신문경

## 몸소 입어보신 군복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림없이 조국의 천리방선을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의 인민군병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듯이 돌봐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1970 년대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였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전연의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전투준비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본계선초소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어느 한곳을 한참동안 바라보시였다.

안내하던 현지의 지휘관들이 그쪽을 보았으나 그들의 시야에는 별다르게 안겨오는것이 없었다. 있다면 초소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고있는 한 병사뿐이였다.

그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이 무더운 여름철에 몇시간씩 전투근무를 수행하자니 얼마나 힘들겠는가고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때 지휘관들은 그이의 뜻 알아차리고 병사를 찬찬히 여겨보았다.

그 병사로부터 몇걸음 떨어진 곳에는 길은 나무그늘이 있지만 그는 제 자리에서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경각성있게 근무를 서고있었다. 조금만 한쪽으로 옮겨서도 삼복철의 피약별을 피할수 있었지만 감시에 지장을 받을가봐 자기 자리를 뜨지 않고 초소를 지키고있었던것이다. 그러느라니 그의 얼굴로는 땀이 흘러내렸고 군복잔등은 젖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시선을 돌려 지휘관들을 보시며 인민군병사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데 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으니 무엇이든지 요구하라고,

그러면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시였다.

지휘관들이 요구할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왜 없겠는가고 하시며 그 병사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시더니 그가 입고 있는 군복을 자세히 보시였다.

장군님께서선 군복을 살펴보시며 병사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이런 천으로 지운 군복을 입고 근무를 서다니니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하시며 동행한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여름철군복은 바람이 잘 통할수 있는 천으로 만들어 공급하라고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여 인민군대에서 새로운 군복을 만들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여름군복기본품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군대의 피복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들이 가지고 온 여름군복을 드시고 천의 질과 색깔, 군복의 형태를 한동안 가늠해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친히 옷옷을 벗으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이 모두 의아함을 금치 못하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뜻밖에도 한번 입어봄시다라고 하시는데것이였다. 몸소 입어보시고 마음에 들어야 《합격》 시키겠다는 말씀이였다.

그 순간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잠시후 몸소 군복을 입으신 장군님께서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도 보시고 혼술이 어설핀데가 없는가 간간히 살펴보기도 하시다가 군복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군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너무나없이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군인들의 군복 하나에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면 몸소 입어보시라 하는 생각에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우리 인민군군인들에게 더 질 좋은 군복을 만들어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병사들이 입고있는 군복들에선 우리 장군님의 이러한 다심한 사랑이 속속들이 깃들어있다.

## 뜻깊은 봄날에 깃든 사연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새 조국건설의 나날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숭엄한 모습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뜻은 주체 37(1948)년 4월에 열렸던 남북련석회의 나날에 더욱 뜨겁게 표현되었다.

어느날 남조선녀성대표들이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38 도선을 넘어 평양에 온다는 소식에 접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이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때 38 도선을 넘어오느라고 옷이 못쓰게 된 녀성대표들도 있다는것을 아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밤사이에 20 여명이나 되는 대표들에게 몸매와 나이에 맞는 조선옷을 지어주어 그들모두가 우리 민족고유의 조선옷차림을 하고 회의에 참가하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후 그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앓는 사람은 없는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집을 떠나온지도 10 여일이 되는데 짐식구들은 그림지 않는가 등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고 앞으로 남북련석회의정신을 받들고 더 많은 녀성군중을 발동하여 조국통일성전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 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만나뵙고난 남조선녀성대표들은 한결같이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통일운동을 새롭게 벌려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그중에서도 남조선자주녀성동맹을 책임진 녀성

의 감동과 반향은 컸다.

그로 말하면 민족주의영향하에 있는 작은 녀성 단체를 책임진 녀성으로서 정치적립장으로 볼 때 중간과에 속하고있었다. 남조선자주녀성동맹 대표들은 평양에 온후 누구에게도 결을 주지 않았고 참관을 다닐 때에도 무표정한 태도를 취하였다.

사실 그들은 북조선의 현실이 어떤가 하는것을 한번 보거나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평양에 왔었다. 그런데 보고 듣는 모든것이 너무나도 새로왔고 감탄할만 한것이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북조선에서 남녀 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고있으며 녀성들이 떳떳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있는 현실을 목격하였던것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녀성대표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시고 그들에게 평양에 와서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된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더 많은 녀성들을 대렬에 망라시키며 다른 녀성동맹과의 공동보조를 취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녀성들도 일치단결하여나갈데 대한 김정숙동지의 말씀에 접한 그 녀성은 앞으로 자기들의 조직을 반미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적인 단체로 튼튼히 꾸리고 다른 녀성동맹과 굳게 손잡고 투쟁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나날 남조선녀성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성전에 떨쳐나서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 병사의 하루

장은하

총대로 조국의 안녕 지키며  
병사는 또 하루 시작한다네  
위훈안고 내닫는 발걸음속에  
조국의 변영도 안고간다네  
아 병사의 하루는 조국의 하루

땀흘리며 병사가 행군길 갈 때  
조국의 들판엔 금파도 일고  
전호가에 설레는 다박솔너머

아이들의 꿈실고 연이 오르네  
아 병사의 하루는 조국의 하루

결전의 하루와 한생 바뀌도  
천년을 산것보다 영예로워라  
조국에 바쳐진 병사의 하루  
우리의 장군님 기억하시리  
아 병사의 하루는 조국의 하루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의 절절한 념원이며 최대의 희망이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송가문학과 백두산전설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도 로동계급의 당의 유일한 지도에 의하여서만 목적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사업으로 될수 있으며 확고한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힘있게 전개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다.》

《문학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은 반드시 수령, 당, 대중의 3 위일체의 원칙에서 당과 대중과의 연관속에서 그려야 한다.》

《수령의 위대한 품모를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그려야 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은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

## 론설

### 명작창작의 대강을 받아안고 힘차게 달려온 자랑스런 10년

#### 홍영길

지금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이 위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발표하신 1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작품창작은 고유한 의미에서 명작창작을 기본 목표로 제기하며 그것을 통하여 작가들의 사명과 역할도 평가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문학예술부문앞에는 우리 인민들을 투쟁과 승리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우리 작가들을 명작창작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시였다.

명작은 사람들이 언제나 잊지 못하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들을 숭고한 정신세계에 이끌여간다.

바로 여기에 명작의 가치가 있고 커다란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명작창작을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주시신바와 같이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삶과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의 지나온 년대기들에 명작으로 창작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나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물론 《결전의 길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동지애의 노래》 등 노래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그들을 새로운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고있다. 이런 명곡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혁명을 힘있게 추동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불리워지게 될것이다. 따라서 작가들은 명작창작의 목적과 의의를 잘 알고 분발하여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85(1996)년 4월 26일에 발표하신 이 고전적로작에는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창작의 본질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이 정식화되어있으며 실력과 재능, 창작과 현실체험 등

의 문제가 과학적분석을 통하여 설득력있게 해명되어있다. 그리하여 로작은 선군시대 명작창작의 지도적지침으로, 선군문화예술발전의 찬란한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되고있다.

고전적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지금 작가들은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창작을 위해 것처럼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지난 10년간은 우리 혁명에 있어서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며 강성대국건설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간 격동적인 나날이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명작의 본질과 그를 창작하기 위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신것은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에서 먼저 현 시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 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이라고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고전적로작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하여줌으로써 우리 작가들은 명작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신심을 가지고 명작창작에 탐구와 사색을 기울이게 되었다.

우리 당이 추켜든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되어있으며 일심단결의 신념과 자력갱생,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가 담겨져있다. 그리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생관에는 강성부흥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며 모든 난관을 웃으며 헤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라관주의와 랑만이 흘러넘치고있다.

작가들은 지난 10년간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이 요구하는 명작창작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피끓는 심장으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라관을 안겨주는 작품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처럼 바쁘신 선군혁명명도의 길에서도 우리 작가들이 쓴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고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하기에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에

고무되어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 《삼천리강산》, 《개산》, 《푸른 산악》,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화》, 《총대》, 《라남의 열풍》, 서사시 《세상에 부럼없어라》,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조선로동당 만세!》를 비롯하여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백두산위인들을 형상한 명작들을 수많은 내놓을수 있었다.

작가들은 사회주의조국을 노래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에로 줄달음치도록 고무하는 작품, 군사물주제, 조국통일주제작품 등도 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의 본질을 옳게 구현하여 우수하게 수많은 창작해냄으로써 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데 이바지하였다.

작가들이 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안아오는 과정은 곧 당이 제시한 명작창작의 본질과 의도를 똑바로 알고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는 과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또한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명작을 창작하기 위한 실력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실력전의 본질, 실력전을 벌리기 위한 요구와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실력전은 작가들이 자기의 재능과 정열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추동력이며 재능있는 작가를 키울수 있게 하는 방도로 된다.

실력전은 작가들의 사고방식과 창작기풍을 혁명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당을 받들도록 하기 위한 창작강행군이다.

작가들이 당의 의도와 요구를 얼마나 민감하게 포착하고 작품에 반영하는가 하는데 명작창작의 중요한 비결이 있다.

당의 의도는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이며 지향이다, 작가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하여야 시대와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정하고 가치있는 명작을 창작해낼수 있다. 사실 작가들이 당의 의도를 모르고 작품을 창작한다면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작가들은 당의 의도에 민감하기 위하여 매 시기 제기되는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창작사업에 힘있게 구현하였다. 특히 작가들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로정을 걸음걸음 따르며 자

기들이 창작한 작품들에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결심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최전연초소들과 공장과 농촌, 건설장 그 어디나 할것없이 서슴없이 달려나가 장군님의 의도를 구현한 선군시대 명작창작을 위해 창작적사색을 깊이 하면서 예술적재능을 바치고 또 바치였다,

이 과정에 작가들은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군위병사들》, 시초 《우리는 강계사람이다》, 《강원땅의 새 노래》, 산수련시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 서정시 《아, 우리 수령님》, 《철령》, 가사들인 《2월은 봄입니다》, 《대홍단삼천리》, 《먼저 찾아요》, 《축복받은 나의 삶》, 《강성부흥아리랑》, 《녕변의 비단처녀》, 《통일 6.15》등과 같은 명시, 명가사를 비롯하여 당의 의도에 맞고 문학사에 남을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해낼수 있었다.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을 더 힘있게 다그치도록 고무추동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작가들은 실력전의 요구에 맞게 명작을 많이 창작하기 위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현실체험도 실속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명작들을 창작해낼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현실체험은 창작활동의 필수적요구이다.

작가들은 당정책이 구현된 작품의 종자도 현실속에 있고 소재도 현실속에 있으며 세부도 현실속에 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늘 병사들을 비롯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속에 살면서 그들의

의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여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해냈다. 이것은 로작이 밝혀준 명작창작의 또 하나의 중요방도로서 현실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는 좋은 실례로 된다.

창직지도일군들도 작가들이 실력전을 벌리는데서 작품창작에 대한 지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한편 작가들속에서 혁명적창작기풍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창작조직사업을 짜고들으로써 선군시대 작가들의 명작창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참으로 작가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철저히 관철해온 지난 10년간은 명작창작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문학을 빛내이고 그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끊임없이 높인 보람찬 나날이었을뿐아니라 로작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시위한 과정이었다.

지난 기간 우리 작가들이 것처럼 우수한 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해낼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작가들앞에는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전적로작에 제시된대로 시대의 요구, 군대와 인민이 요구에 맞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언제나 혁명의 붓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과 선군혁명명도업적을 빛내이는 명작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안아옴으로써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가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 가사

### 제대병사 고향역을 지나가네

주명옥

차창가에 비껴드는 정다운 고향아  
총잡고 언제나 그려본 고향아  
두팔로 맞아주실 어머니모습  
울렁이는 가슴에 안기여오네  
아 제대병사 고향역을 지나가네

군복입고 떠날 때 하시던 당부  
지금도 이 가슴 울리어주네  
어머니조국이 부르는 곳으로

그 당부 안고서 또다시 간다네  
아 제대병사 고향역을 지나가네

우리의 장군님 바라시는 곳에  
이 몸은 병사로 한생을 살리라  
아들을 안아주려 벌렸던 그 팔로  
어머니는 손저어 바래주시리  
아 제대병사 고향역을 지나가네

혁명의 수뇌부의 령도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광명한 미래가 달려있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혁명의 수뇌부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 만경대고향집 달밝은 밤에

류춘선

하늘중천 둥근달이

만경봉에 걸린 밤

해방의 기쁨이

마당가득 넘치는

만경대고향집 달밝은 밤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

달빛넘친 프락을 거니시네

그 뉘와 다정히 속삭이는듯

조용히 《사향가》 부르시네

못잊을 항일전의 나날

함께 싸우던 전우들을

이밤 이 프락에 다 불러오시려나

어머님 부르시는 《사향가》 《사향가》

사연도 많아라

어머님 부르시는 《사향가》 노래소리

이밤 저 밝은 달빛에 어려

유정한 만경봉 솔바람에 실려

백두밀림 하늘가 멀리 올라가는가

눈덮인 광야에 두고 온 전우들이

어머님의 《사향가》 따라부르며

한사람 또 한사람

만경대고향집 사립문 열고 들어서는듯

-김일성장군님 모시고

우린 다 같이 만경대에 왔어요

《사향가》의 노래속에

서로 찾고 부르며

백두산 전우들과

어머님 나누시는 다정한 속삭임

아 만경대

바로 여기서

백두의 총대처럼 굳건한

혁명의 피줄기

길이 살아 뿔뿔이

만경대고향집 억세인 기둥으로

부강조국 지붕을 곳곳이 받들고

김일성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조선의 영광 온 세상에 펼쳐갈

어머님의 맹세 세차게 굽이쳐라

사랑으로 믿음으로 뜨거운

백두산녀장군

만경대고향집 달밝은 그밤에

김정숙어머님 부르시던 《사향가》

오늘도 울려오네

선군으로 빛나는

내 나라 강산에

## 영원한 삶을 주는 은혜로운 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믿음은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영생의 빛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온갖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실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결을 떠나간 후에도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한다.

사실 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작가가 창작한 작품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지 않는 작가란 없다. 그러기에 생의 마지막순간에도 작가들은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두고 가는것을 더없이 안타깝고 애석해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이런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고 그들이 남기고 간 유고작품들을 훌륭하게 완성하도록 하시였으며 오래전에 우리결을 떠나간 작가들의 작품들도 다 찾아내어 빛을 보도록 해주시는 한없이 고귀한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신다.

온 나라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40돐을 맞으며 높은 정치적열의로 들끓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결을 떠나간 작가 김사량의 창작활동에 대하여 깊이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가 비록 일제시기에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민족적량심을 지니고 문필활동을 벌린 진보적지식인의 한사람으로서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중군작가로 활동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작품집을 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작가 김사량은 일제시기 국내와 이국땅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망국노의 설움안고 헤매다가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진정한 창작의 자유를 찾고 희곡 《퇴성》, 장편기

행문 《노마만리》를 비롯한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선으로 달려나가 《종군일기-서울서 수원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대전공략전-》, 《지리산을 지나며》, 《남해가 보인다》, 《락동강반 전호속에서》(상, 하) 등 우리 군대와 조국해방전쟁승리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중군기들을 수많은 썼다.

주체 39(1950)년 가을 작가 김사량은 심장병으로 하여 전략적인 일시 후퇴를 하지 못하고 적후에 남게 되었는데 그후 소식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주체 43(1954)년 5월 어느날 작가 김사량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직도 김사량동무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있는가, 그 동무가 마지막으로 당증을 보낸 곳이 남강원도 원주계선이였지라고 하시면서 그는 정의감이 있고 량심적이며 신념이 있는 사람이였다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 뜻을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사량의 최후를 알도록 여러가지로 대책을 취해주시어 드디어 그의 영웅적소행을 알아내시였다.

적후에 남은 작가는 인민유격대를 찾아가 출판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적의 무리가 달려들자 그는 《김일성장군 만세!》를 심장으로 웨치며 가슴에 품은 수류탄안전고리를 뽑아 장렬한 최후를 마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 김사량의 최후가 그리도 장하시어 높이 내세워주시고 그의 작품들을 묶은 《김사량작품집》을 출판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우리 모든 작가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기 작품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있는것이다.

## 세 사진속에… (외 1 편)

리영철

단발머리  
해군병사복 입고  
조국의 푸른 바다에  
갈매기처럼  
복무의 나래를 펼쳤던 처녀-영옥이  
그보다 아름다운  
청춘의 삶은 없었다

×

구호나무숲  
만년재보이고 초소의 자랑인  
그 나무 그 한글자가  
청춘의 삶보다  
더 귀중함을 알았던 여성  
그것으로 남긴 모습 또한 영웅이었다

×

아름다워  
그 녀이 더 귀중해  
장군님 봄빛같이 주신 사랑을  
온몸에 넘치게 안고  
녀성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자랑하는 그 얼굴  
향기를 풍겨도 은정의 향기만을 풍기는  
그처럼 복받은 모습이 있으라

×

한 녀성의 사연많은 세 사진에서  
그대는 무엇을 봤느냐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사는  
내 운명의 모습을 보았다  
결사옹위 한길에 심장을 바칠줄 알 때  
그처럼 누구나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남기리

## 꽃은 태양이 피운다

한번 간 처녀시절  
그 아름다움은  
일생에 다시 찾지 못한다 했더라  
녀성의 아름다움은 더없이 귀중해  
누구나 그것을 소원했지만

가버린 꽃시절  
추억조차 달콤한 명상에 잠기게 하는  
사랑으로 불타던 맑은 눈동자  
희망으로 부풀던 가슴  
싱싱한 향기로 넘치던 그 젊음을  
다시 찾고 누린 이 있던가

자연의 꽃은 계절에 따라  
졌다가 다시 필수 있어도  
인생의 꽃은 한번밖에 필수 없는 법  
그래서 봄도 한철 꽃도 한때라  
눈가에 늘어나는 주름살 보며  
거울앞에 남기는 회억의 말도 있거늘

이 세상 어느 녀인이  
상상이나 해보았으랴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도  
처녀적 모습보다 더 고와질수 있다고  
녀성의 한생이 봄으로 차있고  
그 봄속에 핀 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지 않노라  
현대의 의학과학이  
놀라운 피부이식수술로  
한 녀인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얼굴은 곱게 만들수 있어도  
심장의 젊음이야 줄수 없지 않느냐

모습도 더 아름답게  
향기도 더 순결하게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을 뿌려  
한떨기 아름다운 꽃송이를 피워준  
위대하고 파사로운 그 태양을 위해  
한몸을 열백번 불태울수 있다면…

아, 내 나라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여  
붉고붉은 꽃잎을 활짝 펼치라  
너의 진한 그 향기로  
우리의 이 땅을 더 붉게 하라

자연의 꽃들도  
인생의 꽃들도  
해빛만을 따르는 삶의 철리를  
은 세상이 알게 한 너  
오늘도 래일도 꽃은 영원히  
태양이 태양이 피운다

# 동갑나이

김경준

아들아  
너 군복을 입고 집을 떠난지  
엣그제같은데  
이제는 어느덧 열여덟살!  
  
생각도 깊어지는구나  
교향의 역구내에서  
너 뜨겁게 남긴 그 맹세 사무쳐라  
-아버지, 저도 리수복영웅처럼  
조국에 청춘을 바쳐 싸우겠어요

장하게 울리던 그 목소리  
오늘도 귀전에 쟁쟁하나니  
청춘의 그 나이 세여보며  
하고싶은 당부 또한 많구나

열여덟살,  
그것은 리수복영웅과 동갑나이  
철없는것으로만 생각했던 네가  
오늘은 이렇게 어엿이 자랐구나

눈앞에 어려와라  
어릴적 군사놀이를 해도  
리수복영웅처럼 된다고  
적의 화점을 까부시는 놀음으로  
해지는줄 모르던 그 모습

중학교시절에는

가사

책을 읽어도  
영웅들의 전투기를 먼저 읽으며  
밤 새우던 너  
제일 사랑하며 읊던 시도  
리수복영웅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영웅의 그 위훈을  
참된 삶의 거울로 삼고  
아들아 너는 자라났거니

오늘은 네 나이 열여덟살  
청춘을 바쳐 승리의 진격로를 열은  
그날의 영웅의 나이와 같은 열여덟살  
하지만 잊지 말어라  
아들아, 너 병사의 위훈으로  
어머니조국에 값높은 삶을 바칠 때라야  
리수복영웅과 동갑나이 된다는것을

아 나는 굳이 민노라  
선군시대 병사 너도 청춘시절에  
백두의령장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워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서있는  
리수복영웅과 영원한 동갑나이 되리라는것을

# 어랑메아리

박찬원

동음소리 울린다 어랑천의 발전기  
강성대국봄노래 여기서도 들려오네  
철산봉에 전기흘려 쇠돌풍년 드니  
온 나라에 웃음꽃 활짝 피었소  
얼씨구나 좋구나 어랑메아리

동음소리 울린다 어랑천의 발전기  
강성대국진군가 우렁차게 부른다  
용광로에 붉은 쇠물 한껏 익으니

집집마다 행복의 꽃 만발하였소  
얼씨구나 좋구나 어랑메아리

동음소리 울린다 어랑천의 발전기  
강성대국승전고 여기서도 울려가네  
장군님의 선군덕 길이길이 전하며  
더 좋은 래일을 약속해주네  
얼씨구나 좋구나 어랑메아리

## 그날의 그 수류탄을

곽명철

돌아오면서도  
영생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도  
그날의 그 수류탄만은  
다시 입에 물고 왔구나  
오, 강호영영웅이여!

진정 고향이 못있고  
그 모습 길이 추억하는 전우들  
그리도 하 많아

입대하던 날  
다심한 고향어머니  
군복깃 살뜰히 여머준  
그 모습으로 돌아올수도 있었다

강산이 불타던 싸움의 그날  
따발총 둘러메고

싸움길 앞장서 달려가던  
용맹스런 그 모습으로  
돌아올수도 있었다

허나 영웅은  
침략자무리속에  
수류탄 입에 물고  
장렬하게 뛰어들던  
그날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물어선 무엇하랴  
행복만을 알고 자란 우리 세대를  
수령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을 육탄영웅으로 키울  
전세대의 그 임무가 남아있어  
오, 영웅은 수류탄을 입에 물고  
우리앞에 있어라

련시

## 내 사랑 푸른 숲이여

한기운

### 피로 지킨 이 땅은

내 싸움의 그날  
좋은 땅이라고 피흘려 지키고  
석비레 돌밭땅이라고  
마음밖에 버렸던가

분여지 석자이름 패말을 안고  
꿈만 갈아 울며 웃던  
아버지의 그 눈물에서 받아안은  
목숨같은 이 조국에  
그 값 다르게 정한 땅 있었던가

내 안아 일으킨  
이 한치한치 땅에도

백두산 3대장군의 거룩한 자욱  
소중히 어려있어

저 노루재 석비레땅도  
전우들의 피가 스민 땅  
소중한 조국이 품고있는것이면  
단 한치도 마음밖에 둘것이 없는 이 땅인것을!

아 조국이 품고있는것이면  
석비레땅 모래 한알도  
이름없는 풀 한포기도 소중한 이 땅  
지켜야 할 때는  
목숨보다도 귀중한것을!



## 내가 사는 집

때로 설참  
멀리 숲속에서 바라보면  
жат나무, 밤나무숲기슭에  
나래접은 백학인듯  
내가 사는 하얀 집

아 전승의 그날  
전선에서 돌아와  
나무 한대 없이 불타던  
저 산기슭에  
기둥을 박을 때도  
마음의 뿌리는 내 어디에 박았던가

이제는 푸른 숲에 묻혀  
가을이면 소슬바람 불어도  
지붕우에, 마당가에  
жат송이 기름밤알 굴러내리는 소리  
듣기 좋은 집

이른새벽  
온갖 새소리에 잠깨는 그 맛

함박눈 내린 아침엔  
앞뜨락에서  
닭무리와 섞여 노는 새무리...

하루일 끝난 저녁  
마당가에 들어서면  
손자애의 글 읽는 소리 듣기 좋은 집을  
어디에 세우고 살아온 마음인가

아 설레는 푸른 숲에서  
번영하는 조국- 강성대국의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을 두고 못떠나는 집이라오  
이 집에서  
모란봉 푸른 숲 설레는 소리  
그 소리 들으며 사는 집이라오

아 수도 멀리에 살아도  
언제나 모란봉기슭에 사는 마음  
대를 이어 세월의 먼 끝까지  
그 한마음 안고사는 집이라오

## 산에 사는 기쁨

화창한 봄날의 기쁨은  
가을에 빈 땅에 옮겨심은 어린 나무  
석비레땅에 뿌리박고  
파아란 첫움이 피어날 때

싱그러운 여름날의 환희로움은  
하늘가에 설레는 숲속에  
온갖 새들 날아들어  
할미새, 밀화부리 보금자리에 알 품고  
춤추는 아지골 동실한 등지에  
피쫄새 한가득 알 깎을 때

가을날의 흐뭇한 보람은  
산에 산에  
심어가꾼 잣나무, 호두나무...

온갖 나무들 아지마다 무거이  
첫 열매 드리울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숲에서 사람만 보아도  
뒤돌려 뿔차비하는 노루, 사슴들  
나를 보면  
풀 뜯으며 마주오는 때...

이 남다른 기쁨이라오  
숲에서만 누리는 기쁨이라오  
산에 사는 류다른 행복  
말로 맺은 정보다  
땀으로 맺은 정 뜨거워

## 꽃과 뿌리

숲속에  
온갖 꽃 만발하고  
주렁진 머루, 다래, 잣송이...  
온갖 산열매 향기 풍기는데

점심구렁 들고온 우리 로친  
멍하니 나를 보며  
젊은 날에도 그래못본  
다정한 속삭임

-내 멀리서 바라보니  
령감백발이  
숲속에 뿌리내린 백합갈구려

순간 나도 생각깊어져  
말없이 바라만 보았다고  
한생 이 숲속에 함께 살아온  
로친의 귀밑머리 허연 모습도  
숲속에 핀 백도라지꽃 같아서...

## 숲속을 먼저 걸어보시라

이제는 머리우에  
흰서리 가득 내렸다고  
한생 걸어온 매 숲의 자국자국  
오솔길락엽에 다 묻혔던가

아 나의 삶, 나의 기쁨  
하늘가에 아지편 푸른 숲이  
조국땅 강성부흥의 언덕에  
내 삶의 노래로 설레거니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아

세상향해 말하고싶은  
그 인생철학을  
내게 묻지 말고  
온갖 푸른 잎새들의 속삭임 들으며  
푸른 숲을 먼저 걸어보시라

그러면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높은 뜻 받들어  
한생을 이 푸른 숲과 기꺼이 바꾼  
나의 백발도  
그대들 눈에 푸르게 보이리!

## 한껏 설레이라 내 사랑 푸른 숲이여

이른아침 숲속을 오를 때에도  
늦은 저녁 숲속을 내릴 때에도  
언제나 조용히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못잊을 그날의 뜨거운 추억을 안고  
푸른 숲과 말없이 속삭이는 이 마음

아느냐 내 사랑 푸른 숲이여  
전화의 그날  
최전선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  
불탄 산천을 아프게 바라보실 때  
전호가에 타다남은 애솔나무  
이 가슴에 뿌리내린것을

하늘의 해도  
포연속에 불타던 그날  
조국산천도 원썩들의 소이탄에 상처를 입었고

내 몸에도  
미제원썩들의 총탄이  
상처자리 냈던것을!

아느냐. 푸른 숲이여  
그래서 내 한생  
너를 떠나 못살고  
그래서 이 로병의 눈에는  
조국의 산천이  
살점처럼 보여오는것은

아 어버이장군님 받들어  
산천에 뿌리내린 나의 한생  
푸르청청 무성한 숲으로 설레이  
내 오늘도  
원썩 미제침략자들을 이기고있거니  
그래서 푸른 숲은

나의 어제  
나의 오늘  
나의 미래  
내 삶의 행복!

오, 우리 장군님 선군령도의 손길아래  
내 사랑 푸른 숲이어

푸른 하늘을 팔 벌려안고  
한껏 설레이라  
이 세상 그 어떤 원썬도  
너에게 다시는 불질 못해

(유고작)

## 봄같이하는 들에서

리태식

동녘에 뜨던 해를 그 누가 벌써  
중천에 등실 띄워놓았나  
점심을 안고 들에 나온 어머니앞에  
아들은 프락프락 멈춰세웠네

그러나 한순간  
-어머니, 한배미만 더  
-철이 아비아 오늘두 또 늦을라  
그 목소리 담아실고 다시 울리는 발동소리

그런듯이 어머니는 너른 들에 서계시고  
나는듯이 아들은 먼 들을 갈아가고...  
어이타 말을 하랴  
뜨거운 이 마음들

번쩍이는 보습날에 폭폭 들리는  
저 푸근한 흙은 아니더냐  
간겨울에도 아들의 밥보자기를 들고  
어머니 서계시던 그 땅 그 흙이

먼밭치에 아물아물 피여오르는  
저 봄아지랑이도  
온 하루 일을 해도 성차 안하는  
아들의 젖은 등에 달아오른 열기런듯

어머니와 아들의 뜨거운 정을  
이 땅 이 벌이 다 알아  
정이 철철 흘러넘치는 눈길과  
기세좋은 발동소리를 잘도 어울려주누나

눈내리는 포전길을 걸으신 장군님이야기  
그리도 목메여 외우고 외우더니  
아들은 짝 떨어진 가슴에 온 들을 안고  
어머니는 그 작은 가슴에 장한 아들을 안고

한가정에 오르내리던 혈육의 그 정  
땅에 쏟아 들에 쏟아  
풍요한 가을이 함께 있는 봄들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있는 봄들관 아름다워라

마주선 시간은 비록 짧아도  
정든 집 추녀아래선 다 못나눌 뜨거운 사랑을 안고  
들은 한껏 잠을 털고 부풀어오른다  
종다리 우짖는 하늘가를 향해 가슴을 활 열어젖힌다

어허라 봄같이하는 들  
생각의 이랑에도 파도치는 들이어  
가을을 안고사는 소중한 마음들에  
이 봄날의 하루는 저물지 않으리라

## 경구, 격언

· 서정시는 언어에 의한 정신적체험의 음악적 표현이다  
· 선물은 진정 인류적인 언어이다  
· 속담은 오랜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짧은 글이다  
· 시가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스러운 지혜 있는 사람들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혜로운 업

적이 깃들어있는 기념비이다  
· 신체의 건강에 체조가 필요하듯이 정신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필요하다  
· 생활은 엄하고 예술은 명량하다  
· 세대가 세대를 교체하지만 옛날의 전설만은 빛을 잃지 않는다



김형수

나는 처녀에게 바짝 호기심이 끌렸다.

벌바람에 발가우리해진 얼굴, 못사람들의 가벼운 툇담에조차 수줍음을 머금곤 하는 눈길, 등뒤에서 달짝거리는 외태머리, 오뎅순... 직업은 농장원, 이번 전국문학작품현상응모 1 등당선자가 바로 이 애송이 처녀란 말인가.

나는 서해곡창 어러리벌의 작업반장이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있는 취미랄가, 아니면 거창한 우리의 선군시대로부터 받아안은 충동이랄가, 사업의 여가에 짬짬이 쓴 글이 이번 현상응모에 당선되어 시상식차로 평양에 올라온터였다.

나는 언젠가 지상에 발표된 그 처녀의 시를 보고 너무 감동되어 실참의 논머리에서 농장원들에게 읊어주기까지 했다. 그러며 작품속에서 필자의 얼굴을 내 나름으로 그려보았었다.

자식을 품안은 한창나이의 인정미 넘치는 녀인, 땅냄새가 몸에 푹 스며인 실농군형의 녀성...

상상은 뒤집혔다. 그날 저녁 나는 리관방에서 처녀와 마주앉았다.

《정말 훌륭한 시를 썼더구만. 언제부터 문학공부를 했소?》

《언제부터라기보다... 사실 제가 썼다고 말하기에는...》

처녀는 귀밑을 살짝 붉혔다.

《?!》

의아해하는 나의 기색을 눈치챈듯 처녀는 슬쩍 화제를 바꾸었다.

《반장아저씨 ××군에 와본적이 있어요? 우리 마을은 우암이라고 부르는데 참 류별난 고장이예요.》

처녀는 이야기를 탄뎅으로 몰아갈 심산이었다.

그 심정에 심분 리해가 갔다.

《내가 일하는 농장은 아찔하게 솟은 우암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막힌 곳에 자리잡고있어요.

우암이란 이름엔 재미난 유래가 있대요. 옛날에 우리 고장에 큰 지주가 하나 살고있었는데 어느날 점쟁이를 찾아가 좋은 날을 골라서 아들놈의 잔치날을 잡았대나요. 하늘이 창창한 맑은 날 아침 호화행색을 갖춘 요란한 가마바리에 실려 길을 떠났는데 별안간 산마루에 걸려있던 흰구름이 검은 그늘을 드리우더니 채찍질하듯 소낙비를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물참봉이 된 물골로 색시집엘 갔답니다. 그후로 얼마 지나서 머슴군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지주놈이 강제로 <날>을 정해주더라고요. 남쪽하늘에서 먹장구름이 뭉게뭉게 밀려오던무렵에 말이예요. 아닐세라 시집가기 전날 온밤 비가 쏟아져내렸대요. 네년도 한번 물참봉이 돼봐라 하고 지주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그런데 새날이 밝자 주위가 고요해지면서 하늘이 말짱 개이더니 신부집뜨락과 이웃마을 신랑집쳐마사이에 칠색의 고운 무지개가 다리를 놓더라고요. 이때 심술이 팔죽 끓듯 하는 지주놈이 하늘에 무지개를 지워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자 산중턱에 있는 큰 바위가 드르릉- 울리면서 지주놈에게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고장엔 우암이란 이름이 생겨났대요. 반장아저씨, 이건 옛날이야기인데 지금도 구름은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가 하면 산너머컨엔 소낙비가 쏟아질 때 우리 마을엔 하늘이 활짝 트이기두 하구 기후변동이 심해요. 높은 산이 가로막힌 까닭인것 같애요.》

《음... 묘한 고장이구만. 농사짓기가 꽤나 불편하겠는데.》

《반장아저씨네 고장엔 이런 일이 없지요? 난 금년봄에 농사일에서도 문학공부에서도 겨우 <모살이>를 했어요.》

귀밑에 숨털이 뽀얀, 아직은 애터를 벗지 못한

처녀는 제 고장의 기후변동처럼 얼굴표정이며 억양까지도 조화롭게 해가며 이야기를 번졌다. 우리 둘사이엔 《문학담》이 아니라 《모살이》라는 농촌특유의 말마디로부터 시작되는 농사일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지고있는 셈이었다. 나도 그가 알고 싶어하는것을 말해주었다. 마치 내가 자기의 작업반장이기라도 한듯 처녀는 차츰 《사실 제가 썼다고 하기는…》하고 끝맺지 못한 말의 사연을 들려주는것이였다.

...

경쾌한 음악속에 쌀로써 당을 받드는 선군시대의 농민영웅이 되자는 방송원의 힘찬 목소리에 이어 파릇파릇 자라온 뿔상모들을 그림처럼 펼쳐놓는 텔레비전화면은 저녁상을 물리는 봄순이네 집식구들의 눈길을 류달리도 끌었다.

네귀가 반듯하게 바람막이바자를 둘러친 모판안에서 연분홍빛머리수건들을 차분히 둘러쓴 녀인들이 분주히 오가며 비닐박막들을 살짝살짝 젖혀놓는다. 뒤이어 온도계의 눈금을 살피던 처녀 하나가 상긋한 웃음을 담으며 기자가 내미는 마이크앞에 나선다. 로암협동농장의 모기르기현장에서 금년농사의 첫 소식을 전하는 현지보도였다.

《봄순아, 저 처녀 신통히도 네 또래쯤 되겠구나. 너의 분조 모들도 아마 저기에 찍지진 않을거야.》

봄순이쪽을 슬며시 결눈질하며 묻는 영순의 목소리에는 모판관리공일을 하는 동생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그 수고를 헤아리는 언니의 따뜻한 정이 풍겼다.

그러나 봄순은 엷은 입술만 감쌀며 말이 없었다. 여느때같으면 동실한 두눈을 사물거리며 볼우물까지 오목히 패여가지고 모기르며 있는 하루일을 신이 나서 퍼놓았을 그였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심드렁해서 앉아있는 동생의 기색을 눈더듬한 영순은 더러 근심이 앞섰다.

《아니.》

봄순은 가볍게 도리머리를 저으며 호- 한숨을 내불었다.

《왜, 모가 잘못되기라도 했니?》

영순의 새초롬해진 눈길에 봄순에게 못박혔다.

《언니넌 왜 우리 분조 모판쪽에서 민들레랑, 토끼풀이랑 다 뜯어왔어?》

모에 대한 걱정으로 은근히 마음을 조이던 영순은 그만에야 동문서답격으로 날아드는 봄순의 질문에 안도의 숨을 내그었다.

《왜, 그 토끼풀이 어쨌다는거야?》

《...》

《어서 말하렴. 도대체 무슨 영문이야?》

봄순은 자못 원망어린 눈길로 언니를 치며보았다.

《난 오늘 쌍둥이 엄마(모판관리책임자)한테서 욕을 먹었어. 창고로 비료를 받으러 간 사이에 젖먹이러 나왔던 언니네가 그 풀들을 다 뜯어가 고맙았으니... 원래 날보구 모판관리구간을 맡겨 줄 때 그 풀들도 함께 관리하라구 했었어. 그런데...》

《뭐, 풀관리까지?! 그래 넌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 있었니?》

봄순의 말허리를 끊어버리며 영순이가 새초롬해서 나무람했다.

《나한테 언제부터 말해주고싶은것을 참고있었대. 기분이 봉- 떠서 돌아가는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나. 그러면서 시작부터 일을 똑바로 배우라고 절고드는데 언니같으면 뭐라구 대꾸하겠어? 모판관리두 처음 하는 내가...》

《알만 해.》

영순은 실눈을 지으며 자기 생각에 잠겼다.

며칠전 탁아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를 찾으러 왔던 애숙(쌍둥이엄마)이 일광욕장채양이며 애들을 잠재우는 방들을 별로 새삼스럽게 살펴보는것이였다. 그러더니 영순이네를 향해 입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일광욕장이 봄이나 여름이나 해비침시간이 같게 만들어놓았다느니, 젖먹이반, 높은반 가림없이 낮잠시간을 고정시켰다느니... 하면서 보육원 자격들이 없다는 말을 탕하니 내뱉고 돌아섰다.

애숙의 말은 영순의 가슴노리에 웅이처럼 맺혔다. 몇해째 계속 그렇게 해오면서도 아무 시비없던 일광욕장이였다. 그리고 요즘 며칠간 아이들의 낮잠시간이 좀 길어진것도 사실이다. 얼마전 경심(보육원)이가 휴가를 받은 속에서도 봄철위생월간을 맞으며 탁아소를 꾸리느라고 분망했던 보육원들이였다.

이러는 보육원들의 모습을 보며 애기어머니들마다 아침저녁으로 수고한다고 하던 인사말이 얼마나 살뜰했던가.

그런데 유독 애숙이만은...

며칠 출근하지 못한 경심이에 대한 시비인가. 그가 이 말을 들었다면... 애숙이가 류다른 사랑일화를 만들어 동네가 수군수군 끓던 때가 언제인데 이젠 그만한 리해력도 없어졌는가?...

영순은 치밀어오르는 분기를 누르며 입술을 욱물고말았다. 책임보육원이라는 아량으로 다음날에야 섭섭한 감정을 표현했었다...

《봄순아, 모판관리공이 토끼풀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말은 듣다 처음이구나. 그래 들판의 풀두임자가 따로 있다던?》

해말쑥한 영순의 얼굴에 파릿한 빛이 내비졌

다.

《그 입심앞에서 마음착한 네가 어디... 자라는 모를 보며 시를 짓기는커녕 주눅이나 들겠어.》

《애숙이가 처녀뎐 앞전하고 샅샅했는데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시어미가 되게구나.》

어머니도 동정어린 시선으로 봄순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봄순은 자정이 넘도록 잠자리속에서 뒤척거렸다. 모판관리를 시작하면서 책임자의 눈총을 받던 일들을 꼼꼼히 더듬어보았다.

...모판에 첫 잎이 돋던 날이었다. 하루밤새가 다르게 자라오르는 새싹들이 신기해서 박막깃을 들쳐보고 또 보았다. 머리속에 시가 막 떠올랐다. 봄순은 생각을 농칠세라 모판관리일지 뒤면을 펼쳐들었다. 애기모와의 속삭임을 자꾸만 써나갔다. 그런데 저물녘에 애숙이 그 일지를 들고 봄순이 앞에 나타났다.

《이 책은 글쓰기런습장처럼 보이구 저 모판귀통이에 바람이 새드는건 안보이니? 모가 뭐 아-오 하며 시짓는 소릴 들으며 큰다던?...》

그날 봄순은 저녁늦게까지 사이바자치기를 재작업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언제인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봄순이 모판의 물을 낮추려고 논두렁을 자르고있던 때였다. (모판에 해빛조임을 하자고 보니 여느때보다 물이 많아보였던것이다.) 물목이 터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맞은켄 논쪽에 앉아 좁전에 보육원이 엮어다주고 간 애들에게 젖을 먹이고있던 애숙이가 품에서 쌍둥이들을 떼어놓으며 다급히 달려왔다.

《봄순아, 이렇게 하면 저 개구리알들이 떠내려가지 않겠니? 새끼개구리들 번식시키는것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애숙은 끊어놓은 논두렁을 제손으로 다시 막으며 모판아래쪽을 가리켰다. 그물을 가져다대고 개구리알들을 건져서 거기에 옮겨넣으라는것이였다. 어미개구리들이 알쫄이를 하고 까나는 새끼울챙이들이 자랄수 있게 물옥잠이며 질소풀같은 떠살이식물들을 물면이 덮이게 뿌려놓은 서식장이였다. 애숙이가 이른봄부터 우정 만들어놓은 장소였다.

이때 으앙- 으앙- 울음소리가 야무지게 울렸다. 엄마쪽을 향해 제 모양대로 무릎걸음을 하던 쌍둥이들이 논두렁에 넘적 엎드려 덩굴며 손을 내흔들고있는것이였다. 애들에게로 달려간 애숙은 흙투성이가 된 애들을 불안고 한동안 달래었다

이러는양을 보며 봄순은 몸둘바를 몰랐었다...

(농사를 처음 해보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야 얼마든지 리해해줄수 있지 않는가.)

그래도 지금까지 그가 시키는대로 열성껏 모든

일을 하느라 애썼고 현실적으로 지금 분조의 모상태가 다른 분조에 비하여 잘된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모판과는 하등 인연도 없는 토끼풀을 보호하지 못한것이 마음이 둥 뗏다는 루명을 써야 하는 조건으로, 무책임한 표현으로 된단말인가...

모판쪽이 뭐 제 터밭이라구 거기서 토끼풀까지 자래울 욕심인가. 갖가지 짐승을 다 기르다 못해 이제는 트랙에 벌통이 놓이고 강남에서 물고을 박씨를 기다리는양 처마밑에 제비둥지까지 주련이 만들어놓아 사람들로부터 다람쥐네 고간같은 집이라고 하는 소리가 제판엔 칭찬처럼만 들리는게지. 가정을 꾸리자부터 제살림에 착실해진 이 악쟁이, 분조에선 드살군...

봄순은 언니의 말까지 듣고보니 무심히 지나쳤던 그 모든 나무람들이 새삼스러워지면서 애숙에 대한 고까움이 새록새록 치밀어올랐다. 그의 손탁에 들어 일하기가 서슴어졌다.

분조원들과 함께 있을 땐 부지런한 막내라고 늘 칭찬속에 살았었다. 드디어 봄순은 모판관리공일을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어제일을 다 잊은듯 애숙의 표정은 레사로왔다. 주근깨가 다문다문 박힌 가름한 얼굴에 가벼운 웃음을 띄우고서 손세까지 써가며 하루작업지시를 주었다.

자기 생각에 잠겨 애숙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보낸 봄순은 주저주저 마음을 바재이다가 입을 열었다.

《쌍둥이엄마, 난 모판관리공일을 못할것 같애요. 분조장에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왜?》

봄순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빨간 장화앞코승이로 발밑의 애꽃은 흙덩이만 굴리였다.

한동안 침묵이 오갔다.

《내 잔소리가 싫어서? 그런젠 안돼. 제가 키우던 자식을 남에게 맡기는 엄마를 봤니?》

애숙은 자못 심중한 어조로 마디마디 그루를 박듯 봄순의 말을 밀박아버렸다. 그러더니 잠시 후 낮색을 달리하며 《봄순인 지금 모살이를 하는중이야. 이제 뿌리붙임이 되면 일없어. 내가 그동안 너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하는것이였다. 봄순은 자기대신 다른 사람을 받으면 (분조엔 적임자가 아주머니들밖에 없었다.) 그 잔소리에 코코히 맞서겠으니 고분고분한 자기를 놓아주고싶지 않아서일것이라고 애숙의 속생각을 넘겨짚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불쑥 반발심이 솟구쳤다.

(내가 왜 나약하게 그만둘 생각을 해?)

봄순의 여린 마음속에서 자존심이 봄싹처럼 움터올랐다.

봄순은 활창식모판에 바람쏘이기구멍들을 열어

나갔다. 그때마다 따스한 기운이 입김처럼 서려 나오며 손등을 포근히 감싼다. 박막안에선 구슬 같은 물방울들을 잎새우에 얹은 파아란 모들이 사랑겨린다. 왜 그런지 종전엔 느낄수 없었던 새로운 감촉이 와닿는것이 이상하다.

모들이 어제 밤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묻는것만 같았다.

(자기 자식을 남에게 맡기려는 엄마?)

까닭모를 이상야릇한 감정이 가슴속으로 밀려들었다.

《봄순아, 이젠 좀 쉬어서 하자. 난 모판관리협회의회엘 좀 갔다와야겠어.》

애숙은 물젖은 손을 털며 급히 모판을 나갔다.

봄순이도 이마에 흥건히 내뿜은 땀을 훔치며 허리를 폈다.

어느덧 중천에 솟아오른 해가 따스한 별을 뿌리기 시작했다. 싱그러운 바람이 건뚫건뚫 불어와 옷자락을 흔들었다.

지중지중 뻗중뻗중...

종달새 한쌍이 모판에 날아들었다. 청아한 목소리로 우짖으며 봄순의 머리우를 빙 감돌더니 방풍바자가로 날아가 앉아 꼬리를 달싹이며 노래 같은 울음으로 지저귀었다. 그밑에서는 가물거리는 아지랑이속에

꽃나비들이 나풀나풀 휘감기며 노닐고있었다.

봄이 오는 뽕상모판... 봄순이와 마음도 함께 뛰놀기 시작했다. 불현듯 머리속에는 중학시절에 지었던 《고향자랑》이라는 서정시의 한 대목에 떠올랐다.

앞내벌에 파릇파릇 애기뽕상모  
노래속에 웃음속에 키워가며  
온 나라에 풍년꿈 안겨주는  
우리의 언니들 뽕상모판언니들  
내 고향의 봄종다리같애요 꽃나비들같애요  
...

봄순은 그때 그 시를 창작하면서 나도야 어서 커서 《뽕상모판언니》가 되고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한동안이 지나 생각에서 깨어난 봄순의 귀전에 그때의 시구절이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휴게실로 들어서던 그는 펼쳐진채로 놓여있는 모판관리일지에 은연중 눈길이 갔다. 모판관리강습에서 받았던 양식과는 어딘가 다르게 정리되어있었다.

그날의 날씨, 온도측정, 모자란 상태, 작업내용...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날의 날씨예보칸이 또 있다. 그리고 우리 도와 린접도의 두개 지방 날씨

가 적혀있다. 더우기 의문스러운것은 냉이. 젖풀, 민들레... 넓은잎정향나무... 이런 글이 칸을 잡고 썩여져있는것이였다.

혹시나 하여 다음장을 번졌으나 여전했다.

그런데 토끼풀사건이 있는 다음부터는 《냉이, 젖풀, 민들레》는 없어진것이다. 《넓은잎정향나무》만이 드문히 X표식과 함께 계속되어있었다.

봄순이 의아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타박타박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왔다. 애숙이였다.

그는 이마에 손채양을 얹으며 매지구름이 떠도는 남향하늘을 야속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어 오늘 첫 바람쏘이기를 한 모판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한동안 머리를 기웃거리며 생각에 골몰하는 그의 얼굴엔 그늘이 덮이고있었다.

《뽕상모 젖떼주기가 우리 쌍둥이 젖떼기보다 더 힘들것 같구나. 금년날씬 왜 이렇게 번덕스럽니...》

애숙의 입에서 가는 한숨이 흘러나왔다. 며칠 동안 저기압이면서 때때로 비가 내릴것이 예견된다는 통보, 그에 맞게 모판리를 할데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애숙은 말하였다.

(뽕상모두 젖을 떼나?)

이제 사후후이면 쌍둥이 첫돌이 된다. 애숙은 지금 돌전에 아이들의 젖을 떼느라 가정에서도 분주한데 모판에서까지 일감이 많아지는것을 걱정한다고 봄순은 그 심정에 자못 리해가 갔다.

집으로 돌아온 봄순은 모기르기참고도서를 열심히 번졌다. 모가 자라는 시기를 싹트는 시기, 어린모시기, 큰모시기로 구분하고 두잎되는 때를 젖떨어지는 시기라고 밝혀져있었다. 관리방법도 이매가 제일 복잡했다.

(음, 그랬었구나.)

그러나 넓은잎정향나무와 토끼풀이 모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언니야, 난 오늘 우리 분조 모판관리일지에서 이상한것을 보았어.》

《뭔데?》

《매 폐지마다에 <냉이, 젖풀, 민들레> 그리구 <넓은잎정향나무>란 글이 써있어, 언니네가 토끼풀을 뜯어간 다음부터 넓은잎정향나무만 남았어.》

《그래?》

잠시 생각을 굴리던 영순의 눈가에 야릇한 웃음이 떠돌았다.

《모판관리책에두 <추억의 나무>가 심어진다. 호호... 대단히 감상적인데...》

《추억의 나무?》

봄순은 눈이 동실해서 영순을 마주보았다.

《그 비밀을 대줄가? 쌍둥이엄마 처녀적별명이(정향꽃바람)이었어.》

《어마나, 그건 무슨 의미인데?》

《응, 그때도 애숙이가 모판관리공이었는데 하루가 멀다하게 넓은잎정향나무주위를 감돌곤 했지.》

영순은 도간도간 웃음을 섞어가며 재미나는 일화를 말해주었다.

…그날은 성도(애숙의 남편)와 애숙이 넓은잎정향나무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저물녘에 무릎을 나란히 한 둘사이엔 정겨운 말들이 소곤소곤 오가며 래일의 자기들의 세계가 속삭여지고있었다. 이때 어디선가 벌들이 뱅뱅거리며 나무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러자 애숙이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도동무, 모판엘 좀 갔다와야겠어요.》 하며 일어서는 것이었다.

《갑자기 왜 그래?》

성도는 애숙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한창 달콤히 무르녹는 환희로운 순간을 동강내고싶지 않았다.

애숙이가 성도에게 량해를 구하며 그의 손에서 벗어나자고 애쓰는찰나였다.

왕벌 한마리가 웬- 날아들더니 성도의 귀바퀴에 따끔하게 침을 놓았다.

《아파...》

성도는 자기의 뺨을 때리느라고 그만 애숙의 손목을 놓쳐버렸다.

《성도동무, 래일 이맘때 여기서 다시 만나요.》

성도는 정향꽃주위에 맴도는 벌떼를 야속한 눈길로 흘겨보았다.

《벌침이나 또 맞게 하자구 그래?》

애숙은 벌짓해진 성도의 볼에 손을 대며 《난 정향꽃향기와 떨어져선 못살아요.》 하고는 모판쪽으로 종종걸음을 놓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성도가 자기의 막역친구와 기분이 들뜬 자리에서 《난 요즘 정향꽃바람에 취한것 같네.》 라고 한 말이 하나둘 입을 건너 동네에 퍼졌던것이다...

호호호...

《그럼 냉이, 젖풀, 민들레두 그런 추억의 풀?...》

《봄순아, 이젠 다 룡담의 소리구 제판에 어떤 사연이 있겠지 뭐. 남편도 농장시험원이니까 무슨 식물자료같은걸 관찰해준다든지. 어쨌든 우리 신정슬 일이 아니니 어서 네 할일이나 착실히 해.》

봄순은 일욕심이 큰 애숙에게도 그런 다감한련애사연이 있었는가 하고 제판에 머리를 기웃거렸다.

다음날이었다.

오전 설참녘이 되자 분조의 아주머니들과 총각 하나가 모판으로 들어섰다. 1 계단의 박막을 벗겨 다음 모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맞잡아하라고 분조장이 보낸 것이었다. 그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

려던 애숙은 느닷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겨 모판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오늘은 안되겠어요. 밤에라도 당장 비가 올것 같아요.》

《아따 이렇게 청청하늘인데 비는 무슨 비... 오늘 못옮기면 래일은 봄순이와 둘이서 해야 해요.》

총각은 머리우에 낮추 감도는 노란 잠자리떼너머로 시끄러운 눈길을 보내더니 봄순이쪽에 대고 싱긋거렸다.

《래일은 회관에서 평양예술단의 축하공연이 있대.》

《네가 또 봄순이와 함께 가고싶은 모양이구나, 모판일은 다른 일과 달라서 관리공들이 하자는대로 해야 해.》

한 아주머니가 총각에게 시가슬렀다.

이때 아기들을 업은 보육원들이 나타났다.

《이왕 온김에 쌍둥이들이나 안아보고 갈가.》

그 아주머니는 영순의 등에서 녀자애를 안아내려 쪽소리가 나게 입을 맞춰주었다.

젖살이 보들보들한 아기가 엄마를 찾는양 별같은 눈을 또렷또렷 돌렸다.

《야, 쌍둥이웃이 참 끝기도 하네.》

봄순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리고는 폭신한 방울모자에 무지개빛같이 조화되어 아롱거리는 달린옷을 신비스러운듯 쓰다듬었다.

《봄순이가 벌써 애기옷에 시샘인가. 쌍둥이엄마 따라다니느라면 인차 그런 옷 생긴단다...》

함복도집머느리가 눈을 찔 흘렸다.

《어마나.》

봄순은 애기에게서 얼른 손을 떼고 두손으로 얼굴을 살짝 감쌌다.

《하하...》

《호호...》

오전일을 마치고 마을길에 들어서던 봄순은 넓은잎정향나무에 이르러 걸음을 멈칫거렸다. 살랑거리는 바람결을 타고 류별나게도 짙은 향기가 풍겨왔다. 그러자 까닭모를 부끄러움에 얼굴이 핫 달아올랐다.

(쌍둥이엄마를 따라다니느라면 인차... 아이참, 내가 무슨 쓸데없는 생각이람...)

봄순은 공연히 떠오른 생각을 애써 털어버리며 나무앞을 지났다.

그날 밤 곤한 잠에 들었던 봄순은 창을 두드리는 바람소리에 눈을 떴다. 앞뜰의 수양버들이 휘휘 아지를 짓는 소리가 어둠속에서 들려왔다. 시계바늘은 자정을 넘어서고있었다.

그는 손전지를 찾아들고 문을 나섰다. 모가 격정되었다.

방풍바자를 물어뜯을듯 기승을 부리는 바람질소리, 사방에서 비닐박막들이 펄럭이는 소리, 모판은 삼시에 소란해졌다.

벗겨져나가는 박막의 한귀를 부여잡던 봄순은 휘익- 덮쳐드는 박막의 회오리에 싸이며 몸을 휘



청거렸다.

전선줄이 웁-웁- 소리를 내며 울었다.

봄순은 이마에 진땀이 바질바질 내뿜었다.

차츰 구름장들사이로 헤엄치며 푸릿한 빛을 뿌리던 달도 가리워지고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져내릴듯 밤하늘은 시커먼 구름으로 덮여져버렸다.

봄순은 안타까웠다. 어둠속에서 몸을 웅송그리며 바르르 떨고있는 애기모들이 눈앞에 안겨들었다.

(쌍둥이엄만 이런것두 모르구.)

봄순은 제 혼자 어찌할 방도가 없음을 깨닫자 애숙의 집으로 달음박질쳤다. 대문가에 다가서기 바쁘게 가쁜숨을 내뿜며 애숙을 찾았다.

잠시후에 남편의 잠내쉬인 음성이 들려왔다.

《좁전에 양수장집소릴 하며 나갔는데...》

(이 밤중에 양수장집은 왜?...)

야속한 생각에 잠겨 한숨을 풀풀 내부는 봄순의 귀전에 잠깐 아기들을 달래는 쌍둥יא바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조장을 깨울가.)

한동안 망연히 서서 모판쪽을 응시하던 봄순은 물길쪽에서 오라가락하는 한점의 불빛에 눈길을 모았다.

사람의 움직임이 분명했다. 불빛은 모판쪽으로 가까와지고있었다

봄순은 혹시나 하는 생각을 쫓으며 걸음을 재우쳐 불빛앞에 이르렀다. 애숙이었다.

목에 건 손전지, 삽질을 할 때마다 흔들거리는 불빛에 흙물참봉이 된 바지자락이 얼른거렸다. 그앞으로 수로를 채우며 물이 쏜살같이 모판쪽으로 흘러가고있었다.

《쌍둥이엄마!》

《봄순이구나!》

《여기 있는걸 난...》

봄순은 숨이 턱에 닿아 말끝을 맺지 못했다. 이때였다.

《봄순아, 여길 좀 비쳐줘.》

애숙이 다급히 소리치더니 물길에 풍덩 뛰어들었다. 그는 가슴노리가 젖도록 허리를 굽히고 꿈꾸 잡았다.

수문부위에 평하니 뚫린 구멍으로 물이 팔팔 새어나가고있었던것이다. 이런 상태로 좀더 시간을 넘기면 뚝을 터뜨릴수 있었다. 애숙은 삽질로는 성차지 않은듯 몸에서 비웃을 흘쩍 벗겨들더니 흙덩이를 담아서 짹짹 물속에 처넣는것이였다.

새던 물이 푹 멎었다. 박막들의 펄럭임소리를 누르며 모판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젖혀진 박막들을 사이팔에 꼭꼭 밀어넣었다.

바람에 끄떡없었다. 이따금씩 굵은 비방울이 후두둑거리던 하늘에서 삽시에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쏟아졌다

《쌍둥이엄마, 이걸...》

봄순은 애숙에게 자기의 비웃을 내밀었다.

《난 일없어.》

《어서요.》

한동안 서로 위하는 마음들이 어둠속에서 오갔다.

《봄순아, 이제 몸이 막 후끈후끈해지누나.》

온몸을 채찍질하듯 두들겨대는 비발속에서 모판귀통이들을 찬찬히 여머가는 애숙의 손터듬질소리가 잘바닥잘바닥 울렸다.

봄순의 가슴에 뜨거운것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이때 어둠속에서 영순이가 불쑥 나타났다. 밤새 들어오지 않는 동생을 찾아나온 길이었다.

눈앞의 정황을 의식한 그는 급기야 일손을 맞잡았다.

얼마후에 언제인가싶게 소낙비가 푹 멎어버렸다. 그리고는 잠풍해졌다.

어느덧 동녘하늘이 희붉히 트이기 시작했다. 구름들이 몽게몽게 휘말리며 서편하늘로 밀려갔다. 고요한 어둠을 타고왔던 비구름이 새날에 쫓기고있었다.

《쌍둥이엄마, 이제 들어가세요. 내가 언니와 마저 할테니... 밤에도 애기들이 막 보겠어요.》

《일없어. 애아버지가 곧잘 달랜단다.》

《아이참, 그래두...》

그들은 애숙의 등을 떠밀었다.

《봄순아, 아까 쌍둥이웃 곱다고 했다가 혼났지.》

애숙은 슬쩍 말머리를 돌리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다리쉽이나 좀 하면서 그 옷이야기나 해줄가.》

애숙은 눈웃음을 지었다.

《처녀적의 일이야. 그리구 지금 꼭 이맘때였어.》

봄순과 영순은 얼굴에 멧혀있던 비물을 연방 손등으로 찍어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강구었다.

...어느날 관리위원회에서 조직한 모판관리중간총화가 있었다.

시상이 진행되였다.

이름을 부르는 차례로 주석단으로 나갔다. 농장안의 거의 모든 시상자들이 한창나이의 아주머니들이였다.

애숙이가 상품을 받아드는 순간이였다.

《이 동문 처녀같은데...》

관리위원장이 일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선 기사장을 바라보았다. 느슨한 웃음들이 비끼는 돌사이엔 무엇인가 의미있는 시선이 오갔다.

모임을 끝내고 나와 마을길에 이르자 분조원들이 애숙을 에워싸고 상품구경을 했다. 하얀 종으로 정히 싼 상품은 뜻밖에도 애기옷이였다. 문양고운 천으로 모양도 새롭게 만든 달린옷은 애기 어머니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애숙인 벌써 첫 애기옷까지 장만했으니 이제 때가 됐구나.》

익살속에 부러움을 섞어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분조원들...

애숙은 그만에야 분조장아바이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귀밀이 달아올랐다.

그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 애숙은 모판 한가운데서 굳어지고말았다. 햇빛이 짹짹 내리비치자 파상의 군데군데에서 모잎들이 가드라들고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모마름현상이 일어나고있는것이였다.

자양분을 다 빨리우고 뿌리속에 싸여 빈껍데기로 붙어있는 벼알들을 만지작거리는 애숙의 속은 까맣게 타들었다. 영양이 딸리기 시작한 모들은 하루가 다르게 푸른빛을 잃으며 누런색으로 변해갔다. 이런 뎨 비료도 줄수 없었다. 젖떨어지는 시기에 비바람피해를 입은 후과였다. 달리 대책을 취할 방도도 잘 생각나지 않았다. 생각던 끝에 애숙은 숙식을 아예 모판으로 옮기고 며칠밤을 새워가며 온갖 지성을 다 기울여 끝내 모를 되살려내고야말았다. 가드라들었던 모잎들이 점차 퍼지고 푸른빛을 띠기 시작한 그날 저녁 며칠만에 집으로 들어온 애숙은 장농밑에 깊숙이 간수했던 애기옷을 꺼내들고 눈물을 흘렸었다.

그 애기옷상품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어제두 우리 애기들에게 그 옷을 입힐 때...》  
애숙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래서 난 요즘 날씨가 변덕을 부릴 때마다 그때처럼 모가 잘못될까봐 걱정이야. 우린 한해농사의 운명을 맡고있어. 모판리는 갓난아이의 숨결을 지키듯 하지 않고선...》

애숙은 자리를 일면서 다시금 모판으로 다가가 모판거둠을 마저 하기 시작했다. 봄순이도 그의 뒤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일손을 잡았다.

잠시후에 모판거둠을 말끔히 끝낸 두 녀인은 허리를 펴고 일어나 이윽도록 모판을 둘러보았다.

간밤에 아무일 없었는듯 푸른 잎들을 흔드는 모판을 이윽히 둘러보는 봄순의 눈가엔 생글생글 기쁨이 감돌았다. 자기보고도 엄마엄마하며 손짓고있는것만 같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마을길에 접어들던 그들은 애숙이가 넓은잎정향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바람에 함께 멎어섰다.

한창 꽃이 만발해진 나무에서 향기가 풍겼다.

그 향기에 취한듯 애숙은 나무주위를 서성거리더니 《향기가 꽤나 질구나. 인차 또 비가 내릴것 같은데...》 하는것이였다.

봄순은 영순과 의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비라니요? 꽃향기하구 비가...》

봄순은 눈이 동시래서 애숙을 마주보았다.

《응, 이 나무는 비가 올것 같으면 꽃향기를 어느때보다 더 세게 풍긴단다. 내가 봄순이에게 언제부터 한번 말해준다는게...》

봄순은 그제서야 모판관리일지속의 《넓은잎정향나무》 사연을 알수 있었다. 스스로 얼굴이 붉어짐을 느끼며 봄순은 감동어린 눈길로 애숙을 바

라보았다,

(그럼 토끼풀이랑 민들레랑도?...)

애숙은 계속하여 자기가 다년간 모판관리공일을 하면서 터득한 다음과 같은 경험담들을 들려주었다.

...우암산줄기를 경계로 다른 도와 린접하고있는 이곳 날씨는 예보하는대로 가늠하기가 힘들다는것, 모판관리에서 날씨를 정확히 예견하고 정황처리를 잘 하는것은 모판관리에서 나서는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라는것, 그래서 동식물들의 특성에 대한 참고도서를 보면서 날씨가 나빠질 징조를 알리는 동식물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이였다.

즉 냉이와 젖풀은 비가 오기 전날에는 습기를 머금고싶어 꽃잎을 늘어뜨리며 민들레는 습기를 싫어하기때문에 꽃잎을 오무라뜨린다.

넓은잎정향나무는 비가 오기 전날에는 이전과 다르게 짙은 향기를 내뿜는다.

저기압이 올 때는 제비도 낮추 난다...

봄순은 진록색을 띤 심장모양의 잎새들에 받들어워 연분홍빛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넓은잎정향나무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추억의 나무》에서 불어오는 그윽한 《정향꽃바람》이 봄순이며 영순의 가슴에 애뜻한 향기를 실고 흘러들었다.

《봄순아, 저기 새벽노을을 좀 봐.》

넓은잎정향나무에서 눈길을 땀 애숙은 려명이 비껴오는 동녘하늘가에 시선을 주었다.

주근깨가 파랗이 살아난 그의 얼굴에 진분홍노을이 물들었다. 이어 새날의 노을은 푸른빛이 어우러진 모판에 어리더니 차츰 앞내벌의 드넓은 대지를 물들여갔다.

애숙의 눈빛은 허연 땅김이 문문 서려오르는 들판과 모판쪽을 번갈아 더듬고있었다.

환희에 젖어 파스한 빛이 흘러나오는 눈동자, 비물에 흠뻑 젖은 몸에서 들먹들먹 오르내리는 앞가슴...

봄순과 영순은 애숙의 모습에 눈길을 주었다. 폭풍우속에서 아기의 요람가를 지켜낸 어머니의 기쁨이 력력한 그의 모습에서 그들은 가슴이 후더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봄들판의 파아란 새싹에 젖을 물리우고 이삭이 물결치는 가을을 자래우려고 뜨거운 애정에 한껏 부풀어 고동치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지닌 푸른들의 어머니가 자기곁에 서있었다. 이런 엄마의 몸에서 충충 고여 흘러나오는 자양분을 빨며 살이 오를 대지, 청춘의 소중한 꿈을 묻어갈 봄들판... 봄순은 감동어린 눈길로 애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드디어 첫 모내기를 하는 날이 왔다.

이른아침부터 탁아소가 들썩했다. 애숙의 남편이 새롭게 만든 일광욕장뚜껑을 씌우고있었다. 해비침시간을 조절할수 있게 접철식으로 만든 것이였다.

보육원들은 애숙에게서 꿀병을 받아들였다. 아

이들의 영양관리에 쓰라고 집에서 뜯은 풀이었다. 이 고장에 날씨를 예고해주며 정향꽃에 날아들던 벌들이 만들어낸 풀이었다.

아기들을 안고 프락에 들어서는 애기어머니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걸음마 걸음마  
우리 아기 걸음마  
하나둘 하나둘  
용타 용타 척- 척-  
...

영순이네는 신이 나서 아이들의 걸음마를 익혀 주고있었다.

온 분조원들이 모를 뜨러 둘러앉은 모판도 흥성거렸다.

《자, 탁아소에선 애기들이 걸음마를 떼고 여기선 쌍둥이엄마 기른 모가 벌판으로 첫걸음을 땀니다.》

포전관리공아바이의 입이 벙글썩 열렸다.

《아니, 여기 봄순엄마가 기른 모가 더 실하우다.》

함북도집머느리가 람스럽게 아지를 친 벼포기를 줌이 벌게 모아쥐고 내흔들었다.

《봄순이, 이런 땀 시 한구절 읊어야지.》

눈치빠른 선동원총각의 손에 끌리워 보퐁에 올라선 봄순은 정찬 눈길로 분조원들을 둘러보았다.

...  
랭상모 키우며 알았습니다  
엄마란 그 부름 무슨 말인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것인지  
우리모두 나라쌀독 말아안은  
엄마들 똥시다  
...

열아홉꽃나이처녀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청맑은 목소리는 봄기운에 함뻑 젖은 들판을, 아니 사람들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때 쌍둥이엄마가 달려나오더니 내 손목을 꼭 그러잡는것이였어요. <봄순아, 넌 어찌먼 그리 두 내 마음을...>하더니 눈곱이 그렁해졌어요. 잠시후 그는 갈린 음성으로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분조원동무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봄순이의 시를 이 땅에다 한자한자 새겨놓읍시다. 온 나라가 다 보게 우리 고향벌에 써놓읍시다.> 시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나의 눈앞엔 보여왔다.

민들레며 젓꽃, 냉이꽃들이 피어난 양지바른 둔덕들이며 정향꽃향기 감도는 아담한 산촌마을이, 이름없는 들꽃이나 한점의 바람결에서조차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애착으로 마음을 끓이는 이 고장사람들의 얼굴들이...

그리고 귀전에 들려왔다.

꿀벌떼의 날음소리, 처마밑으로 찾아드는 제비들의 지저귐소리, 엄마품에 파고들며 그치던 쌍둥이의 울음소리너머 푸른 들에서 끓어대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 한치의 향토에도 주인의 본분을 물으려는 뜨거운 마음들이 성실한 땀으로 대지에 쓴 시의 구절구절이 영근 이삭의 설레임같은 선물에 실려 끝없이 들려왔다.

시상식이 끝난 후 처녀와 나는 헤어졌다.

고향땅이 비낀 별빛같은 그 눈빛만은 나의 눈앞에 남겨놓고 떠났다.

그 눈빛은 이렇게 물고있는것만 같았다.

농장의 주인이라 자부해온 작업반장인 나에게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라 일컬어는 모든 농장원들에게 지금껏 한줌 흙속에 엄마의 숨결을 잇고 살았는가고?...

## 가사

# 내 사랑 벌이어

## 차명숙

봄씨앗이 움트는 내 고향 옥토벌  
정다운 땅과 나는 이야기하네  
아득한 지평선 저 한끝까지  
금나락을 펼쳐놓고 장군님 모시고싶네  
아 벌이어 내 사랑 벌이어

선군시대 태어난 복받은 새 대지  
정다운 땅과 나는 이야기하네  
장군님 전선길에 쌓인 그 피로

오곡백과 무르익은 향기로 풀어드리리  
아 벌이어 내 사랑 벌이어

내 나라의 만복이 꽃피날 이 대지  
정다운 땅과 나는 이야기하네  
사시절 네 이랑에 내 진정 바쳐  
장군님의 기쁨이 될 가을을 안아오리라  
아 벌이어 내 사랑 벌이어

## 총탄처럼 박히는 연속단편소설의 형상세계

한미영

《성공적이지요. 짧지 않은 연속물인데 총탄처럼 박히는 무엇이 있거든.》

이것은 연속단편소설 《채 쏘지 못한 총탄》(한웅빈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 94(2005)년 1~3호)의 마지막부분을 덮으며 저도 모르게 따라세우는 동무의 평가이다.

나도 공감하면서 생각되는바를 아래에 적는다.

### 1. 총탄처럼 박히는 종자

결코 제목에 매혹되어서가 아니다. 이 단편의 종자는 문자그대로의 총탄처럼 작고 단단하며 묵직하면서 실속있다. 선택된 생활소재는 작으면서도 단단하다. 그러나 철학은 묵직하면서 실속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성은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적으로 심화된 생활진리의 깊이이다.》**

소설에 장진된 세토막의 추억을 한줄에 그려졌을 때 역시 감촉되는것은 《채 쏘지 못한 총탄》이다. 연속단편소설의 전과정은 바로 이 좁안에 잡힌 《채 쏘지 못한 총탄》의 의미를 밝히는데 바쳐지고있다.

추억은 맨 먼저 조국해방전쟁 1 계단때 락동강도대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순재상등병과 숨진 그의 손에서 살아있는듯 푸들푸들 떨며 총탄을 내뿜던 경기관총의 몸부림을 다시 펼친다.

《괜찮아, 남해가 코앞인데... 난 죽지 않아.》하면서 화염으로 끓어번지는 강바닥에서 신입병사 《나》를 끌어올리던 순재상등병, 《죽기는 일러, 친구...앞으로!》하던 그 《운수좋은 상등병》이 경기관총 방아쇠에 손을 건채 굳어진것이다. 굳어진 그의 몸을 흔들 때마다 대답소리대신 기관총의 예리한 총성이 정적을 깨뜨리며 높이 울릴뿐.

따-따-따-따-

《아!》

《나》의 이 목메인 메아리에 이어 《채 쏘지 못한 총탄》의 첫 의미가 밝혀진다. 그것은 《병사의 총탄은 원수가 남아있는 한 숨져서도 계속 쏘아야 할 멸적의 총탄》이라는것이다.

추억은 이어서 재진공때 《나》가 속한 중대를 맞아주었던 《재만 남은 집자리들》, 《꺼멩게 된 벽체들》, 《불에 그슬린 굴뚝들》과 패주하는 적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수십명 마을주민들을 추모하여 일제사격의 총성을 울리던 빼아픈 체험을 다시 펼친다.

전사한 영웅상등병의 이름과 똑같은 《작은순

재》는 자신을 《겉쟁이》라고 스스로 타매하며 원수의 가슴팍에 첫 탄알을 박을 그 순간을 못내도 기다렸건만 《작은순재》가 고대하고 중대가 희망한 멸적의 《일제사격》은 뜻밖에도 하늘, 하늘을 뚫었다.

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살육한자들에게 백년, 천년 영원한 저주가 있으라, 이 울부짖음으로 하여 《채 쏘지 못한 총탄》의 두번째 의미가 밝혀진다. 그것은 《병사의 총탄은 대를 두고 원수를 징벌해야 할 복수의 총탄, 증오의 총탄》이라는것이다.

추억은 드디어 전쟁의 마지막해, 마지막 7월에 벌어진 무명고지탈환전투와 《포연과 폭연, 흙구름, 철의 소나기, 불의 폭풍》을 뚫고 두다리를 부상당한 몸으로 한치 또 한치를 기어 적의 뒤통수를 침으로써 중대의 돌격로를 연 《나》의 위훈으로 치달아오른다.

《우리가 이겼어요!》 간호원들은 울면서 부르짖고 《나》는 침대베개에 얼굴을 묻고 운다. 《우리는 승리했다!》

《나》는 여기서 《채 쏘지 못한 총탄》의 세번째 의미를 터뜨린다. 그것은 《병사의 총탄은 한몸이 그대로 총대로 되어서라도 기어이 쏘아야 할 총탄》이라는것이다.

이로 하여 추억의 총대, 그 총대의 약통실에 물려있는 《채 쏘지 못한 총탄》의 의미는 밝혀졌다.

이제는 됐는가, 모든것이 후련한가, 《아니다!》하고 《나》는 《채 쏘지 못한 총탄》을 그려주고 또 한걸음 내짚는다.

이 가슴속에, 50년대전우들의 가슴속에 이런 총탄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려는것은 로년기의 추억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못다 죽인 적, 채 풀지 못한 원한, 채 가르지 못한 승부가 남아있기때문이다. 결국 세월은 흘렀어도 변함없는 병사의 의무, 총대의 의무가 가슴속에 《채 쏘지 못한 총탄》으로 박혀 수시로 안정을 깨뜨리고 목은 상처와 함께 심장을 아프게 한다.

-헌데 이젠 늙었어, 안되겠어.-

하다면 이 심장들에, 지난 세기 50년대의 그 《채 쏘지 못한 총탄》들을 젊은이들의 녀에 물려주어야 할게 아닌가. 마치 약통실에 탄알을 물리듯...

그리하여 《나》는 50년대의 채 쏘지 못한 무수한 총탄들을 새 세기앞에 꺼내보이며 부르짖는다.

-병사는 언제나 자기의 총대속에 《채 쏘지 못한 총탄》을 재우고있어야 한다고, 가슴속에 이런 총탄이 꿈틀거리지 않는 병사는 병사가 아니라고, 약통실에 이런 총탄이 물려있지 않는 총대는 총

대가 아니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가지 의미로 밝혀온 《채 쏘지 못한 총탄》의 기본사명은 바로 이러한 사상적결론을 이끌어내는것이였다.

보는바와 같이 단 일곱글자속에 함축된 작품의 종자는 하나의 총탄을 편상시킨다. 탄알은 작지만 적의 심장을 뚫는다. 마찬가지로 이 단편의 종자는 일곱글자에 달하지만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고있다. 실로 총탄같은 종자를 발사한것으로 하여 이 단편은 명백히 우수한 단편으로 된다.

## 2. 연발사격식구성, 충실한 감정조직

련속단편소설 《차창에 비낀 얼굴들》로부터 시작된 작가의 행군길은 《스물한발의 포성》을 지나 《채 쏘지 못한 총탄》에 이르렀다. 결코 짧지 않게 근 20 년간을 헤아리는 이 행군과정은 작가가 련속단편소설이라는 특색있는 문학형태를 새롭게 탐구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이번에 나온 《채 쏘지 못한 총탄》의 형상세계를 자세히 음미해보면 작가가 명백히 오늘에 이르러 련속단편소설의 생리에 부합되는 적절한 형상수법을 탐구하였다는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 단편소설은 줄잡아 세차례의 사격과정으로 짜여져있다.

《괜찮아, 상등병》-순재가 숨져서도 쏘는 경기관총사격(1. 붉은 모래불), 증오가 무엇인가를 다는 몰랐던 《작은순재》와 《나》 그리고 온 중대가 백수십개의 격발기를 당기고 하늘을 향하여 발사한 백수십정 모총의 일제사격(2.중대의 일제사격), 《병사의 한치한치》 가장 뜨거운 사랑과 격렬한 증오의 한치한치》임을 실감하며 적의 뒤통수를 친 《나》가 《작은순재》의 등에 업혀가면서도 찾던 중기, 그 중기관총에 물린채로 사격을 기다려 흔들거리던 탄머 (3. 마지막한치).

이 세방의 《총성》이 잇달아 울리면서 역사가 펼쳐지고 진리가 밝혀진다. 전쟁 3 년간의 시작과 끝이 총성과 총성사이에 고도로 함축되어있고 병사의 의미, 총대의 의미가 총성과 총성으로 울려 퍼진다. 각기 총성을 예고하며 묶어진 추억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대표할수 있는 전형적인 역사적사건들로 선택되어있다.

《1》의 락동강도하전투가 그렇고 《2》의 재진공때 마을풍경이 그러하며 《3》의 무명고지탈환전투가 그렇다. 전쟁의 역사가 흐름에 따라 매 총성의 묶음 점점 커진다. 앞서 두차례에 올린 사격은 이 소설의 종장으로 되는 《마지막한치》를 위하여 선택되였다. 결국 이 소설은 《영웅순재》나 《작은순재》이야기이면서도 기본은 그들과 함께 산 《나》가 평범한 전사로부터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역세게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이 단편의 구성은 《련발사격식구성》이다. 《련발사격》으로 하나의 목표를 명증시킨데 이 단편의 형상적높이가 있다.

이 《련발사격식구성》은 주인공 《나》에게 생긴 의혹이 마침내 풀리게 되는 극적과정속에 들어있다. 거품이는 맥주조끼, 《떨렁》-매방울소리, 《휘파람》가락이 자아내는 심각한 의혹, 재차 회상이 펼쳐지고 물에 뛰어들어 무너져내리는 벽을 몸으로 막아나서는 수많은 청년들과 어깨를 겨루고서야 풀리는 의혹! 보다싶이 련발사격식이 회상식과 묘하게 어우러져 시대감과 함께 립체감을 준다.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회상과 같은 수법은 이 작가의 지난 작품들에서 흔히 보아온 수법이다. 이번의 이 단편에서 새롭게 등장한 련발사격식은 련속단편소설의 고유한 생리에 보다 충실하려고 애쓴 작가의 남다른 탐구혼적이라고 보아진다.

독특하고 세련된 구성미와 함께 능숙한 감정조직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소설의 감정조직은 해학과 분노, 단편다운 급전, 열정에 넘치는 주정토로들로 특징지어진다.

총탄같은 종자로서는 그 어떤 해학도 가늠할수 없다. 기대되는것은 분노뿐이다.

그러나 독자는 분노에 앞서 해학에 말려들었다가는 재차 더 커진 분노와 맞닥들인다.

《괜찮아, 락동강에서 두번 목욕하는셈 치세나. 땀도 씻고...》 하던 순재상등병이 경기관총방아쇠에 손을 건채 회생된다. 신입전사 순재는 전사한 순재상등병과 이름은 같고 키는 오히려 더 큰편이지만 《작은순재》로 불리운다. 이 《작은순재》는 겁쟁이다.

해학은 《마지막한치》의 《나》에게도 있다. (건달같은 놈들, 흉장을 이렇게 찔다니, 이따위들이 무슨 군대야?) 온몸이 총대가 되어 마지막한치를 뚫고있는 그 순간에조차 총알같은 해학이 발사된다. 끝없는 해학들이 끝없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촉매로 되고있다.

단편다운 급전으로 하여 등장인물과 독자는 가슴을 움켜쥔다.

무릇 희생끝에 의례히 흐르던 눈물은 없고 숨이 진 영웅상등병의 손에서 살아있는듯 푸들거리는 경기관총의 예리한 총성이 가슴을 찢는다. 첫 급전이다.

《우리의 총은 저런 산 송장들을 쏘는 총이 아니야! 저런것들한테 쏘 총알은 없단 말이야!》-백수십개의 총구는 산 송장-포토들을 스쳐 하늘로 쳐들린다. 이 일제사격-《작은순재》의 첫 사격-그것은 그가 병사로 태어나게 한 첫 사격이다. 두번째 급전이다.

무릇 승리끝에 높이 울리는 만세소리뒤끝에도 예상치 않았던 아픔이 따른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허나 탄머에 물려있던 채 쏘지 못한 총탄들은! 고지측면에서와글거리던 적들과 탄머를 물고있던 중기관총, 마지막한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 아, 마지막한치...》

현실에 대한 의혹이 풀리는 과정도 급전으로 짧게 묘사되였다. 급전들은 섬광처럼 짧지만 예리하게 번쩍이고있다.

열정적인 주정토로는 마치도 한편의 긴 서정서사시를 련상케 한다. 작가는 주정토로를 완전한

자기것으로 만들기 위해 1인칭소설형식을 취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스스로 《나》가 되어 끝없이 자유분방한 서정을 남김없이 터뜨리었다. 앞의 두부분도 그렇거니와 특히 세번째 부분은 그 전체가 하나의 《서정시》이다.

《한치 또 한치... 심신의 힘을 다하여 기여간다. 흐르는 피와 함께 순간마다 생명이 방울방울 빠져나가는것을 느끼며 기여간다. 입안에서 씹히는 것이 너무 악물어 부스러진 이발인지, 폭풍에 날아든 돌조각인지, 얼굴에 흐르는것이 땀인지 아니면 피인지... 기고 또 긴다. 타다남은 나무그루터기들, 밀등만 남은 진달래포기들을 탐과 피로 적시며 기여간다. 언젠가는 나의 피에 젖은 이 진달래포기에도 꽃이 피겠지. 아마도 나의 피처럼 붉은 꽃이... 만일 내가 이 길에서 영영 쓰러진다면 그 꽃은 나의 생명우에서 피어난 꽃일것이다. ...》 이는 축적된 서정의 폭발로서 《시》의 절정을 이룬다.

작가는 작가가 《시》를 짓는가 하면 남의 시도 곧잘 끌어들인다. 문구들사이에는 《휘파람》의 선율도 끼여흐르고 《까투리타령》이 박혀있는가 하면 《락동강》의 시구절도 엮보인다. 《휘파람》과 《까투리타령》에서 시작된 의혹이 가사 《결전의 길로》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풀린다.

해학과 급전이 박혀있는 조각조각이라면 시적인 주정토로는 범람하는 강물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과한감도 느껴지지만 《시》이므로 무난하게 넘어간다. 독자는 주정토로의 힘에 이끌려 어느새 주인공 《나》가 되어 《마지막한치》를 기여가게 된다. 이제는 잠시 종합해볼 기회를 가져보자.

긴 단편이 섬광처럼 번쩍이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총탄같은 종자의 발견,련발사격식구성의 돌파, 충실한 감정조직, 이 모든것이 한데 어우러지고 단단히 뭉쳐 련속단편소설의 긴 행로를 수월하게 넘어왔다.

이는 마치 명사수가 성능좋은 무기를 메고있는 것과 흡사하다.

### 3. 총탄처럼 박히는 아쉬움

아쉬움이 있다.

《구래여 아쉬움을 발견할 필요가 있을까?!》 누군가의 권고도 있다. 《좋다면 그만이지, 허허》 사람좋은 웃음도 뒤따른다. 나는 대답한다. 아쉬움은 발견된것이 아니라 느껴진것이라고, 평자가 되어 발견한것과 평범한 독자가 되어 느껴받은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또 다른 대답도 준비되어있다. 잘된 작품에서 아쉬움을 골라낼 때 평자는 작가이상으로 아픔을 느낀다고...

두번째 부분에 형성된 소녀의 죽음에 바로 그것이다.

재진격때 《나》의 중대를 맞이한 정적기든 마음, 살륙의 살풍이 휩쓸어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찾을수 없다. 단 하나, 한 소녀를 《만났다》. 필요상 그 대목을 인용해보자.

《<애야.>

나는 아이를 놀래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부르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넌 왜 여기에 앉아있느냐. 이렇게 추운 밤에...> 나는 아이의 머리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순간 손바닥에 전해오는 열음보다 더 굳고 차거운 감촉에 심장이 탁 하고 떨어버리는듯 했다. 그 애에게는 한점의 숨결도 온기도 없었다. 죽은 애였다! ... 두손을 가슴에 꼭 모아쥐고 조그리고 앉은채 얼어서 굳어진 어린 소녀, 여섯살이나 되었을가...》

그다음은 지체없이 모포에 싸안는다. 언몸이므로 모포에도 앉은 자세 그대로 옮겨놓을수밖에 없다. 가다가 발견된 적들의 만행현장에서 소녀애의 어머니를 찾는다. 소녀애의 손에 틀어쥔 저고리고름이 숨진 한 녀인의 끊어진 고름과 꼭 맞는다. 언땅을 쪼아내고 모녀를 함께 묻어준다. 죽음의 사형장으로 끌려가며 어린 딸을 잡관목숲속에 숨겨놓은 어머니, 《마음속으로 <엄마>를 부르며 울고울던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잠들어버렸을것이다. 어머니의 젖내와 온기가 담긴 웃고름을 꼭 천채 영원히, 영원히 잠들어버렸을것이다.》

이것이 진실한가 하고 나는 묻는다. 너무도 진실하지 않은가 하고 혹자는 반문한다. 그리고는 서로의 《강철같은 론거》들을 준비한다. 그러나 그 어떤 신랄한 론전도 독자의 감정안에서만 그 가치를 가지는것이 아니겠는가. 리론으로 충만된 평자가 아니고 평범한 독자였을 때 이 설정은 의혹을 자아낸다. 꼭 얼어죽은 소녀가 필요했을까. 《소녀의 머리칼속에서 하얀 성애가 유리조각처럼 반짝거》릴 정도로... 특히 소녀를 앉은 자세 그대로 모포에 싸안은 대목에 이르러서는 증오감에 앞서 섬찍함이 폐부를 찌른다. 이건 지나친 과장이 아닐까?

소녀의 죽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평자측에서 작가의 형상의도를 그 이상으로 넘겨질고 관대히 《리해》를 표할수도 있다. 그러나 독자에게는 《관대한 리해》를 바랄수 없다. 그들은 오직 심장으로, 감정으로 《말》한다. 작가는 평자가 아니라 독자와 《말》하는 사람이므로 론전을 펴려고 하기보다는 생활의 본질에로 한걸음 더 육박하여야 할것이다.

만약 론의가 벌어진다면 이 론의는 마땅히 우리의 모든 소설들에서 긍정인물들의 희생은 얼어죽었건, 불타죽었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건간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절절하게 안겨왔다는 바로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것이다.

단 하나의 아쉬움이 파편처럼 박혀 끝없는 아픔을 느끼게 한다.

X

총체적으로 련속단편소설 《채 쏘지 못한 총탄》은 읽히우는 작품이다. 작가가 이미전에 창작한 련속단편소설 《차창에 비긴 얼굴들》도 좋았고 《스물한발의 포성》도 좋았다. 이번에 창작한 련속단편소설 《채 쏘지 못한 총탄》도 《총탄같은 비교적 우수한 단편》이다.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제 올릴 또 다른 총성, 명중탄을 기대한다.



# 병사의 가정

박성보

겨울날씨치고는 류달리 따뜻했다. 파랗한 하늘에서 가물가물 녹아내리는 빗줄기들이 뺨쪽이 들어찬 대기는 바람 한점 없이 포근했다.

창고앞에 앉아 공구수리에 여념없는 해남이의 동실한 얼굴은 발긋하게 익어갔다. 축축히 젖어든 모자밑으로 하얀 땀집까지 물물 피어올랐다.

사실 오늘은 휴식일이였다. 그런데 중대가 《오중흠 7련대청호》쟁취를 위한 부대적인 훈련관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살림살이기풍도 널리 일반화할만 한 모범으로 평가되어 부대적인 방식상학의 대상으로까지 되다니 오후부터 손님들이 도착한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중대는 오전 한껏 주변청소며 훈련장정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해남이네 분대는 훈련장정리에 나갈 임무를 받았던 것이다.

해남이가 잠시 일손을 놓고 팔뻘을 할 때였다. 등뒤에서 《여 막녕이!》하고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결에 고개를 돌리려던 해남은 인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입대한지도 1년이나 돼오고 더우기 당당한 병사수가 된 어엿한 자기인데 아직 애송이맛을 주는 《막녕이》라 불리우다니. 그는 고까움을 목새기지 못하며 광광 삼자루만 맞춰나갔다. 목소리만 듣고도 중대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데 첫 손가락에 꼽히는 한 분대의 박만준동지라는것이 알렸다.

(안되겠어. 이러다간 《막녕이》가 이름처럼 돼서 사관이 돼두 《막녕이》라 불리우겠는걸. 이제 아예 못들은척 하군 해야지.)

마음을 도슬터럭으며 입술을 감쳐무는 해남이였지만 눈앞에는 키가 보충처럼 민출하고 길쭉한 얼굴에 눈이 더글더글한 만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웃음집이 흔들렸다. 말끝마다 자기를 《심리학자》라고 내세우는 그가 이제 또 어떻게 처신하겠는지 뻔했던것이다. 이윽고 취사복자락이 무릎위에 켜충 올라간 만준의 두다리가 눈앞에 와 뗏었다.

《막녕이, 청각은 취침중인가? 못들은척 하누

만.》

《...》

《동무의 현재 심리를 분석하면 이러다간 <막녕이>가 이름처럼 될것 같다는것, 그래서 이제 아예 대답을 안한다는 모진 마음! 맞지?》

해남은 여전히 눈길을 들지 않고 일손만 놀렸다. 그러다 눈앞으로 불쑥 사진이 나타나는 바람에 흠칫 했다. 그 모양이 깨고소한지 만준은 싱긋하며 내보였던 사진을 급히 등뒤로 가져갔다.

《동무, 이런건 분대원들한테도 보여야지.》

그 사진은 며칠전 집에서 보내온 가족사진이였다. 사실 여느 가족사진이면 보였겠지만 누이가 출가하는 잔치날 찍은 사진이여서 어쩐지 보여줄기가 뻗었다. 그래서 배낭고에 포개놓은 군복주머니에 넣어두었던것인데 어떻게 만준의 손에 들어갔는가.

《만준동지 정말! 주십시오!》

해남은 텅기듯 일어나며 매달렸다. 만준은 사진 든 손을 버쩍 쳐들며 바쁜 소리로 설복했다.

《여여, 쥐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구 줄게 사파나무에 매달리듯 이러지 말라우.》

해남의 손을 밀어내던 만준은 문득 휴식장쪽에서 목표판도색을 하고있는 분대장이 띄우자 그쪽에 대고 소리쳤다.

《분대장동지, 여기 기막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쪽으로 장달음을 놓았다. 해남이는 이렇게 된바에는 할수 없다고 생각되어 맥을 놓고말았다.

《굴째 어제 밤에 아침식사준비를 해놓고 시간이 좀 있더라니 저 <막녕이>의 군복을 빨아주자구 슬그머니 배낭고에서 꺼내왔는데 웃주머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받아든 분대장은 대번에 얼굴이 환해졌다.

《이거 희한한 가족사진이구만, 영!... 여, 해남동무- 이리 좀 오라우.》

분대장이 부르는 바람에 해남은 할수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가 가까와오자 만준은 분대장한테 자못 억울하다는듯 미간을 찌프리며 말했다.

《분대장동지. 내 이 동무한테 속았습니다. 자기네 집안엔 모자 쓰는 형제만 있다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십시오. 수건쓰는 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준에게 해남은 입을 삐죽해보였다.

《피, 만준동지 말끝마다 <여, 누이 있어?> <누이 있어?> 하기에 우정 그랬지요 뭐.》

《만준이, 동무 또 수태 성화시킨게구만, 영.》

분대장이 만준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사진으로 눈길을 주었다.

《좌우간 해남동무의 가정은 그췌하구만. 아버지, 어머니가 정정한데다가 형, 누이들이 끝끝나니 말이요. 정말 부러운 가정인걸.》

여기에 또 만준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글쎄말입니다. 해남동무네 가정에 새로 들어온 이 매부동무도 괜찮아보입니다. 내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우선 속이 별방갈구 인정미가 장마철의 노고물처럼 철철 넘치겠습니다. 그러구...》

《동무 또 엉터리심리학을 푸누만. 그저 짬만 있으면 자길 심리학자로 내세운다니까.》

분대장의 웃음어린 핀잔조의 말이였다. 그바람에 만준은 말재미를 잃고 입만 다셨다. 그것이 통쾌해서 해남은 얼굴을 숨기며 웃었다. 그러다 만준의 눈길에 걸려 목을 움츠렸다. 그때 중대장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해남은 만준이한테 《혼뜨겁》을 당했을것이였다.

《여기에 마침들 있구만.》

중대장은 웬일인지 싱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뒤로는 가방을 멘 웬 전사 하나가 따라오고있었다.

《자, 해남동무 누가 왔나 보오.》

뜻밖에도 중대장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해남은 전사한테로 급히 시선을 옮겼다. 그러던 그는 눈이 커졌다.

《아니, 순호가?》

부지중 그의 입에서는 놀란 소리가 튀어나왔다. 고향친우 전순호가 아닌가 분명했다. 가름한 얼굴에 눈이 동그랗고 입술이 도톰한것이 분명 순호였다. 하지만 해남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선뜻 믿어지지 못할 지경이였다.

《해남이! 나 순호야.》

그 전사가 먼저 소리쳐부르며 다가왔다. 얼떠름해있던 해남은 그제서야 급히 마주갔다.

《순호!》

《해남이!》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돌아갔다. 해남은 꿈만 같았다. 고향의 돌도 없는 딱친구였던 순호가 중대에 찾아오다니. 물론 해남은 그와 만나게 되리라는 예감은 이미 가지고있었다. 왜냐면 자기가 군대로 나온 다음 뒤미처 순호도 입대했는데

집을 통해 군사우편함 주소를 알고보니 놀랍게도 그가 가까운 이웃구분대에서 생활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는 달콤한 예감으로 가슴을 들먹이곤 했지만 정작 만나고보니 전혀 예상밖인듯 놀랄기만 한것이였다.

그들이 손을 맞잡고 돌아가고있을 때 한쪽에서는 분대장과 만준이가 영문을 모르고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해남이의 고향동무요. 린접구분대에서 생활한대요.》

중대장이 알려주어서야 그들의 얼굴은 밝아졌다.

《그럼 이거 반가운 손님이 왔는데!》

만준은 마치 자기의 일이거나 한것처럼 두손을 맞비비며 싱글거렸다.

이어 해남이가 분대장앞으로 순호를 이끌었다.

《순호, 우리 분대장동지야.》

《안녕하십니까!》

분대장은 순호의 손을 내리워주며 다정하게 물었다.

《우리 해남이의 고향동무라지? 그러니 해남이와 학교두 함께 다녔겠구만?》

《예, 한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졸업하기 1년전에 우리 집이 읍으로 이사가면서 전학해갔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찾아가서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간 친한 동무가 아니구만.》

순호의 어깨를 두드리는 분대장의 눈에는 따뜻한 애무가 비껴흘렀다. 아마 자기 분대 전사의 고향동무래서 더 정이 가는 모양이였다.

만준이의 감정도 그만 못지 않았다. 그러나 만준은 일부러 그런 티를 내지 않고 틀스런 자세로 전사들앞에 서있었다.

《우리 막녕이한테 송아지친구가 찾아왔다?! 하, 재미있는걸.》

순호가 한발 나서며 경례를 하려고 하자 만준은 《됐어! 됐어!》하며 그의 뺨어깨에 두손을 대고 꼭 눌렀다.

《이름이 전순호? 이름부터가 귀여운걸... 여 전사, 난 해남이와 한분대 구대원동지야. 이름은 박만준인데 일명 <심리학자>라고 해.》

《예? <심리학자>요?》

순호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이름에 눈이 커졌다.

만준은 《음!》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다.

《이제 <삼봉산중대 심리학자>하면 부대적으로 다 통하게 돼.》

《그렇습니까? 그럼 찾을 때 <심리학자동지!>하구 찾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구. 하, 눈치가 빠른데.》

해남은 능청스럽게 처신하는 만준이가 어이없



어 그의 등에 대고 눈을 찡긐했다. 그런줄도 모르고 만준은 승이 나서 말꼬리를 늘였다.

《참, 내 보니까 동무 학교때 우리 해남이와 그림자처럼 붙어다녔지?》

《예.》

《그리구 해남이가 군대나올 때 역전에서 너무 섭섭해 눈물까지 흘렸지?》

《예. 그것두 맞습니다.》

《동무 어제 밤엔 해남일 만나게 된다는 기쁨과 흥분으로 잠을 변변히 못 잤지. 맞지?》

《그것두 맞습니다. 야, 보통이 아닌데!》

순호가 감탄하자 만준은 점잖게 먼산만 바라보았다. 뻔한걸 가지고 그러군 하는 만준이라는것을 잘 아는 옆의 사람들은 그의 익살에 그저 소리없는 웃음만 짓고있었다.

×

군사강실은 휴식장뒤에 있었다.

해남은 순호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중대장이며 분대장이 다른 일에 대해선 걱정말고 어서 순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며 조용한 그곳으로 떠밀었던것이다.

《이자 그 구대원동진 참 성격이 개성적인 동지구나.》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 몰라. 자기절로 <심리학자>라고 자칭하지 뭐. 그래두 중대사람들은 다 그를 좋아해. 나두 그런데 뭐, 글썄 날 <막녕이>, <막녕이>하면서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몰라.》

그들은 강실에 들어섰다. 조용하고 훈훈했다. 둘이 호젓하게 마주 앉고보니 교향시절의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올랐다. 해남은 애뜻한 눈길로 순호를 바라보았다.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집 떠나 멀리에선 고향소리만 들어도 반가운데 이렇게 고향의 딱친구를 마주 하다니. 고향의 역대에서 헤여지던날 언제면 다시 만날가 해서 눈물이 글썽하여 작별했었는데 1년도 채 되기전에 만난것이 꿈만 같았다.

《야, 이거 한 십년만에 만난것 같구나. 순호.》

《그러게 말이야. 도제 1년도 안됐는데두 수태 오래된것 같애.》

문득 해남이는 순호를 이렇게 보내준 그의 중대에 대한 고마움이 북받쳐올랐다.

《순호, 너의 지휘관동지들이 정말 고맙구나. 고향친구를 만나보라구 이렇게 널 다 보내주구.》

《우리 지휘관동지들만 고마운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오게 된건 우선 너의 정치지도원동지때문이야.》

《뭐, 우리 정치지도원동지?》

《음, 글썄 어제 저녁에 우리 중대에 찾아왔더

구나. 지금 런던에 올라가있지 않니.》

《음 회의때문에 어제 오후에 올라갔어. 그래서?》

《우리 정치지도원동지한테 말했더구나. 한고향 내기인 너와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직 전사니까 오가진 못하고 그리워만 하자니 얼마나 속상하겠는가고 하면서 한번 만나게 해주자구. 더구나 네가 이번 실탄사격관정에서 우등사수의 영예를 지녔는데 그 기쁨을 고향친구와 나누게 해주자고 했다는거야. 우리 정치지도원동지도 제격 동의하며 그럼 오늘이 휴식일이니 보내겠다고 했대. 마침 우리 소대장동지가 요 산너머 2 중대에 올 일이 있더구나. 그래서 너희 정문앞에까지 함께 와서 난 들어오구 소대장동진 곧장 그리로 갔지 뭐.》

해남이의 가슴은 찌르르해졌다. 언제인가 조용히 담화를 할 때 부모들과 친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창시절의 딱친구가 가까운 부대에 있다는 소릴 얼핏 했을뿐인데 자기의 속마음을 그렇듯 헤아려주는 정치지도원동지에 대한 고마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이윽고 그들은 명량한 기분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 순호. 군대에 나오니까 어드래?》

《좋아! 집을 떠나서 생활하고있다는 생각이 들때마나 이제야 뭔가 큰일을 하려고 집을 나선 사내로 된듯한 감이 들면서 가슴이 뿌듯해지군 해.》

그리구 지금은 선군시대가 아니니, 그래서 내가 시대의 맨 앞장에 서있다는것. 이런 생각이 가슴을 막 달구군 해.》

《맞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늘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니 우린 장군님께서 가장 관심하시고 믿어주시는 병사라는 긍지가 막 넘쳐나.》

《집에서들은 장군님의 전선시찰소식이 있을 때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있는 부대에 가지지 않았겠을까 하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으문. 이제 장군님께서 우리 부대에도 찾아오시구 그 소식이 집에 알려지면 부모들은 동네방네 막 자랑할게야.》

《그렇거야, 하하... 그리구 해남에 군대나오니까 뭘 또 우스운가 하면 말이야. 어디 외출하면 나보다 썩 우인 처녀들도 <군인동지!> <군인동지!>하구 깃듯이 존경해주는데 아 그때마다 은근히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겠어. 하하》

해남이도 유쾌히 따라 웃었다. 그러다 무슨 생각에선지 순호의 팔목을 잡아보았다.

《야, 그새 팔목이 수태 굵어졌구나.》

《너두, 야 이거 네 팔목은 나보다 더하구나. 막 아버지들의 팔목같구나.》

순호도 해남의 팔목을 잡아보며 놀라와 했다.

《이거 우리 어른이 다된것 같은데.》

《글쎄말이야. 하긴 군대에 나오면 빨리 어른이 된다지 않아. 하하》

그들은 마주 보며 또다시 즐겁게 웃었다.

해남이는 새삼스럽게 군대생활이 좋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흐뭇해졌다. 고향에서라면 친우와의 상봉이 이렇게까지 달콤하고 즐거웠을가. 그럴것 같지 않았다. 서로 고향을 떠나 군대생활을 하는 까닭에 더욱 반갑고 기쁠것이였다. 이것은 군대생활기간에 고향의 귀중함과 친우에 대한 우정이 두터워졌다는 표현이고 따라서 그만큼 성장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자 해남은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동창생들이 하나하나 그러지면서 자기가 무척 돋보여지는것이였다. 그러던 해남은 집에서 보내온 가족사진이 생각나 웃주머니에 손을 가져갔다.

《참, 며칠전에 집에서 보내왔어.》

그가 사진을 꺼내들자 순호는 기다리거나 했던 듯 성급히 받아들였다.

《야. 이거 가족사진이로구나...영? 너희 누이가 시집가지 않아?》

《음, 한달전에 잔치했대, 나한테두 이젠 매부가 생겼어, 하하.》

순호도 따라 웃으며 사진을 보았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 여전하구나. 형이랑 누이랑두...너희 식구들은 참 좋아. 아직두 눈에 선해. 내가 갈적마다 온 집안이 친절하게 대해주군 했지.》

감회에 젖어드는 순호를 보자 해남은 갑자기 속이 무척해왔다. 그의 말이 옳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친한 동무가 찾아왔다고 색다른 음식들을 상에 놔주군 했고 농장에 다니는 누이는 우정 과수원에 가서 싱싱한 과일들을 한구럭 가져오군 했다. 그리고 형님은 마을앞내가에 데리고 나가 물고기잡이도 하고 어죽을 쑤어주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생활을 마련해주군 했었다.

《순호, 이거 정말 안됐어. 네가 왔는데두 난 이거...》

그가 무슨 뜻에서 그러는지를 대뜸 짐작한 순호는 서둘러 그의 말을 끊었다.

《너두 참, 그런 소린 말어. 군대에서야 어떻게 집에서처럼 그러겠어. 내 다 리해하니 절대 그런 생각은 말어.》

순호가 따듯이 위로했지만 해남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그런 해남이앞에 순호는 마음이 송구해지고 당황해났다.

그는 해남이의 기분을 띄워주려는 생각으로 화제를 바꾸어 밝게 말했다.

《너도 지휘관들을 잘 만난것 같구나. 너의 중대장동지만 봐도 걸로 보기엔 똑하구 엄해보여

도 속이 넓은것 같애. 아까 정문에서 처음 만났을 때만 봐도 내가 너의 고향친구라니까 대번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내 손을 덥석 잡지 않겠니. 마치 제 친동생이 찾아오거나 한것처럼 반가와 어쩔줄 몰라하더라, 하하.》

《맛아. 중대장동지도 그래 정말 모두 좋아.》

어느새 해남이의 얼굴은 밝아져 긍지와 자랑이 한껏 어려있었다.

《우리 중대장동진 그저 사람좋기만 한것이 아니야. 요구성을 높일 땐 또 얼마나 무서운줄 아니. 하지만 그 무서운 요구성두 다 납득되도록 만드는건 물론이구 스스로 분발하도록 만들어놓거든.》

어느덧 해남이의 눈앞에는 한달전에 있었던 일이 선하게 그려졌다.

...

해남은 불도 켜지 않고 컴컴한 강실에 앉아있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방금전에 분대장을 추궁하던 중대장의 엄한 목소리가 귀전에 자꾸 되살아나면서 언짢은 감정만 덧쌓아지는것이였다.

중대는 어제 저녁에 강행군을 떠났다가 그날 아침에야 돌아왔다. 그래서 오전엔 휴식하였지만 오후에는 훈련을 나갔다.

해남은 강행군에 참가하다나니 여느때없이 몸이 뻣뻣하고 손발을 움직이기가 싫었다. 그래서 오후훈련이 설렘했었는데 마침 분대장이 몸이 편치 않으면 떨어져 쉬라고 하여 그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오후내껏 휴식했다. 그런데 이것이 말썽을 일으킬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중대는 어둠이 내려왔을 때에야 훈련장에서 돌아왔다. 병실화구에 장작이라도 더 넣어주고싶어 그쪽으로 향해가던 해남이는 주춤했다. 병실모퉁이 저편에서 중대장의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대대에 갔다오다나니 내 미처 몰랐소. 동무네 전사가 떨어진걸 조금전에야 알았던 말이요.》

순간 해남이의 가슴속으로 불안한 예감이 찬바람처럼 확 휩쓸었다.

《그래 그런 <아량>이 전사를 위한거요? 그런 나약해지는 마음을 더 조장시킬뿐이요. 중대에서 훈련엔 누구나 무조건 참가하도록 정했으면 지켜야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해남이를 내보내서 오늘 못한 훈련을 다 하고 들어오도록 하오.》

해남이는 쫓기듯 황황히 그자리를 피했다. 그래서 발길이 닿은 곳이 조용한 여기였던것이다.

해남이는 비록 보지는 못하였지만 중대장의 성난 얼굴이 지긋게 눈앞으로 살아오르는것이였다.

그렇게도 리해력이 없고 물인정한 중대장이란 말인가. 오늘 처음으로, 그것도 몸이 좀 편치 않아 빠진것인데 큰일이나 난것처럼 그러다니. 전

사가 어떻게 구대원들과 같으랴.

해남이는 생각할수록 중대장이 고까왔다. 그러다나니 훈련장에 나갈 기분도 나지 않았다, 해남이가 한참 그러고있는데 출입문이 열리면서 분대장이 들어섰다.

《아니, 여기 있는걸… 헛참.》

무척 찾은 모양이었다. 해남은 시뻘뻘한 얼굴로 일어섰다.

《해남이, 내 오늘 생각이 짧았소… 이제라도 나가 오늘 훈련을 하자구.》

분대장은 메고왔던 총을 내밀었다. 해남은 그러한 분대장을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외로 돌려버렸다.

《자, 어서.》

재촉을 받고서도 한참 있다가야 총을 잡았다. 그러는데 문득 걸걸한 목소리가 문쪽에서 울려왔다.

《허, 해남동무의 기분이 몹시 저기압인걸.》

금시 들어선듯 정치지도원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있었다.

분대장을 내보낸 정치지도원은 조용히 다가왔다.

《앉으라구. 해남이… 자, 어서.》

해남이는 끌어당겨서야 그의 옆에 앉았다.

《해남인 집에 식구가 몇이라고 했던가. 아버지, 어머니가 있구, 누이와 형, 그러니 다섯식구구만.》

해남이는 왜 갑자기 고향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바닥만 내려다보며 앉아있었다.

《식구들중에 집을 떠나있는건 해남이뿐이라지? 그러니 집에선 무척 관심이 클거야. 날씨가 좀 차두 그래, 빗다른 음식이 생겨두 그래, 또 다른 집들에 군대나간 자식들한테서 좋은 소식이 오면 우리 해남이한테선 그런 소식이 안올가 해서두 그래…》

《…》

《그래서 지휘관들은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군 하거든. 남의 귀한 자식들을 맡고있다는 책임감이지. 부모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키워야 하거든. 그러자니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요구도 하게 되는거야. 해남이, 중대장동지의 엄한 요구를 고깝게 생각하면 안돼. 그건 해남이를 고향의 부모들이 바라는 병사로 키우기 위해 그러한 것이거든. 이제 남들이 다 한다하는 싸움군이 되어 기뻐할 때 해남이만 그 축에서 빠진다면 집에서 좋아할가.》

해남이는 웅크렸던 마음이 스르르 풀려내리는 감이 느껴졌다.

《물론 한번쯤 훈련에 빠진걸 가지고 그런다고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혼련도 전투라고 가르쳐주시였거든. 그러니 훈련에 빠진다는건 전시에 전투에서 빠지는것과 같이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행위야… 그러구 아마 집에서 갈아두 해남이가 시험을 앞두었을 때 학교를 하루 그만두었다면 형님이 그냥 스쳐보내진 않았을거야. <집에서 당장 나가!>하고 소리쳤을지도 몰라. 그렇지, 해남이?!》

해남이는 자기도 모르게 빙긋이 웃음까지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정치지도원의 말을 듣고 보니 중대장의 심정이 어느정도 이해되었다.

《자, 그럼 나하구 함께 나가 사격훈련을 해보자구.》

훈련장은 병실에서 얼마간 떨어진 야산에 자리잡고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너편 산밑에서 불빛목표가 깜박이고있었다. 아마 분대장이 미리 나와 불빛목표를 작용시키고있는 모양이 었다.

해남이는 정치지도원의 구령에 따라 훈련을 진행했다.

해남이는 훈련을 진행할수록 오후내껏 훈련장에서 보내고도 밤에는 또 자기를 도와나선 정치지도원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부지런히 불빛을 깜박이는 목표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해남이는 잠시 휴식하는 틈을 타서 분대장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싶어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던 해남이는 깜짝 놀랐다. 분대장인줄로만 알고있던 목표수가 뜻밖에도 중대장이 아닌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중대장이 해남이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에 한순간 어쭙은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인츰 혼연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해남이는 눈굽이 화끈해왔다.

웅당한 요구성으로 내보내긴 했지만 찬바람부는 밤에 전사를 내보낸 그것이 마음에 걸려 분대장을 대신하여 자신도 훈련장으로 나와 말없이 목표수가 되어주는 중대장동지!

이렇게 후더운 인간미를 지닌 중대장동지를, 나를 위해 진심으로 마음쓰는 중대장동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까와했던 말인가.

해남이는 눈굽을 훔치며 획 돌아섰다. 그리고는 힘껏 달음쳤다. 온몸이 불덩어리로 되는것 같았다.

그후부터 해남이는 배가의 열정과 노력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걸쳐 그는 마침내 훈련관정에서 명사수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던것이다…

해남이의 이야기를 듣고난 순호는 그의 손목을 꼭 잡았다. 《넌 그래서 빨리 발전했구나.》

《발전이라기보다 이제야 시작이지 뭐. 하여간 점점 군대생활이 재미있구 즐겨워.》

그들은 시간가는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주 앉아있었다.

×

《여- 해남동무, 문 좀 열라우.》

갑자기 출입문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해남이는 벌떡 일어나 그곳으로 뛰어갔다. 문밖에는 사과며 도마도며 무독히 담긴 쟁반을 두손으로 받쳐든 만준이가 서있었다.

《히야, 이거!》

문을 열어주고 한컨으로 비켜서는 해남의 입에서는 감탄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가 급히 쟁반을 받아들려고 손을 내밀었으나 만준은 턱짓으로 그들이 앉아있던 쪽을 가리킬뿐 그냥 걸어갔다.

전사들이 마주하고 앉아있던 책상앞에 이르러 만준은 쟁반을 내려놓았다.

《자, 이걸 들며 이야기를 나누라구.》

두 전사는 일어서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라했다. 만준은 그러는 그들의 어깨에 랑손을 올려놓았다.

《앉으라우, 앉으라우... 그래 이야기를 실컷 나누었나?》

《...》

《내 동무네 심리를 보니까 아직 다 하자면 끝이 없다는건데 이걸 들면서 더 나누라우.》

《히야! 대추!》

두 전사는 쟁반을 내려다보다 식기에 무독히 대추도 놓여있는것을 보고 동시에 환성을 질렀다.

그들의 고향은 대추고장이었다.

집집마다 대추나무가 몇그루씩 되었고 야산기슭에도 대추나무들이 숲을 이루었다. 그래서 대추는 그 고향의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있었다. 그런 고향의 특산물을 뜻밖에 앞에 놓게 되었으니 전사들이 환성을 터칠만도 한것이였다.

만준은 그러는 전사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는데 순호가 눈빛을 반짝이며 올려다보았다.

《만준동진 정말 심리에 밝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라고 이렇게 고향특산까지...》

순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준은 황황히 손을 내저었다.

《여여, 그런식으로 리해하면 난 실로 딱해. 이건 사실 내가 아니라 사관장동지에 의해서 생긴 거야.》

《사관장동지요?》

두 전사는 눈이 커졌다.

만준이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가 한창 해남이를 위한 점심특식을 준비하기에 여념없는데 사관장이 대추를 한식기 가지고 취사장에 들어왔다. 고향동무를 만난 해남이네가 고향의 향취를 느끼면 더 좋아할것이어서 마침 이번 《병사들을 위한 날》에 별식을 만들겠다고 2소대장 아주머니가 대추를 한배낭 구해온걸 아는지라 가서 좀 얻어왔다는것이였다. 만준이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두 전사는 가슴을 들먹이며 굳어져있었다. 한참 만에야 그들은 만준이가 한줌씩 집어주는걸 받았다.

《만준동지도 드십시오.》

《내 걱정은 말구 어서들 먹으라우.》

만준은 순호가 권하는것을 굳이 사양했다. 맛있게 먹고있는 전사들을 대견히 바라보고있는데 순호가 또 애뜻한 목소리로 불렀다.

《저 <심리학자>동지. 한가지 물어보랍니까?》

자못 조심스럽게 묻는것이어서 만준은 은근히 긴장되였다. 그러나 순호가 생글생글 웃는것을 보자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어려워말구 물어보라우. 심리학적측면에서는 충분히 대답해주시.》

큰소리를 쳐놓고보니 속이 좀 떨리기도 했다. 무엇을 물을지는 모르겠지만 엉터리라는 인식을 주기가 쉬울것 같았다. 그럴바에는 사전에 그럴듯 한 처신으로 물러나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되였다.

《가만. 시간이 어떻게 됐는가...영? 벌써 이렇게 됐는가, 차 이거... 여, 전사들. 내 지금 바빠 그러는데 좀 있다 시간을 꼭 내서 우리 질의문답 하자우.》

《체, 핑계가 그럴듯 합니다. 당장 식사시간이 된것처럼.》

골탕먹게 된 만준을 깨고소한 눈으로 바라보고있던 해남이가 야유조로 하는 말이였다.

《영? 오, 동문 미처 모를수 있는데 손님식사준비때문에 바빠하는거야.》

《손님이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야 내가 중대식사보장이 못해서 찼찼 땀 박만준이인가.》

《아니, 그럼 오후부터 온다던 손님들 말입니까?》

해남은 다우쳐 물었다. 방식상학을 위해 부대관하에서 오는 손님들을 녀두에 두고 묻는 말이였다. 사실 해남은 그 방식상학에 나서야 했으므로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있었다.

그래서 지금 손님이란 말을 듣자 거기에 생각이 미쳤던것이다. 이런줄을 모르고 만준은 또 자기대로 해남이가 그렇게 생각하는것을 오히려 재

미있게 여기면서 대답했다.

《그렇지 않구. 귀한 손님이니 식사준비두 잘해야거든. 오죽하면 지휘관동지들까지 식사준비에 적극 관심하겠어. 그러니 동무넌 여기서 움쭉 말고 이야기랑 하다 꼭 내가 알릴 때 와서 식사하라우. 알겠지?》

만준은 엄하게 다짐까지 놓고 급한 걸음으로 강실을 나갔다.

해남은 땀해 서있었다. 벌써 손님들이 오다니. 오후부터나 도착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혹시 희뽕게 그러길 잘하는 성미여서 순호를 두고 그렇게 말한것이 아닐까? 그러나 해남은 인츰 머리를 저었다. 고작 자기같은 전사한테나 친구가 왔다고 해서 그럴수는 없는것이였다. 더구나 지휘관동지들까지 적극 관심한다는걸 봐선 그 손님들이 분명했다.

해남이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순호의 잦아든 목소리가 울렸다.

《저 해남이, 나... 가야 하지 않을까?》

《아니, 가다니? 왜?》

해남은 펄쩍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왜 벌써 가겠다고 그래? 저녁때까지 시간을 받았다면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두 가야 할것 같애.》

순호는 벗어놓았던 가방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해남은 그가 왜 갑자기 그러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다 편뽕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어 순호의 손을 잡았다.

《혹시 손님들이 온다는 소릴 듣고 그러지 않아?》

《...》

《동무두 참, 손님들이 온다구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할것 같아 그래?》

《그래서가 아니라... 넌 어서 준비랑 해야겠는데 괜히 나때문에...》

《그런 걱정 말어. 난 별로 준비가...》

《아니야. 그래두 그렇지 않아... 암만 생각해두 내가 가야 할것 같애. 이제 술한 손님들이 오면 중대가 바빠 돌아가겠는데 내가 더 웅색해서 못있어. 이자 그 구대원동지 다짐놓는걸 보렴. 여기서 움쭉 말고 이야기나 하면서 있으라는걸.》

해남은 여기에 더 할말이 없었다. 돌아가겠다는 순호의 심정은 이해되였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보내야 옳단 말인가. 더구나 점심때가 다가오는데 식사도 안시키고 보내다니.

하지만 해남은 선뜻 그를 데리고 식당에 갈 용단이 생기지 않았다. 한창 손님들의 식사준비로 바빠할 식당이겠는데 전사인 자기로서 제 동무를 식사시키겠다고 데리고 가기가 멋진감이 들었다. 한편 지휘관동지들한테 말해볼가 하는 생각도 들

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인정있는 지휘관들이라 그냥 보내지는 않을것이였다. 그러나 역시 지휘관들한테 부담을 주는것 같고 또 그런 체기를 한다는 자체가 전사로서 분수없는 행동을 하는것으로 되는것 같이 여겨졌다. 다른 한편 순호가 마음 편해서 있지 못할바에는 그리고 자기가 동무로서 떳떳이 처신하지 못할바에는 섭섭한대로 보내는것이 낫다고 생각되였다.

《그럼... 가라.》

그의 입에서는 맥빠진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런 해남이에게 이번에는 순호가 얼굴표정을 밝게 지으며 위로했다.

《해남이, 난 오늘 너를 이렇게 만나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나두 그래. 하지만 밥 한끼 먹이지 못하구 보내는게...》

해남이는 다시 집생각이 났다. 언제한번 놀러온 순호에게 푸대접해 보낸적이 없는 자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됐어. 널 만나보구 가면 됐지뭐. 널 만나자구 왔겠지 대접받자구 왔겠어?》

순호는 제법 어른스럽게 웃어보였다. 그러면서 금시 떠나려는 자세로 혁띠를 조여매고 신발끈을 살펴보고 했다. 서운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던 해남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순호의 어깨에서 가방을 벗겼다. 그리고는 대추가 담긴 그릇을 가져다 와르르 쏟아넣었다.

《이거라두 다 넣어가지구 가. 가느라면 배가 몹시 고프겠는데 가면서 먹어.》

순호가 사양했지만 해남은 한사코 쟁반의것을 모두 넣어주었다. 가방을 메워주며 그는 못내 미안스러운 얼굴로 사죄하듯 말했다.

《순호, 이거 정말 안됐어. 먼길을 왔는데 밥 한끼 못먹이구... 후에 꼭 다시 오라. 절대 푸대접하지 않겠어. 정말이야.》

《너무 그러지 말래두. 내 다 리해하니까. 다르게 생각지 말어... 자 그럼...》

《참, 가만있어.》

해남은 금시 걸음을 떼려는 순호의 옷자락을 당겼다. 그리고는 급히 군복옷주머니에서 원주필을 꺼냈다.

《기념으로 받아. 3색원주필인데 얼마 안쓴거야. 받아둬.》

《너두 참... 고마워!》

순호는 잠겨드는 목소리로 떠듬거리며 원주필을 받았다.

출입문쪽으로 걸음을 떼려던 순호는 다시 해남이한테로 얼굴을 돌렸다.

《가두 지휘관동지들한테 인사나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구. 나가서 중대장동지랑 찾아보자.》  
해남이는 앞장서 문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가 문턱에 다달았을 때 순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저 해남이, 인사는 후에 네가 하면 안될가?》

해남은 우뚝 서며 돌아섰다.

《후에 내가 하다니?》

《이제 내가 중대장동지랑 만나면 그냥 가게 할가? 더 있으라거나 점심이랑 하고 가라거나 하며 복잡하게… 가뜩이나 바빠할 지휘관동지들한테…》

해남은 선뜻 아무말도 나가지 않았다. 순호의 말이 리해되었다. 하지만 간다는 소리도 안하고 어떻게…

해남은 마음을 정할수가 없어 망설이며 서있었다.

《해남이, 인사는 내가 편지로 쓰는게 어때? 그래서 내가 간다음 그걸 전해주렴. 그러면 말없이 그냥 가는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듯 한 생각이였다. 그래서 해남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순호는 가방에서 종이와 원주필을 꺼내며 책상앞에 다시 앉았다. 그는 친절히 맞아주고 대해준 지휘관동지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사정이 있어 알리지 못하고 그냥 간다는 내용으로 글을 썼다. 순호는 종이를 접어 해남의 손에 쥐여주었다.

《너도 잘 말해줘. 가까운 곳에 있으니 앞으로 나다 만나면 다시 꼭 인사하겠어.》

해남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였다.

강실을 나선 그들은 뒤켠의 산밑으로 함께 걸어갔다. 그곳으로 넘어가는것이 편대로 질려가는 길이라며 해남이가 이끌었던것이다.

그들은 산턱밑에 이르러 멈춰섰다.

《순호, 그럼 잘 가.》

《음, 잘있어. 알지 말구.》

그들은 작별인사를 하며 서로 손을 마주 잡았다. 정작 헤어지게 되니 서운한 감정이 가슴에 꽂 차올라 그들은 오래도록 손을 놓지 못하고 서있었다. 이어 순호가 먼저 돌아서 산길에 접어들었다.

그는 자주 멈춰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자 해남이는 가슴에 차있던 서운한 감정이 왈칵 치밀어오르면서 눈앞이 뿌옇해졌다.

《잘가, 순호. 가서 편지랑 자주 해. 그리구 가면서 날 많이 욕해라.》

×

해남은 한참만에야 병실쪽으로 내려왔다. 그가

터벌터벌 맥없는 걸음으로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앞에서 만준이의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이며 쑥갓이며 싱싱한 남새를 한버치 따들고 온실을 나선 그가 병실뜨락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여, 송아지친구는 어디다 두고 혼자 다녀?》

해남은 선뜻 보냈다는 대답이 나가지 않아 고개를 수그리며 걸음만 옮겼다.

만준은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서둘러 다가왔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

《아, 왜 그래? 말을 해야 알지?》

《저… 갓습니다.》

만준은 눈이 덩돌해졌다. 이어 버치를 내려놓고 다우쳐 물었다.

《그럼, 고향친우를 보냈단 말이야?》

《예, 방금전에…》

《차, 이런 정.》

그는 풀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이거 야단났구나. 영》 그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그래 밥도 한끼 안먹이고 그냥 보냈단 말인가. 더구나 지휘관동지들까지 성의를 기울여 준비하고있는데 이제와서…

만준은 벌떡 일어서며 버럭 어성을 높였다.

《동무말이야 보내긴 왜 보내, 영?… 예잇 정말 … 그래 방금전에 떠났단 말이지.》

만준은 더 그러고있을새 없다는 생각이 들어 펴 돌아서더니 정문쪽으로 내달렸다. 그곳으로 나갔으리라고 짐작한 모양이였다.

《아니 저, 만준동지!》

만준은 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달려갔다.

너무도 급작스런 일이여서 해남은 어쩔바를 모르고 서성이기만 했다. 그런데 다행히 운동장을 벗어나던 만준이가 정문쪽에서 들어오는 중대장을 만나 멈춰서는것이였다. 하지만 해남은 차마 그곳으로 갈수가 없었다. 중대장을 보자 그 어떤 두려운 느낌이 생겼던것이다. 그렇게 서있던 해남은 더욱 당황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뭐라고 설명하는것 같은 만준이의 말을 듣더니 이번에는 중대장이 곧장 뒤산쪽으로 달려가는것이 아닌가. 정문으로 나가는것을 보지 못했으니 분명 강실 뒤산을 넘어갔을것이라고 단정한 모양이였다. 왜서 중대장까지 저렇듯 큰일난것처럼 순호를 뒤쫓아가는것일까.

산을 치달아오르며 《순호동무!-》 《순호!-》 하고 애타게 찾는 중대장의 목소리가 해남의 마음을 더한층 조이게 했다. 그가 안절부절못하며 서성이는데 만준이가 거친 숨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이어 《해남이》하는 격한 목소리가 귀막을 찢

떨러들었다. 해남은 흠칠하며 그를 올려다봤다.

《동무 이거 다야?》

랑손을 허리에 짊고 우뚝 선 만준이가 무서운 얼굴로 쏘아보고있었다.

이마에 진하게 건너간 주름살, 그밑에 예리하게 곤두선 속눈썹, 푸르르 경련을 일으키는 랑볼...

《순호를 왜 보냈어, 왜 그냥 보냈는가 말이야.》  
《...》

《동문 그렇다치구 거저 가는 그 동무의 마음은 어떻겠어, 응.》

해남은 화살처럼 찢어드는 그의 말에 견딜수가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만준의 목소리는 왜서인지 차츰 떨리면서 갈리었다.

《중대사람들은 뭐... 고향도 없구... 고향동무도 없는줄 알아.》

《...》

《그래 우리 중대 찾아온 고향동무에게 밥 한끼...밥 한끼 먹여보내면 안되는 중대야?... 너무...해.》

만준은 끝내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다.

해남은 가슴이 찢어졌다. 그렇게 격분해하는 만준이를 처음 보았다. 하지만 그한테서는 후더운것이 확 끼쳐왔다. 해남은 고개를 떨구며 《흑-》하고 흐느꼈다. 이렇게까지 속이 뜨거운 만준동지였던단 말인가.

얼마후였다. 순호를 앞세운 중대장이 그들한테로 다가왔다.

《허, 오늘 해남동무 덕분에 운동을 잘했는걸.》

중대장의 별것나게 상혈된 얼굴을 바라보는 해남은 뭐라고 사죄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만준을 통해 사연을 알게 된 분대장이 순호한테서 가방을 벗기며 가볍게 충고했다.

《참, 전사동무두. 왔다가 그렇게 그냥 가면 우리가 섭섭하지 않나.》

《저 사실 중대에 손님들이 왔다기에...》

해남이가 순호를 대신해서 변명삼아 하는 말이였다.

《손님이라니? 중대엔 이 순호전사밖에 온 손님이 없는데.》

《예? 아니 그럼?》

두 전사는 눈이 커져 만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쏠리는것이 무었때문인지 만준은 선뜻 리해가 가지 않아 두눈만 껴버렸다. 하지만 그는 인츰 자기의 실책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들을 위해서 까밝히지 않고 예둘러 말한것인데 그것이 전사들의 심리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다니.

《하, 이거 난 아무래두 엉터리 <심리학자>인걸.》

만준은 목덜미를 문대며 멋지게 웃었다. 그러면서도 큰소리를 쳤다.

《내 그 실책을 푸집한 식사대접으로 꼭 봉창하겠으니 자, 전사동무들. 이젠 거의 됐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구.》

그리고는 취사장쪽으로 달음쳐갔다. 모두는 즐겁게 웃었다. 그러면서 자리를 뜨려는데 정문으로 어제 런던에 올라갔던 정치지도원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한쪽 어깨에 사진기를 멘 웬 군관이 따라서고있었다. 얼마전에 부대에 내려왔던 인민군신문사 기자인것 같았다.

정치지도원은 빙긋이 웃으며 다가오고있었는데 이마에 땀발이 선걸 봐서 급한 걸음으로 내려온것이 알렸다.

《다행히 아직 있구만. 난 혹시 헤어지거나 않았을가 하며 급히 왔더니...》

《우리 해남동무한테 사진을 찍어주자고 그럼니까.》

분대장이 짐작은 하면서도 기쁜 어조로 묻는 소리였다.

《그럼, 고향을 떠나 군복을 입고 처음 만난 전사들인데 기념으로 찍어줘야지. 사진을 고향에도 보내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구 반가와하겠소. 마침 기자동지가 우리 중대에도 취재할 일이 있던차라 함께 왔소.》

해남은 다시한번 가슴이 찢해왔다.

어제는 순호의 중대에 찾아가 그를 보내도록 하더니 오늘은 또 기념사진을 찍어주겠다며 마음쓰는 정치지도원동지.

해남은 목이 꼭 메여올랐다. 고마왔다. 자기를 대신하여 순호를 친형제처럼 맞이하고 성의를 아끼지 않는 지휘관들이며 동지들이 더없이 고마왔다. 그런데도 중대장은 오히려 사죄하는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순호, 이거 정말 안됐구만. 해남이네 집에서 같으면 아들의 동무가 왔다고 온 가정이 성의를 다했겠는데 우린 이거 그렇지 못했구만.》

《아닙니다. 전 정말 꼭... 해남이네 고향집에 불러온것만... 같습니다.》

목멘소리로 떠들거리는 순호의 말을 듣느라니 해남은 새삼스럽게 중대에 대한 정이 뜨겁게 솟구쳐올랐다.

하루빨리 어엿한 병사로 성장하라고 하나같이 이끌어주고 키워주는 중대! 고향동무를 만나고싶었던 가슴속 생각도 헤아려주고 찾아온 그를 모두가 친동생처럼 대해주는 후더운 인간미가 넘친 중대!

이런 중대를 어찌 단순하게 혈육의 사랑과 멀리 떨어진 총멘 집단이라고만 하랴.

흔히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있고 형제의 살뜰

한 정이 있는 곳을 가정이라고 한다. 하다면 살  
틀하고 친근한 그 모든 사람과 정이 있는 중대도  
바로 하나의 가정이 아닌가.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꽃처럼  
활짝 피어있고 선군시대 미덕의 향기가 짙 차넘  
치는 중대는 가정중에 가장 값높고 자랑높은 병  
사의 가정, 혁명의 가정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윽고 해남이는 순호와 함께 사진기앞으로 나  
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들이 찍기에 앞서  
모두 함께 찍고싶었다. 그의 고집에 의해서 중대

**수필**

## 저가락

**김동기**

나는 매일 저가락을 사용하며 식사한다.

조선민족은 저가락문화권에 속한다. 이 지구에  
인간이 태어난 다음 맨손 즉 다섯손가락으로 음  
식을 먹다가 쌀과 남새를 주식으로 하는 동양에  
서는 밥그릇과 숟가락, 저가락이 발달하였고 빵  
과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유럽에서는 그것을 먹  
는데 편리한 포크와 접시, 나이프 등이 발달하였  
다.

그러나 일부 민족은 아직 손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습관이 있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품에 안긴지  
여러해가 되어오지만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식사  
를 할 때면 가끔 숟가락과 저가락사용때문에 주  
위사람들로부터 자주 이야기를 듣곤 했다.

《아버지, 숟가락이 있는데 왜 국을 저가락으로  
잡수십니까?》

34 년간의 감옥생활에서 생긴 습관을 인출 바  
꾼다는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것 같다.

남새국, 미역국이 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저가  
락으로 남새나 미역을 건져먹고 왼손으로 국그릇  
을 들고 맹물을 마시는것처럼 국을 훌훌 마신다.

밥도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왼손에 밥그릇을  
들고 저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리해가 되지 않는 식사방법  
이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식사하  
는 내 모습을 쳐다보기만 한다.

집에 온 증손녀벌 되는 어린 처녀애가 내가 저  
가락으로 국먹는 모습이 그렇게도 신기해보이는  
지 자기 어머니의 귀에 대고 무엇이라고 속삭인  
다. 애어머니가 나를 보고 미소짓는다. 그러면 그  
애가 대담하게 밥상에 있는 숟가락을 내 손에 쥐  
여준다.

어린 시절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면 어머니가  
오른손에 쥐여주던 그 추억이 떠오른다. 나는 저  
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짓고말았다.

장이며 정치지도원이며 친근한 중대의 전우들이  
한가정처럼 오붓하게 사진기앞에 모여앉았다.

순호와 함께 그 가운데자리에 앉은 해남이는  
문득 고향집에서 보내온 가족사진이 생각키워 품  
속을 더듬었다.

(아버지, 어머니! 보내준 가족사진을 반갑게 반  
아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우리 초소의 가족사진  
을 보내드릴테니 기쁘게 받아보세요. 전 정말 참  
좋은 가정에서 군사복무를 하고있습니다!)

저 아이는 이 할아버지의 지나온 험한 인생을  
알리가 없다.

애어머니는 미소짓지만 순진한 어린 아이는 할  
아버지의 틀린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였다.

어린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한 옛날격언처  
럼 가식과 허위를 모르는 그 아이야말로 이 할아  
버지를 가르쳐준 《선생》이었다.

나는 매일매일 감옥에서 굳어진 자신의 행동거  
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있다.

감옥에 처음 들어가니 늙식기와 참대로 만든  
저가락이 차례졌다. 그런데 그 저가락은 담지 않  
아서 새까만 때가 묻어 처음에 사용할 때는 마음  
이 꺼름직하였다. 그래서 운동시간에 밖에서 간  
수의 눈을 피해 주어진 유리조각으로 저가락을  
굽어서 닦았다.

감옥에서는 숟가락없이 저가락만으로 식사를  
하게 되어 4 등식 콩보리밥덩어리가 담긴 밥그릇  
을 왼손으로 들고 저가락으로 먹어야 했다.

처음에는 난알을 저가락으로 집을수가 없어 불  
편하였으나 배가 몹시 고프다보니 콩 한알, 밥  
한알도 귀하게 여기어 깨끗이 먹어치웠다.

무우시래기소금국은 몇오리 안되는 시래기줄기  
를 저가락으로 건져먹고 국물은 맹물처럼 마시며  
식사를 하였다.

그때 사용한 저가락은 다 그 누군가가 이미 사  
용하던 때물은 저가락이었다.

감옥에서 형기가 끝나고 출소한 사람, 병으로  
옥사한 사람, 교수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들이  
사용했던 저가락이다.

내가 지금 쓰고있는 이 저가락을 사용했던 사  
람이 어떤 사람이였을가 하고 생각해보곤 하였  
다.

출소자? 옥사한 사람? 사형수?...

만약 이 저가락을 사용했던 사람이 사형당한  
우리 동지가 아닐가 하는 생각에 이르자 목이 메





##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림격정》과 주인공들의 형상

한중모

일제의 파썸적폭압이 극도에 이른 민족수난의 엄혹한 시기에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령활하게 조직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조국해방에 대한 굳은 신심을 안고 깨끗하고 굳세게 살아온 홍명희는 8.15 해방을 맞이하자 여러 애국인사들과 함께 서울에서 《김일성장군 환영준비위원회》 결성을 발기하고 민주독립당 당수로서 활동하다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주체 37(1948)년 4 월 평양에 와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홍명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내각 부수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의 중책을 지니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오늘은 평양교외에 있는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 있다.

조국해방전에 조선의 진보적인 작가들은 일제 침략자들의 파썸적폭압과 민족문화말살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뜨거운 조국애와 깨끗한 민족적량심을 지니고 정력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창작발표함으로써 인민들속에 민족자주정신과 계급의식을 높여주고 민족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1920 년대와 1930 년대에 우리 나라에서는 프로레타리아작가들을 비롯한 진보적작가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완강한 노력에 의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과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은 뚜렷한 사조를 이루고 힘차게 발전하였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유산을 남겨놓았다. 해방전 진보적문학이 남긴 유산가운데서 홍명희의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20 년대와 1930 년대에 력사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어 소설문학의 한 갈래를 이루었다. 하지만 작품의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나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그 어느 력사소설도 《림격정》을 따르지 못하였다. 특히 《림격정》은 인민성과 민족적특성을 풍부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었다.

당시의 이름있는 문인들과 지식인들은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을 그 시기 력사소설들가운데서 단연 뛰어난 력작으로, 당대 조선문학이 이룩

한 커다란 수확으로 높이 평가하였으며 독자들은 매일 《림격정》이 련재되는 신문이 오기를 기다리며 서로 앞을 다투어 읽곤 하였다.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은 그 사상예술적성으로 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지배하던 민족수난의 시기 광범한 대중으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사랑을 받았을뿐아니라 해방후에도 여러 계층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주체 51(1962)년 9 월 어느날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데서 제기되는 사상미학적문제들에 명철한 해명을 주시면서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에서 좋은 점은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으로 이야기를 엮고 그것을 매우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힘으로 물질적재부와 정신적재부를 창조하여왔지만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착취계급에 의하여 갇은 천대와 멸시,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다.》**

천대받고 억압받는 가난한 하층근로인민들을 주인공들로 내세우고 그들의 운명과 호상관계를 주선으로 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면서 봉건시기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묘사한것은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며 그 사상예술적성과를 보장한 기본담보로 되었다.

홍명희는 소설 《림격정》을 창작하는데서 다면력사적과거의 인간과 생활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재현할것만을 의도한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먼저 작품의 현대성을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현대성은 진보적이며 사실주의적인 문학작품의 본질적특성의 하나이다. 현대성을 구현하는것은 력사주제의 문학작품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날의 사회현실이나 력사적사실을 형상화하면서 생활자료를 현대적요구에 비추어 선택하고 분석평가하며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것이 아니라 력사적사건이나 사실을 그대로 옮겨놓는다면 그러한 작품은 오늘의 인민들의 생활에서 아무런 가치와 의의를 가지지 못할뿐이니라 복고주의를 류포시키는 해독적인 작용을 할수 있다.

홍명희는 소설 《림격정》을 창작하는데서 역사 자료를 순전히 흥미본위적인 관점과 현실도피적인 림격정에서 취급하고 라렬하는 부르조아력사소설가들과는 달리 소재의 선택과 인물들의 성격창조, 사건줄거리의 엮음과 생활묘사 등에서 현대적요구를 구현함으로써 예술적형상을 일제식민지 통치시기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밝히는 데로 지향시키기에 노력하였다.

홍명희는 《〈림격정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창작수기에서 자기가 왜 림격정을 주인공으로 하여 역사소설을 창작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림격정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흥미를 느껴온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림격정이란 옛날 봉건사회에서 가장 학대받던 백정계급의 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가슴에 차넘치는 계급적 OO의 불길을 품고 그때 사회에 대하여 OO를 든것만 하여도 얼마나 장한 패거였습니까.

더구나 그는 싸우는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진두에 나선것이 아니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백정의 단합을 먼저 꾀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특수민중이란 저희들끼리 단결할 가능성이 많은것이외다. ...이 필연적집리를 잘 리용하여 백성들의 단합을 꾀한뒤 자기가 앞장서서 통쾌하게 의적모양으로 활약한것이 림격정이었습니다. 그러이러한 인물은 현대에 재현시켜도 능히 용납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삼천리》잡지 창간호, 1929. 6 중에서)

창작수기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홍명희는 오래전부터 림격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의 생활과 활동을 형상화한 역사소설을 집필할것을 생각하고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실록》(《명종실록》), 《기재잡기》 등 역사기록과 야담자료에 의하면 림격정은 조선봉건왕조사회의 모순과 부패성이 더욱 우심해지던 16세기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백정계급의 출신인으로서 뛰어난 용력과 지략을 지니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천민들을 규합하여 만든 폭동군을 지휘하여 황해도일대를 비롯한 각지에서 맹활동을 벌려 봉건통치배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들의 간담을 썩히게 함으로써 이름을 떨친 실재한 역사적인물이다. 그러나 림격정은 그후 오랜 세월 역사서적에서나 문학작품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고있다가 홍명희에 의하여 소설화됨으로써 남너로소가 다 아는 인물로 되었다.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은 홍명희의 진보적인 세계관과 미학적견해, 높은 지성과 문학적재능이 하나로 어울려서 이루어진 창작적결실이다.

진지한 학구적태도와 꾸준한 탐구적노력으로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문필

력을 구비해온 홍명희는 3.1 인민봉기후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이 급속히 전파되고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여러 계층 인민들의 대중투쟁이 고조되는 1920 년대의 변천된 사회현실에서 새로운 시대사조에 접하면서 무산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전개되는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에 공명하게 되었다. 《카프》의 기관지격으로 발간된 《문예운동》 잡지 창간호(1926.2)에 게재된 홍명희의 논문 《신흥문예의 운동》은 그의 사상적립장과 문학적견해에 대한 레증으로 된다. 홍명희는 이러한 진보적인 사상미학적관점과 작가적자질을 가지고있었기에 썩고 병든 량반통치배들과 봉건사회현실에 반기를 들고 일떠선 천민출신의 폭동군두령의 생활과 활동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화한 《림격정》과 같은 문학작품을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그러기에 한용운은 주체 17(1928)년 11월 하순부터 《조선일보》에 발표되기 시작한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의 신문편제가 여러번 중단되었다가 주체 26(1937)년 12월부터 《조선일보》에 다시 련재된다는것이 알려졌을 때 《격정이는 소설로나 극본으로나 전기로나 무슨 형식으로든지 재현할 필요가 있는 인물중의 뚜렷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벽초 홍명희가 《림격정》을 쓰게 됨으로써 격정이는 천년만에 지기를 만난 사람처럼 묘안에서 웃음을 머금을것이라고 하였다. 작가로 볼 때에는 소재를 잘 잡았다고 할것이며 원형인물로 보면 작가를 잘 만났다고 하여야 할것이라는것이 다.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의 주인공이 림격정이라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림격정》은 다부작장편력사소설로서 이야기줄거리가 복잡하고 생활규모가 방대한것만큼 거기에는 림격정의 예도 구성조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주체사상의 해명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많다. 림격정이와 의형제를 맺은 리봉학, 박유복, 배돌석, 황천왕동이, 팍오주, 길막봉 등은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다. 《림격정》에서는 줄거리구성과 주체사상의 해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 보아 림격정이내 의형제들이 모두 주인공으로 되며 그가운데서 림격정이는 기본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다주인공적인 작품으로 되는것이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림격정이내 의형제들은 모두 조선봉건왕조사회의 밑바닥에서 갓은 천대와 멸시를 받고 모진 불행과 고통을 겪으면서 어렵게 살아온 근로하는 사람들로서 자기 남다른 생활로정을 밝아왔을뿐아니라 자기나름의 특이한 기질과 장기를 가진 인물로 형상화되고있다. 그리하여 소설에서 그들은 당시의 최하층근로인민의 전형적인 성격으로서뿐아니라 선명한 개성적 특질의 소유자로 부각되고있다.

림격정은 함흥 고리백정의 손자이며 경기도 양

주에 사는 소백정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자랐고 창피와 설움도 많이 겪었다. 걱정은 글공부를 하지 못하였지만 영특하고 힘이 천하장사인데다가 칼을 잘 쓰고 말을 잘 탔으며 그밖에도 여러가지 뛰어난 점을 가지고있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그를 마치 옛날책에 나오는 영웅호걸과 방불하다고 하였다.

박유복이는 황해도 강령태생인데 그의 아버지는 말 한마디때문에 모함에 걸려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고 어머니는 행방살이를 하면서 일점혈육인 유복자를 고생스럽게 키우다가 그가 열두살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어린나이에 고아가 된 유복이는 이모부네집에 가서 었혀사는 처지에 앓은뱅이병에 걸려 여러해동안 앓으면서 나무쪼챙이를 깎아서 던지는 장난을 하는 파정에 큰 집승도 표창을 던져 잡을수 있는 재간을 가지게 되었다.

배돌석이는 담차고 다기진데다가 돌팔매질을 잘하는 장기를 가지고있었다. 경상도 김해에서 역줄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돌전에 어머니를 잃고 이북어미에게서 눈치밥을 먹으며 자라났다. 김해에서는 음력 4월초순부터 한달가까이 석전이 벌어져서 큰 구경거리로 되었다. 돌석이는 열서너살때부터 돌팔매질련습을 극성스럽게 하여 그 재주가 뛰어났다. 그는 돌팔매로 호랑이까지 잡았고 을묘년란리때에는 판군에 뽑혀 투석대에서 대정으로 이름을 날렸다.

곽오주는 황해도 강령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집저집 옮겨다니면서 머슴을 살았다. 그는 힘이 세여 씨름을 잘할뿐 아니라 나무에 잘 오르고 특히 도리깨질솜씨가 뛰어났다.

길막봉이는 본래 소금장사를 하는 총각이었다. 그는 한집에 소금 두섬을 지는 힘장사로서 곽오주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다. 그의 힘을 꺾는 사람은 오직 림격정뿐이었다. 막봉이는 자기의 적수가 없다고 큰소리를 쳤었는데 호두와 잣을 손가락으로 까먹는데서 걱정을 당하지 못하였다.

림격정의 처남인 황천왕동이는 갑산 관노비의 아들로 산에서 들짐승처럼 자라 걸음걸이가 어찌나 빠르지 걱정이네 폭동군이 이천 광복산에 들어가있을 때 서울까지 삼백여리길을 하루가고 하루오고 해서 서울소식을 제때에 알고 지낼수 있었다.

리봉학은 림격정이네 의형제 가운데 벼슬을 한 유일한 사람이였다. 그도 원래 종의 자식이였는데 활쏘기에서 특기있는 재주를 가지고있어서 을묘년에 배돌석이와 함께 대정으로서 이름을 날렸다. 그 공으로 벼슬길에 올라 전라도에서 중군일을 림시로 맡아보던 그는 가리포에 침입한 왜적을 물리친 전공으로 종록품 병절교위의 직첩까지 받게 되었다,

소설에서 의형제들의 비천한 출신성분과 구차

한 처지, 그 뛰어난 재주에 대한 생동한 묘사는 천대받는 가난한 근로인민의 힘과 슬기에 대한 예술적확인으로 된다.

배돌석이가 봉산에서 살림을 차린 황천왕동에게 찾아갔을 때 그를 《역줄나부랭이》라고 속보고 하대하는 안해에게 《근본가지고는 사람을 말하지 못하네. 내가 사람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당대에 영웅호걸이라고 할만한 인물은 거지반 다 근본이 하지 않은 모양이네. 우리 대부분 한 인물이 지금 량반에 있을듯 한가. 지금 량반은커녕 그전 량반에두 없을것일세.》라고 한 천왕동이의 말은 인물형상에서 작자가 견지한 관점과 립장을 대변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형상화에서 그들을 다만 힘이 엄청나게 세고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자기의 장기로써 외적의 침략과 로략질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인민의 안전을 위한 싸움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로 묘사하였다. 림격정이나 배돌석, 리봉학 등이 을묘년란리때에 참전하여 원쑤들을 치는데서 이름을 떨친것으로 묘사한것은 그러한 실례로 된다. 을묘년란리란 1555년 5월 일본해적무리가 70 여척의 배를 몰고 전라도령암의 달랑도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고 략탈만행을 감행한 다음 달랑성을 포위공격하여 싸움이 벌어졌던 《을묘왜변》을 말한다. 그때 왜적들은 달랑성을 일시 차지하였으나 령암성에 집결한 우리나라 군사들과 인민들의 드센 반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다. 령암 싸움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왜적들은 그후에도 여러곳에서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만행을 계속하였고 제주도에까지 기여들어 갖은 발악을 하였으나 애국적인 군사들과 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을 받아 무리죽음을 내고 쫓겨갔다.

소설에서는 일제경찰의 탄압으로 《을묘왜변》에 대하여 전개된 묘사를 주지 못하고 배돌석, 리봉학 등의 생활경력의 한 토막으로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쳤지만 그들의 참전과 용감성을 통하여 반침략조국방위투쟁에서 하층근로인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더우기 이 소설이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창작되었다는것을 고려할 때 《을묘왜변》에의 의형제들의 참전과 그들의 용감성에 대한 묘사가 가지는 현대적의의는 주목되는 바가 있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림격정이네 의형제들의 성격형상에서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과 의리심을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의형제들의 극진한 의리는 그들중에서 봉건관료배들에게 체포구금된 사람이 생겼을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출해내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의형제들가운데서 제일 나이적은 길막봉이가 손우두령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안해와 장인을 청석골로 데려오려고 가사리에 갔다가 안성병방

의 관속들의 습격을 받아 체포되었을 때 그의 의형제들이 부하들과 함께 어물장사로 가장하고 막봉이를 위협한 고비에서 구원한것은 그 한 실례로 된다

의형제들의 굳은 의리는 옥에 갇혀있던 가족들을 꺼내가지고 양주를 떠나 청석골로 가는 림격정일행이 림진나루를 무사히 건느게 해준 림진별장인 리봉학의 내막이 드러나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에서 봉학이를 구원하여 청석골로 데리고간 활동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황천왕동이로부터 리봉학이 서울로 압송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림격정이가 박유복에게 그를 구원하러 함께 가자고 하니 유복이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그때 옆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미심쩍어하면서 두 분이 갔다가 리별장을 빼내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는 서림에게 걱정은 《숫제 우리두 같이 잡혀가겠소.》라고 말하는것이다. 그러자 서림이가 《아무리 정분들이 여타자별하시드래두 같이 잡혀가신다는건 안될 말씀이요.》라고 하니 걱정은 《봉학이가 내 영결루 죽게 되지 않구 제죄로 죽게 되었던라두 우린 가만히 보고있을수가 없소.》라고 잘라서 말하고나서 봉학이를 구해낼 방도를 모색하여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인 혜음령에서 그를 구출해내어 청석골로 데리고오는것이다.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은 남들보다 힘이 세고 재주가 뛰어나지만 의리심이 강한 주인공들이 각이한 인생행로를 거쳐 청석골에 모여들어 《화적》이 되며 칠장사에서 의형제를 맺고 세력을 확장하며 량반관료배들을 징계하는 활동내용을 통하여 조선봉건왕조사회의 모순과 부패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농민봉기의 필연성과 폭동군의 투쟁정형을 여러모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의형제들의 꼭절많은 생활로정과 기구한 운명, 그들의 《화적》행위는 봉건사회의 악착한 현실과 사회악에 대한 예리한 고발이며 폭로비판으로 된다.

박유복의 아버지는 나라에서 조재상같은 사람을 죽인 까닭에 일년 농사까지 흉년이라는 말 한마디를 한탄으로 서울로 잡혀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유복이는 행랑살이를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려서부터 갖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유복이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게 한 로첨지는 동네앞의 좋은 땅을 거의 자기가 차지하고 거들먹거리면서 계속 못된짓을 하는것이다.

배돌석이의 신세도 기가 막혔다. 돌석이는 《을묘왜변》에서 석전대 대정으로 공을 세웠지만 싸움에서 이기고 군사들을 위하여 음식을 차리고 위로연을 하던 날 방어사의 친척되는 밍게 노는 위장에게 칼부림을 한것때문에 군법에 걸려 효수를 당할번 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하고 금교찰방의 하인으로 있다가 역졸이 되었다. 그후 술집

에서 만난 젊은 과부와 살림을 차린 돌석이는 김도사네 집에서 비부쟁이를 할 때 안해와 김도사가 치정관계를 가지고있는 사실을 알고 두 년놈을 죽인 일때문에 체포되어 압송되어가던 도중에서 박유복에게 구출되어 겨우 죽음을 면할수 있었다.

박유복이와 배돌석이뿐아니라 의형제들은 서로 생활경로가 다르지만 그 비참한 처지와 기구한 운명에서는 비슷하였다.

봉건사회의 악착한 현실에서 의형제들이 모진 빈궁과 천대에 시달리며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왔는가 하는것은 대부분 장가를 제때에 들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계기나 경로를 통하여 때늦게 안해를 맞이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데다가 못된 병에 걸려 오래동안 신고한 박유복은 서른세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남보기가 거북하여 외상상투를 틀고다니다가 덕적산에 있는 사당에 《귀신》의 《마누라》로 뽑혀온 최서방네 만딸을 안해로 삼아가지고 청석골에 들어가서 비로소 살림을 차리게 된다.

황천왕동이도 서른세살이 되어서야 봉산을 백리방의 딸에게 겨우 장가를 들어 살림살이를 하게 된다. 봉산에서 일색이라고 하는 딸을 두고 장기두기로 사위감을 고르고있는 백리방을 찾아가서 병어리시늉과 알아맞추기에서 이기고 그의 딸을 안해로 맞이한 천왕동이의 혼인경위는 유복이와 다르지만 천한 신분과 생활고때문에 혼기가 훨씬 지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결혼을 하게 된 가난하고 천대받는 하층민민의 고달픈 신세에서는 다를바가 없다.

결혼생활에서 겪은 팍오주의 불행과 고통은 이를테 없다. 금교역말 정첨지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있던 오주는 스물다섯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있다가 정첨지의 주색즐기는 외아들이 몰래 엮어온 과부를 데리고 살게 되었으나 몸이 약한 안해가 살림을 시작한지 일년이 못되어 산후병으로 죽자 또 홀아버의 신세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그는 안해가 죽은 다음 갓난애기에게 젖을 얻어먹일수가 없어 피덩이 아들에마져 죽여버리는 비극을 빚어낸다.

소설에 묘사된 주인공들의 이처럼 비참한 생활과 각박한 처지는 하층근로인민들을 도란속에서 신음하게 만든 조선봉건왕조사회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대한 고발로 된다. 리봉학이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다른것은 모르네만 이 세상이 망한 세상인것은 남보다 잘 아네.》라고 한 림격정의 말은 주인공들이 자신의 쓰라린 생활체험을 통하여 사회적모순을 알게 되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의 헤어날길 없는 참혹한 생활처지가 그들로 하여금 《화적》으로 될수밖에

없게 하였던 정황과 계기를 잘 그려냄으로써 봉건사회에서의 농민봉기의 필연성을 예술적으로 천명하였다.

림격정이는 양주군수의 령으로 자기 식구들이 관가에 잡혀가서 갇히고 늙은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앞일을 두고 세갈래의 길을 생각해보았다. 그 한갈래는 식구들이 갇혀있는 옥으로 찾아가서 멀리 극변이나 원악도로 추방되는 길이고 또 한갈래는 식구들을 버리고 정치없이 떠나가는 길이며 마지막 한갈래는 식구들을 옥에서 빼어내가지고 청석골로 들어가서 《도적놈》으로 일생을 마치는 길이었다. 걱정이는 이 세갈래길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도적놈〉의 힘으로 악착한 세상을 뒤집어엎을수만 있다면 림격정은 벌써 〈도적놈〉이 되었을 사람이다. 〈도적놈〉을 그르게 알거나 미워하거나 하지는 아니하되 자기가 늦깎이로 〈도적놈〉되는것도 마음에 신신치 않거니와 외아들 백손이를 〈도적놈〉 만드는데 더욱 마음에 싫었다.》 이것이 그때 림격정의 착잡한 심정이었다.

림격정은 좀처럼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결단을 내려 박유복이와 서림의 도움을 받아 자기네 내막을 관가에 밀고한 최서방을 복수한 다음 옥에 갇혀있던 식구들을 건져내어 청석골로 데리고 들어가서 《화적》의 대장이 되는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적놈》, 《화적》은 농민봉군을 말하는것으로서 봉건시기의 악착한 사회현실에서 농민을 비롯하여 머슴, 역졸, 종, 백정 등 착취받고 천대받는 하층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이때 조선팔도에 도적이 없는 곳이 없으되 그중에 황해도가 우심하였다. 황해도일정은 변동도적의 소굴이었다. 황해도민심이 타도보다 사나우나 하면 그런것도 아니고 황해도량반이 타도보다 드세나 하면 그런것도 아니고 또 황해도관원의 탐학과 아전의 작폐가 타도보다 더 심하나 하면 그런것도 아니건만 황해도백성은 량순한 사람까지 도적으로 변하였다...

소설에서는 조선팔도중에서 《도적》이 제일 우심하였던 황해도형편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면서 량순한 백성을 《도적》으로 만들게 한 가장 큰 폐단으로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각종 명색의 공물의 진상과 수자리를 사는 무거운 부담이라고 하였다.

림격정이고 그의 의형제들이 《화적》이 되어 청석골에서 폭동군을 못게 된것은 당시의 혼란된 사회현실과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하층민들의 치솟는 반항심의 구체적표현이었다.

소설에서는 봉건시기 봉건통치배들이 봉기자들

을 《도적》이라고 하였지만 진짜도적은 림격정이고 그의 의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인것이 아니라 근로인민들의 고향을 찌내어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량반관료들이라는것을 밝히었다.

림격정이가 서울에서 기생 소흥에게 자기의 신분과 정체를 밝히고 《내가 도둑놈이 되구싶어 된것은 아니지만 도둑놈된것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네, 세상사람에게 만분의 일이라두 분풀이를 할수 있구 또 세상사람이 범접못할 내 세상이 따루있네. 도둑놈이라니 말이지만 참말 도둑놈들은 나라에서 록을 먹어 기르네. 사모쓴 도둑놈이 시굴 가면 골골이 다 있구 서울오면 조정에 득실득실 많이 있네.》라고 한 말은 량반관료통치배들에 대한 솟구치는 증오심의 표현이며 그들의 죄악에 대한 날카로운 폭로규탄이다. 봉건통치배들을 《사모쓴 도둑놈》으로 략인한것은 얼마나 예리하고 신랄한 단죄이며 비판인가.

소설에서는 림격정을 비롯한 의형제들이 청석골로 모여들어 《화적》의 대장과 두령으로 되는 생활로정과 그들의 활동정형에 대한 다채로운 묘사를 통하여 계급신분적대립이 극도로 첨예하였던 조선봉건왕조사회의 모순과 부패성, 량반관료배들의 기혹한 수탈과 박해로 하여 하층근로인민들이 반기를 들고 일떠서지 않을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과 함께 림격정폭동군의 활동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었다.

림격정폭동군의 활동에 대한 예술적화폭에서 가장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평산싸움장면이다.

청석골에서 림격정을 대장으로 하여 무어진 폭동군이 황해도일대를 비롯하여 강원도와 평안도에까지 세력을 뻗치고 송도, 서울까지 활동무대를 넓혀나가는데 걸림하고 당황망조하여 폭동군을 진압하려고 날뛰던 봉건통치배들은 림격정폭동군의 종사관으로 있던 서림이의 배반과 고발로 림격정일행이 새로 부임하는 봉산군수를 처단할 계획밑에 평산 마산리 리춘동이네 집에 모인다는것을 알고 그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선전관 정수익을 파견한다. 그러나 림격정일행은 정수익이 용맹과 무예로 출중한 오위부장 연천령과 리의식을 데리고 평산과 봉산에 가서 평산부사 장효범, 금교찰방 강령, 봉산군수 리흠례 등과 함께 500여명 군사들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데 몇명 안되는 인원으로 대항하여 용맹스럽게 싸움으로써 관군에게 20명 가까운 사상자들을 내게 하면서 자기 편에는 한사람의 손실도 내지 않고 무사히 청석골로 돌아온다. 평산싸움에서의 림격정일행의 승리는 폭동군의 위세를 떨치고 부패무능한 봉건량반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소설은 평산싸움이 있는 다음 림격정폭동군이

근거지를 자모산성으로 옮기는 대목에서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또 한차례의 큰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펼쳐질수도 있겠다고 짐작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고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였는가 하는것을 알수 없는것은 아쉬운 일이다.

소설에서는 립격정, 서림을 비롯한 인물들과 평산싸움을 비롯한 립격정폭동군의 일련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면서 예술적 허구와 창조적환상을 분방하게 활용하여 생활내용이 풍부하게 묘사함으로써 형상의 역사적구체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였으며 생동하고 진실한 사실주의적화폭을 통하여 봉건시기 하층근로인민들의 생활처지와 사상감정, 투쟁정형을 방불하게 재현하고 계급신분적모순이 착잡하고 첨예하게 얹혀 당대 사회현실의 악착성과 병폐를 여러모로 날카롭게 폭로비판하였다.

력사적사실에 대한 풍부한 재현, 향토적인 정취가 풍기는 생활세태풍속과 자연에 대한 생동한 묘사, 구수한 이야기식의 묘사방식과 민족어의 다채롭고 능숙한 구사 등은 소설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형상과 생활화폭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민족적특성을 두드러지게 구현하게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

장편력사소설 《립격정》은 민족적정서가 짙은 진실한 사실주의적화폭을 통하여 력사적과거의 사회현실과 인간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 주고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감명깊게 밝혀낸것으로 하여 광범한 독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인민들속에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높이고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항거의식을 북돋아주는데 일정하게 이바지하였다.

주체 28(1939)년 12월 31 일부 《조선일보》에 이미 신문에 련재된 부분과 앞으로 발표될 부분을 합하여 장편력사소설 《립격정》전 8권이 단행본으로 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리기영은 《이 <립격정>은 방대한 량과 아울러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력사소설로 추거하기에 누구나 주저치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은 교훈적 의미에 있어서도 그 어느 책에 볼수 없는 시대량심이 번득이여 독자의 마음을》 찌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욱 그의 풍부한 어휘와 지리의 소상함》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누구거나 조선사람으로서 다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리기영의 이 말은 장편력사소설 《립격정》에 대한 당시의 문학과 독자층의 반향을 대변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장편력사소설 《립격정》은 인간성격과 생활에 대한 예술적전형화에서 일정한 부족점도 발로시

켰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립격정을 비롯한 의형제들의 성격과 생활에 대한 형상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립격정은 폭동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데서 똑똑한 포부나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있지 못한것으로 형상되었다. 그러다나니 립격정폭동군의 활동은 량반관료배들을 골탕먹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내며 관군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치고 착취받고 억압받는 근로인민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로 지향되지 못하였다.

또한 소설에서는 립격정을 인품과 풍채, 용맹과 무술에서 뛰어나면서도 때로는 분별없고 무지막지하게 행동하는 조폭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서울에 가있는 동안에는 세 첩을 거느리고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근거지의 안전과 폭동군의 운명에 대하여 무관심한것으로 그리었다. 이밖에도 작품에는 아무런 의의도 없는 무의미한 대목과 장면들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것은 폭동군대장으로서의 립격정의 성격과 폭동군의 활동에 대한 전형화에 손실을 준 심중한 약점이다.

립격정을 비롯한 주인공들의 성격형상과 폭동군의 활동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함은 작자의 세계관과 사상미학적견해의 제한성과도 무관계하지 않겠지만 주요하게는 일제의 탄압과 박해에 대한 고려와 관련되는것이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립격정》은 일정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있지만 백정, 머슴군, 역졸, 종을 비롯한 가난하고 천대받는 근로인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봉건량반통치배들의 가혹한 수탈과 학정을 반대하여 일떠선 폭동군의 활동을 방대한 서사시적화폭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재현한 민족수난기의 우수한 문학작품으로서 그 사상예술적성과와 인식교양적의의로 하여 해방전 조선근대현대문학의 귀중한 유산의 하나로 된다.

우수한 문학작품은 세월의 흐름속에 묻혀버리지 않고 자기의 생명력을 오래도록 유지해나가며 그 주인공들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은 인상을 새기며 살아있게 된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주체적인 문예정책에 의하여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립격정》이 원전 그대로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우고있을뿐 아니라 독자대상에 맞는 여러가지 형식의 도서로 발행되고 예술영화로 각색되어 광범히 보급됨으로써 인기있는 문예작품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립격정을 비롯한 주인공들은 인민들의 인상에 남는 등장인물들로 되고있다.

## 작가소개

# 너류소설가 강경애

해방전의 진보적이고 재능있는 너류소설가인 강경애[1906-주체 33(1944년)]는 황해남도 송화군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출생하여 5 살때 아버지를 잃고 이북아버지밑에서 주립과 멸시, 설음 속에서 자랐다.

작가는 7 살때 고향을 떠나 장연으로 왔으며 10 살이 지나서야 겨우 소학교에 입학하였다. 글을 배우자 소설책들을 많이 읽었으며 이야기를 잘하여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다. 18 살에 평양송의녀학교에 입학하여 선진사상도 습득하고 문학습작도 하였다. 3학년때 동맹휴학에 나섰다가 출학당하고 농촌야학에서 글을 가르치는 한편 독서와 습작에 열중하였다.

주체 18(1929)년에 간도에 들어가 중국 룡정일대에서 립시교원 등을 하다가 주체 20(1931)년에 고향에 나왔으며 다음해에 다시 룡정으로 들어가 가사를 돌보면서 창작활동을 벌렸다.

신병으로 주체 28(1939)년에 고향에 와있다가 사망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겪은 수난의 생활체험과 항일혁명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간도지방에서의 생활은 그의 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작가 강경애는 처음부터 무산대중의 편에 서서 창작활동을 벌렸으며 프로레타리아소설문단에서 뚜렷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장

편소설 《인간문제》 [주체 23(1934)년]를 비롯하여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 [주체 21(1932)년], 중편소설 《소금》 [주체 23(1934)년]. 단편소설들인 《부자》 [주체 21(1932)년], 《그 여자》 [주체 20(1931)년], 《채전》 [주체 22(1933)년], 《축구전》 [주체 22(1933)년], 《모자》 [주체 24(1935)년], 《원고료 200 원》 [주체 24(1935)년], 《해고》 [주체 24(1935)년], 《번뇌》 [주체 24(1935)년], 《지하촌》 [주체 25(1936)년], 《산남》 [주체 25(1936)년], 《어둠》 [주체 26(1937)년], 《마약》 [주체 27(1938)년] 등과 적지 않은 수필들이 있다.

작가 강경애는 이 작품들에서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착취받고 압박받는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과 비극적인명을 깊은 동정을 가지고 묘사하였으며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증오심과 항거의식을 형상하였다. 그는 피압박, 피착취인민대중을 가장 선량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인간들로 그렸으며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착취제도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작가 강경애의 소설은 세부묘사의 구체성과 심리묘사의 섬세성 그리고 구성의 치밀성과 여운있는 결말, 간결하고 생동한 언어표현으로 특징지어진다.

올해는 강경애의 출생 100 년이 되는 해이다.

## 가사

# 철령으로 갑니다

최주원

우리 탄 렬차를 바래워주며  
가는 곳 어딘가고 사람들 묻네  
병사의 군복입고 갈곳 많아도  
나는 대답했네 철령으로 갑니다  
아 장군님 오늘도 넘으시는 령  
그이의 가까이 나는 갑니다

경례를 받아다오 나의 고향아  
네 품을 떠나는 아들의 맹세를  
피끓는 심장의 말 하나로 합쳐

나는 대답했네 철령으로 갑니다  
아 장군님 오늘도 넘으시는 령  
최전연초소로 나는 갑니다

총잡은 청춘의 값높은 자리는  
성스런 조국수호 최전연초소  
장군님 걸으시는 그 자욱우에  
금별의 위훈을 새기렵니다  
아 장군님 오늘도 넘으시는 령  
내 한생 최전선병사로 살리



## 욕망, 고민, 교훈 ... (1)

###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을 창작하고-

허문길

독자들은 흔히 작품에 못지 않게 작품창작과정에 있었던 작가의 고충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다.

나 역시 문학에 뜻을 둔 때로부터 문학잡지와 신문에 실리는 선배작가들의 창작경험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거기에서 배우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막상 자기에게 창작경험을 써달라는 편집부의 부탁을 받았을 때는 당황하고 겁이 나기까지 하였다.

나는 이미 《문학신문》에 단상에 가까운 토막 이야기도 내놓은바도 있어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4 부에 걸치는 큰 작품을 내놓고 그쯤의 이야기로 독자들이 성차하겠는가?》

《조선문학》잡지편집부의 이러한 채찍질과 고무에 떠밀려 다시 펜을 들기는 하였으나 지금도 솔직한 말로 걱정이 앞선다.

## 1. 펜을 들기 전의 이야기

《어떻게 되어 이런 소설을 내놓게 되였는가?》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물어본다.

무릇 창작가의 펜은 그 어떤 외적인 자극에 의하여 환기된 내적인 충동에 떠밀려 움직이는 것이 상례라 한다. 그러나 나는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의 창작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명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은 창작동기가 없이 만들어졌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이상 미룰수 없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만년을 무릅쓰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분열의 비극의 력사,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야 한다.》**

나는 우리 인민모두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하나로 묶어내고싶은 열망에서부터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을 창작하게 되였다.

좀 허망한 소리같지만 이렇게밖에 달리는 대답할수 없다.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의 열성에독자

가 되어 매 부마다 지나친 격찬이 담겨진 장문의 독후감을 보내온 평안북도 피현군의 칠순이 넘는다는 로인이 한번은 이렇게 편지로 문의해왔다.

《필자의 고향이 남쪽인것 같은데 딱히 어느곳인가? 지금도 그곳에 부모형제가 있는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것은 남쪽태생이기때문에 통일외지와 갈망을 비교적 절절하게 묶어냈다는 의미일것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을 보내주었다.

《남녘이 나의 고향과 다를바 없고 그곳의 동포들이 나와 한피줄을 이은 <배달>의 후손들이 아님니까.》

사실 우리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분열된 조국의 비극과 설움을 아프게 삼키며 살아오고있다.

어릴적부터 나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내가 소학교를 다닐 때에 아래마을에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 동해고급중학교(당시)에 리제현이라는 지리산빨찌산출신의 미모의 처녀교원이 있었다. 16 살의 소녀의 몸으로 빨찌산련락원으로 싸웠다고 했다.

리제현선생은 나의 만형님의 담임교원이였고 나의 삼촌어머니와는 동갑나이로 같은 합숙에서 지냈던 관계로 나도 그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내가 군대에 나갈 때까지 리제현선생은 시집을 가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청혼을 마다하는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혔다.

빨찌산시절에 언약을 나는 남녘의 애인을 기다린다는것이였다. 《이제라도 통일이 돼서 그 동무가 총각의 몸으로 나타나면 내라는 녀자는 뭐가 되는가?》

내가 보람찬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그때까지도 그는 처녀의 몸으로 여전히 합숙생활을 하고있었다.

그때는 나도 철이 든 시절이 됐은즉 사제간의 관계를 뛰어넘어 제법 어른스럽게 권하였다.

《선생님, 더 세월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만큼 기다려주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진심의 권고에 선생님은 금시 눈굽에 물기가 핑해지면서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나타나 나를 찾으면... 7.4 북남공동성명도 나왔으니 이제 통일이 될게 아니야.》

그때가 력사적인 7.4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된 다

음해인 주제 62(1973)년이었다.

옛 지리산뽕찌산의 소녀련락원은 이렇게 평생을 통일의 날에 있을 애인과의 상봉을 애절하게 기다리다가 끝내 홀몸으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생의 마지막시각에도 애인을 그리보았을 선생님의 그 눈물겨운 심정을 어찌 조선녀성들의 고결한 정조관념으로만 해석할수 있으랴.

어느해인가 꽃다발을 안고 선생님의 묘소를 찾아간 나는 치솟는 용암과도 같은 격노를 폭발시킨 어느 한 시인의 시를 생각하며 통탄의 눈물을 상돌우에 날렸다.

스물도 되기 전에 떠나온 집을  
서른이 넘어서도 못간다면  
이 총창은 무엇때문에  
내가 쥐고있느냐

...

경상도가 고향인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결을 떠나시던 날  
두고온 만이와 셋째의 이름을  
슬피 불렀다

(나는 《력사의 대결》의 서문을 이 시구로 시작하였다가 소설의 사상과 주제를 집약화할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그만 두었다.)

이것은 남녘에 고향을 둔 분들의 이야기이다.

내 고향의 옆집 할아버지는 고향마을의 본토배기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중앙기관 부원으로 배치받아가지고 휴가차로 집으로 갔을 때였다.

저녁식사초청을 받고 옆집에 갔는데 팔순에 가까운 할아버지가 대통의 담배진을 뚫이다가 심중한 안색으로 나의 손목을 꼭 잡는것이였다.

《이보게, 이제 중앙의 <큰 간부>가 됐은즉 뭐 좀 알겠지?》

내가 너무도 정중한 어조에 긴장해지는데 로인이 꺼낸 말이 가슴을 쳤다.

《조국통일이 언제쯤 될것 같은가?》

내가 쉬이 대답을 못하자 로인이 침통한 기색으로 가슴이 꺼질듯 긴 한숨을 내쉬는것이였다.

《어휴, 나도 통일되는걸 보지 못하고 죽는가봐. 후- 미제가 원쑤지 ...》

이 땅의 북과 남에 사무친 겨레의 이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시려 거룩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도 조국통일에 대해 크게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한몸에 안으시고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헤쳐가시는 우리 장군님!

참으로 조국분열이 가져온 슬픔과 한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에 피뭍이 되어 박혀있다.

우리는 제 13 차세계청년학생축전때 사선을 헤쳐온 남조선의 《전대협》대표가 텔레비죤화면에 나올 때면 눈물부터 앞서군 하였다.

-통일! 통일! 아,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가슴과 가슴을 치는 우리 인민모두의 한맺힌 부르짖음이다.

삼천리강산을 진동하는 7 천만겨레의 통일대합창이 세기를 넘어 더욱 거세여지고있다.

나는 이 장엄한 민족의 대합창에 나의 목소리도 합치고싶었다.

작가는 력사의 대변자이며 생활의 선도자이다. 그에 앞서 작가는 시대가 부여한 과제를 짊어진 민족의 한 성원이며 력사의 담당자이다.

하거늘 우리 시대에 사는 작가로서 강토를 진감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합창에 비록 가늘어도 제 목소리 합치지 못한다면 그 누가 후날에도 이 시대에 필봉을 버렸던 작가라고 기억해주겠는가.

쓰자! 써내야 한다!

그러니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은 나의 어린시절부터 시작된셈이다.

나의 열망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싸운 우리 주인공들인 원형인물들의 생사를 접하면서 현실적인것으로 굳어졌다. 그들이야말로 조국통일을 위한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한가슴에 안고 산 통일운동의 첫 세대, 불사신들이었다.

작가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감정, 자기의 리상을 체현시킬수 있는 전형적인 성격을 발견하게 될 때 비상한 창작적령감에 휩싸이게 되며 번뜩이는 환상에 끌려 붓대를 달리게 된다.

나는 배심을 든든하게 가지고 신들매를 단단히 조였다.

쓰자, 써내고야말것이다. 욕망도 욕심도 컸다.

주인공의 지위와 격에 맞게 폭도 넓고 심도도 깊고 지성미가 넘치는 대서사시적인 작품을 써보자.

위대한 생애를 조국통일에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담아보자. 분열로 인하여 강토에 뿌려진 겨레의 피와 눈물과 땀을 량껏 담아보자.

어제날을 통하여 미래를 펼쳐볼수 있도록 우리의 통일운동에 경험도 주고 교훈도 주고 정치도 철학도 있고 눈물도 웃음도 있는 특색있는 작품을 내놓자. 그리고 통일에 대한 애통한 그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의 피맺힌 사연도 애끓던 소원도 통분도 다 묶어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자.

나는 이렇게 한껏 욕심을 부려보았다. 하기는

만사가 그리하듯 목표가 높아야 달리는 속도도 보폭도 커지는 법이다.

하루에 백리를 가려는 사람과 십리를 가려는 사람은 마음 잡도리나 걸음새가 다를수밖에 없다.

나는 해방후의 남조선 《정치계》를 통채로 주물러보며 통일운동의 리면사를 그 어느 가지가 아니라 원줄기로부터 정면으로 파헤쳐보리라는 배심을 가지었다. 그런즉 이 소설은 어차피 정치력사소설이 될수밖에 없을것인즉 소설의 형식부터 그렇게 규정하여놓았다.

력사를 좀 연구하면서 보고 들어둔 소리도 두루두루 적지 않으니 나름으로 자신감도 있었다.

쓰자! 써내야 한다! 쓰고싶은 강렬한 충동, 꼭 쓰고야말겠다는 열정이 담을 크게 해주었다.

이렇게 되어 50 여년전에 첨예하게 벌어졌던 《력사의 대결》은 원고지우에 재현되기 시작하였다.

## 2. 정치력사물소설에서의 진실과 허구문제

《제일 큰 고충은 무엇이였는가?》

독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제목으로부터 생겨난 고충이었다.》

제목으로부터 생겨난 고충이라니?...

자기가 달아놓은 제목이 어떻게 집필단계에서 자기를 구속하고 제일 큰 고충을 낳게 하였는가.

《력사의 대결》. 얼핏 읽고나면 뜨아해지게 하는 제목이다.

하긴 이 책을 텔레비죤극으로 각색하겠다고 나선 작가도 《력사의 대결》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대결》이라고 달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소설의 주인공이 미국대사 무쵸에게 던진 한토막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풀이하여보자.

《그렇소. 력사의 대결이요. 100 여년간에 걸치는 당신들의 침략의 력사와 침략을 반대하여온 우리의 애국의 력사간의 대결이란 말이요.》

이 대사를 찬찬히 음미하여보느라하면 어째서 작품제목이 《력사의 대결》이 되어야 하는가가 어렵지 않게 안겨올것이다.

바로 이 제목에 종자도 있고 줄거리도 있고 시대도 있으며 인물성격들도 갈등도 작품의 총체적인 양상까지 다 있다. 때문에 나는 이미 세상에 나간 《력사》라고 이름 단 소설작품들을 쓴 작가들이 노여워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안한대로 굳이 이 제목을 고집하였다.

제목은 나에게 여러가지 문제들을 규정하여놓

았다.

《력사의 대결》을 펼쳐보려면 어차피 나는 미제국주의 현지두목들과 남조선의 통치계를 통채로 쥐고흔든 인물들을 형상해야 하며 당시의 시대모습을 정면에서 전면적으로 파헤쳐야 하였다. 제목이 선정됨에 따라 나는 두가지 선택을 하였다

첫째, 조국의 통일력사를 새겨가는 주인공과 그의 전우들과 그리고 그들과 대치되어 미제의 조선침략야망을 현지에서 직접 수행한 인물들과 그놈들의 품에 기여들어 권력과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대매국노들을 이름그대로 혹은 원형인물에 기초한 인물들로 선정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인물선택은 《력사의 대결》의 력사적가치와 진실성을 담보하는데서 옳은 선택이기도 하였지만 이로 인한 창작적고민과 부담은 끝으로 컸다.

무엇보다도 큰 고충은 력사에 실재하였던 인물들 특히 두드러진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경우 작가는 그들의 사회정치생활과 인격, 경력을 자기 작품의 생리에 맞게 마음대로 변형시킬 권리가 없다는것이다. 이것이 소설의 창작과정에 빈번히 부닥쳐야 했던 가장 큰 난관이고 품을 들이고 고심을 해야 했던 고충이였다.

나는 애초에 작품을 구상하면서 장차 소설을 남조선사람들도 보게 될것이며 우리의 후대들도 보면서 조국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를 생각하게 하도록 하고싶었다.

사실상 소설의 1, 2, 3 부가 나간후 이에 대한 남조선독자들의 반응이 전해져왔다. 그러므로 나는 구상단계에서부터 인물형상에서 책임의식의 구속을 받아야 했으며 공명정대하게 실재한 인물들을 그려내야 하였다.

여담삼아 작품의 1, 2 부가 나간 뒤의 후일담 하나를 솔직히 털어놓겠다.

어느 한 할머니는 이 책을 보고나서 책을 던지기까지 하면서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리유인즉 자기 남편으로 추측되는 인물에 대한 묘사지면이 다른 인물들에 비하여 너무 적다는것이였다. 나는 그 말을 전해듣고 《누굴 얼마나 쓰는가 하는것은 작가의 고유권한이랍니다.》하고 웃음으로 대답을 보내주었지만 결코 그저 웃어버릴수 없어 4 부에 다시 등장시키기까지 하였다.

긍정인물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진대 부정인물들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가 이름그대로 내세우면서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분칠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작가는 《그건 소설이요. 허구의 산물이란 말이요.》 하는 단마디로 그들의 엄격한 추궁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를테면 역사물주제소설에서 작가는 먼 후날에도 자기가 등장시킨 인물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랑심과 례의와 최대의 공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가지 사회정치적고려도 하면서 신중하게 인물들을 다루어야 하였다.

여기에 고민거리가 덧쌓인다. 실재한 인물을 그대로 그려놓는다면 그건 소설이 아니라 실화이다.

작가의 환상이 없고 허구가 없는 글은 소설이 될수도 없고 독자들의 공감을 받을수도 없다.

실재한 인물들을 그대로만 보여준다면 독자들에게 인식적인 가치는 제공할수 있어도 필자의 의도가 문학화된 이야기의 인물로는 될수 없다.

오늘의 독자들은 작가의 머리속에서 만들어진 가상적인 인물보다 실재한 인물에 더 호기심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돌부처처럼 굳어졌거나 개념화된 성격, 작가의 손때가 묻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아 매력이 없는 인물은 바라지 않는다.

작가는 마땅히 허구라는 작가의 권한을 가지고 주인공의 운명선을 둘러싸고 제가꿈 문학적과제를 받아안은 인물들로 개성화, 전형화하여야 하며 양상한 이야기에 좁과 향기를 돌게 하여 문학적 이야기로 재창조해야 한다.

그러지않아도 작품의 1 부가 나간뒤 나는 작품에 문학적인 줄거리가 허약하다는 비난을 듣기도 하였다.

지금도 나는 독자들속에서 어느 인물이 진짜이고 어느 인물이 허구적인물인가 하는 질문도 받곤 하는데 소설에서 새롭게 탐구된 인물은 례영, 길철, 권혜숙, 문진국, 권영호 등이었다.

그러나 김명호, 김승원. 마동열, 김아성, 안지생, 김구, 리운형, 송호정, 방대광. 민순임 등 긍정인물들과 하지, 브라운, 노불, 리범석, 리승만 등 실재했던 부정인물들도 허구의 도움을 받아 개성화, 전형화라는 성격창조의 러파기를 걸쳐 완성된 인물들이다.

물론 주인공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둘째로, 나는 다부작소설의 정치력사물로서의 양상을 살리고 력사적인 인물들을 진실하게 성격화하기 위하여 실재한 력사적사실들과 자료들을 더 많이 탐구하여 그를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소설이 첫 선을 보였을 때였다.

첫 독자들 특히 지식인들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다.

《두루두루 적어놓을게 많수다.》

귀맛좋은데도 있었지만 뭘 적어놓는다는걸가? 자료의 범람?... 나는 뒤꼍이 개운치 않았다.

사실 1 부의 초고를 보고 어느 한 창작지도일군이 이에 대하여 붉은 신호등을 켜준바도 있었다.

《정치를 지내 봤수다. 정치냄새가 너무 나꺼넌.》

난 즉석에서 이렇게 답변하였다.

《이 작품의 토양은 정치다. 농민이야기에서 흙냄새를 피하면 농민이야기가 나오는가.》

나는 소설구성단계에서 《력사의 대결》의 정치력사물의 양상을 옹게 살리기 위하여 력사의 흑막에 묻혀있거나 이미 공개된 력사자료들도 될수록 많이 내놓으려고 하였다.

그러자면 시대의 소용돌이속에 파편처럼 날려간 하많은 사료들을 찾아내어 그중에서 시대와 그 시대인물들의 성격적본질을 드러내는 세부들을 선택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결심은 옹았지만 창작실천에서는 고충이 컸다. 왜냐하면 독자들에게 꼭 전해야 할 자료라 하여도 그것이 작가가 제기한 소설의 주제와 문학적인 이야기에서 제멋대로 탈선이 되면 군더더기가 되고마는 까닭이다. 어떤 경우에도 소설에 삽입되는 사료들은 인물의 성격화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사건을 련결시키기 위한데로 지향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내가 새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내판에 세워놓는 지론 하나가 있다.

《시간을 쪼개가는 이 시대에 수십시간이나 빼앗기는 장편소설 한권을 다 읽고나서 머리에 남는게 인물들만이라면 너무 비효률적이다. 그 수십시간은 응당히 인간을 배우고 생활을 배울뿐 아니라 자기 지식의 창고를 채우는데도 리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과 장편소설들인 《높새바람》, 《높은 목표》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정독하였다.

나도 자신이 쓰는 모든 작품들에서 어떻게 하든지 독자들에게 지식의 창고에 하나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인식적가치가 있는 이야기나 하다 못해 고담, 성구, 과학상식 등을 하나라도 인상적으로 심어주느라고 하였다. 소설에서 읽어보는 그런 이야기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역시 동감이다.

나는 소설의 1 부만이 아니라 4 부까지 동요없이 여전히 력사적사료를 가능한껏 채워나갔다.

그런데 력사속에 성격이 파묻히면 야단이다.

그릴바엔 독자들이 력사책을 들게 하는것이 훨씬 리로울것이다. 그러므로 사료는 철저하게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살리고 작품의 전반적인 문학성을 살리며 지성도를 높이는데로 지향시켜 문학적이야기로 승화될 때만 가치있고 독자들의 뇌리에도 인상적으로 새겨지는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작가의 허구와 환상이 있어야 하는바 이것이 바로 사료를 다루는 작가의 몫일 것이다. 1 부에서 나는 려운형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후 서울청년들앞에서 수령님 만세를 높이 부르는 사료를 리용하였다.

나는 이 사료를 정시명이 그의 실책을 호되게 질책하는 자리에서 꺼내놓음으로써 두 인물의 성격을 교차시키고 사료자체도 전달되도록 하였다.

2 부에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가 진주만에 대한 일본군의 기습정보를 깎아버렸다는 일화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엮어놓는다면 독자들의 감흥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형상적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지가 자기의 사단장 브라운에 대한 제놈들의 암살작전비밀을 입수하고도 본인앞에서 아닌보살을 해야 하는 극적인 상황에서 그의 시점을 통하여 슬쩍 공개하여놓음으로써 인식적인 효과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발가놓는데 일정한 문학적효과를 본것 같다.

민족성을 잃은 탓으로 조선사람인 서재필이 영어로 축사를 하고 미국사람이 조선말로 통역해주었다는 만화적인 일화도 나오는데 작품완성단계에서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상정되었다. 그냥 두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왜 지나간 력사에 묻혔던 이야기가 서재필을 성격화하는것도 아닌데 필요하였겠는가.

원래 문학적세부란 성격화와 사건연결이라는 두가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듯이 작품에 삽입되는 삽화적인 이야기도 시대를 보여주는것과 함께 인물의 성격화에 이바지되어야 의의가 있다.

나는 서재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음으로써 당대의 사대매국도들의 추악하고 희비극적인 몰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이야기를 꺼내어 회회락락거리는 하지와 미제의 고위인물들의 몰골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결국 력사일화가 문학적인 이야기로 되어준것이다.

아마 이 량자중에서 한쪽 측면이 무시되었다면 뽀아던지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을것이다.

나는 력사적사료도 문학적인 줄거리속에 용해되어야지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독자들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며 어디까지가 허구인가 하는 질문들을 받곤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소설에서 허구는 작가의 권한이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작품의 우열이 결정된다.

어느 한 독자는 나더러 참 기막힌 자료까지 캐냈다고 하면서 김구와 리승만이 하지를 위해 차린 밥상자료는 어디서 알아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런 일도 있었지.》하고 웃어보였지만 고백한다면 그 밥상들은 실상 작가가 《차린》 밥상들이다. 그 독자가 나의 고백을 들으면 작가가 력사소설에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고 눈을 흘길수 있겠지만 나는 《거짓》말도 사실처럼 아니 사실보다 더 실감이 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게 작가이고 력사소설도 소설이라고 선뜻 대답하여줄것이다.

나는 평론가들도 좋게 분석해준 김구와 리승만의 밥상이야기를 어느 한 그림책에서 찾아냈다.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 초청해서 상대가 리용할수 없는 접시와 병에 먹을것을 담아 대접했다는 이소프의 우화이다. 어릴적에 책에서 본 이야기를 그림책을 통해 다시 보니 접시와 병과 거기에 담겨진 음식에 두루미와 여우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여기서 나는 고목(리승만)의 뿌리와 거목(김구)의 뿌리를 헤쳐보일 밥상세부를 만들어낼수 있었다.

나는 소설을 쓰면서 지나간 력사를 재현해야 하는 작품일수록 작가의 환상력이 더욱 발동되어야 하며 허구를 숨씨있게 만들어 재간껏 활용해야 한다는것을 더욱 실감하였다.

소재가 좋다고 좋은 소설이 되는것이 아니며 소재가 신통치 않다고 수준이 낮은 소설이 되는것도 아니다.

평범한 생활속에서 평범치 않은 성격을 창조해내는 선배작가들과 동시대작가들의 재능과 기교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교훈적이다.

좋은 소재에 매달려 훌륭한 소설을 쓰려고 하는것은 보약만 먹고 살찌보겠다는 어리석은 궁냥이다.

훌륭한 장수에겐 식칼도 장검으로 되지만 졸장 부에게는 장검도 한갓 쇠붙이로 되고만다는 옛성인들의 격언이 있다.

명필가는 필목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도 다시 새겨보고싶다.

### 3. 다부작소설에서 감정조직

소설의 3부가 독자들의 손에 들어간 뒤에 있는 일이다. 하루는 친구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매우 조심스럽게 문안을 하고나서 말투가 달라졌다.

《선생님, 권혜숙이를 왜 죽였습니까? 그것도 임신한 녀자를...》

내가 인차 대답을 못하는데 부인이 간곡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한가지 청을 드리랍니까? 혜숙이를 다음부에 살려주십시오. 작가들이야 죽이는 재간도 있고 살리는 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탁이 하도 진심에 겨운것이어서 나는 반  
승낙을 하는수밖에 없었다.

참 야단이였다. 그런데 이 비슷한 부탁을 나는  
이미 두세번 받은바가 있었다.

내가 쓴 소설들을 놓고 비난을 주저없이 신랄  
하게 해서 이따금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당  
돌하기 그지없는 조카딸이 어느날 나타났다.

그는 3 부를 보고난 이야기를 하고나서 《삼촌,  
나빠요. 왜 혜숙이를 죽였나요. 작가들은 독자를  
울리는게 재미나는 모양이지요.》하고 들이대는것  
이었다.

《애, 나도 울면서 썼다. 죽이고싶어 죽인줄 아  
니?》하고 내가 대꾸하자 그애는 《아니 삼촌도 울  
면서 썼나요? 어쨌든 살려내라요.》

내 소리에 그는 눈이 동그래졌다.

《삼촌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나서도 조카딸은 아쉬운 표정을 좀처럼  
지우지 못했다.

조카딸의 모양을 한참 바라보다 나는 《좋다.  
그렇게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타협하는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후 나는 4 부를 쓸 때 권혜숙을 살려볼  
가 하는 생각도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권혜숙  
의 최후가 비교적 괜찮게 된것 같기도 하다.

소설의 3 부를 완성할 때 한 일군도 그 장면에  
서는 자기도 눈물을 금할수 없더라고 하면서 권  
혜숙의 일기대목은 원고매수에는 구애되지 말고  
욕심껏 더 써보라고 권고하였다.

사실 나도 조카딸에게 고백한것처럼 소설의 3  
부에서 권혜숙의 일기를 쓸 때에도 교정지를 볼  
때에도 어쩔수 없이 홀로 울었다. 작가가 울면서  
쓴 글이니 독자들도 울었을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눈물을 흘렸다고 독자들도 다  
눈물을 흘리게 될가?...

집필단계에서 작가가 체험하는 감동이 어떤 경  
우에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들의 감정  
으로 옮겨지게 되는가 하는것이다.

소설에는 인물들의 최후장면이 적지 않게 장면  
화되어있다.

나는 긍정인물들의 최후를 그럴 때면 자기도  
모르게 울곤 하였다. 2부에서 자결한 박영수의 영  
웅적최후를 그럴 때에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  
다.

샌님과도 같은 인간, 부자집에서 도련님으로  
아무런 풍파없이 살아오다가 주인공을 따라 통일  
운동의 길에 나선 인간이다.

애국자들에 대한 반동들의 잔인한 고문행위를  
목격하다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까무라칠 정도로

마음의 대가 연약하기 그지 없는 인간, 자기는  
놈들의 고문을 이겨내지 못할것이라고 자신의 박  
약한 의지를 통탄하다가 자결이라는 혈치 않은  
최후를 과감하게 결심하는 그 정의로운 인물의  
죽음을 작가가 어찌 땀담한 심장으로 심상하게  
그릴수 있으랴. 자결이라는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박영수의 최후는 본명 그대로 나오는  
실재한 인간의 실재한 사실이였다. 아마 박영수  
렬사는 통일운동사에서 투신자결로 지조와 신념  
을 지킨 첫 대렬의 인물일것이다. 확실히 지금도  
나는 박영수의 최후장면을 다시 읽을 때면 품을  
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책이 나간뒤 박영수의 영웅적최후앞에  
서 독자들은 권혜숙의 최후와는 달리 엇갈린 평  
가를 보였다.

평론가들도 감동적이더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  
면 작가의 고심은 느껴지나 렬사의 희생앞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솔직한 비난도 나왔다.

그러니 감동이 덜 간다?...눈물없이 보았다? ...  
작가의 의도를 무색케하는 평가이다. 작가는 울  
면서 썼는데도...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작가는 마땅히 섭섭해하지  
말고 감동적이였다는 평가보다 감동이 덜 가더라  
는 평가를 받아들여 그 이유를 캐서 교훈을 찾아  
야 하는것이다.

어째서 작가는 눈물을 흘리며 썼는데 독자는  
눈물없이 읽었는가? 결국 작가의 눈물이 곧 독자  
의 눈물로 될수 없다는 소설창작의 중요한 리치  
를 깨우치게 된 좋은 실례이다.

그러면 왜 작가는 감동을 가지고 감동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독자들에게 감동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였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것은 독자가  
눈물을 흘릴수 있도록 감정선이 치밀하게 조직되  
지 못한 사정이 있다. 작가는 감정을 축적시켜주  
지 않고 독자들에게 주관적으로 눈물을 강요한것  
이다.

독자들은 작가가 이 대목은 눈물을 흘려야 할  
대목이라고 아무리 강조하여야 축적된 감정이 없  
이는 절대로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다.

눈물이란 감정의 분출이다. 인간의 가장 예민  
한 감정선이 슬픔이나 기쁨이라는 격렬한 감정의  
분출을 더이상 억누를수 없을 때 솟구치는것이  
눈물이다.

박영수의 최후 그자체는 비장하고 감동적이였  
지만 독자들은 그의 죽음을 애달파할수 있는 시  
공간이 빈약했던 탓으로 감정이 쌓이지 않는 상

래에서 그 장면과 맞닿게 되었다.

물론 1 부나 2 부에서 작가는 독자들의 시선을 줄곧 정시명과 김구, 러운형, 송호정, 박정인 그리고 하지나 브라운, 리승만에게로 안내하여야 했으므로 박영수에게는 독자들과 친숙할 시간과 생활을 줄수 없었다. 1, 2 부의 작품권내에서 사실 박영수의 몫은 보잘것 없었다. 그러므로 독자들에게는 박영수의 과거와 오늘을 잘 알고있는 작가처럼 친근하게 안겨줄수 없었고 그의 최후앞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릴만큼 감정이 축적되지 못하였다.

지금도 나는 박영수를 그렇게밖에 그릴수 없었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변명은 하면서도 후회를 금할수 없다. 차라리 제 2 부에서 박영수를 3 부의 권혜숙과 같은 위치에 세워놓을수 없었을까. 그를 정시명과 김구, 박정인사이의 인물로 만들어 그의 희생의 진폭을 최대한 높게 해줄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후회란 언제나 때늦은 법이다.

박영수와는 달리 2 부까지 선을 보였던 정도의 권혜숙은 3 부에 이르러 심각한 운명의 극을 안고 독자들과 소설의 앞머리에서부터 줄곧 함께 웃고 울며 고민을 한다.

필자도 권혜숙의 예상밖의 결혼식과 뒤에 이어진 친정집나들이, 길철과의 생리별, 례영과의 상면, 동지들에게 보낸 감술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 빨찌산시절 일기 《너를 보는 나의 눈》에 비쳐진 권혜숙 등의 사랑선을 둘러싼 감정선에 실려 권혜숙이와 더욱 가까워졌으며 길철이와 행복한 가정을 맺고 살기를 절절히 갈망하며 그 기쁨의 시각이 가까와지자 혜숙이와 함께 환희에 넘쳤다. 이렇게 길게 깔린 인정선에 실려 감정이 조직되어가다가 한껏 축적된 상태에서 동굴에서의 비정한 최후장면과 맞닿게 된다.

그러니 독자들도 작가와 더불어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감정을 조직한다는것은 달리 해석하면 사랑 혹은 증오를 받도록 인물을 성격화하여 독자들의 미적감정과 정서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나는 감정조직을 매 부마다 따로 설정하곤 하였는데 주인공의 운명선을 놓고서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다부작소설에서 주인공의 운명선을 놓고 매 부마다 감정조직을 달리 해준다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 감정과 성격과 줄거리의 대가 토막이 나고말것이다. 그러므로 정시명에 대한 감정조직은 1 부에서부터 기승전결이라는 봉우리를 형

성해주며 점진적으로 끌어갔다.

4 부가 나간 뒤에 여러 독자들이 책을 덮은 다음에도 주인공의 최후가 안타깝고 절통하여 그냠 눈물이 나더라고 전해왔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달리는 뒤통수 없으리라고 공감하였다.

왜냐하면 1 부부터 주인공은 여러 각도에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도록 되어왔으니 그자체가 감정조직이었던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하면 주인공의 감정선은 1 부에서부터 시작되어 서서히 전개되다가 4 부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감정의 폭발 다시말하여 주인공의 최후를 독자들 몰래 슬금슬금 준비하여왔다.

1 부에서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이 다른 인물보다 특색이 없고 감동이 덜 하더라는 론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다부작소설의 생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데로부터 서둘러 내린 속단이 아닐가싶다.

1 부에서 다 끌어올려놓으면 편속부들에서 감정선을 어떻게 끌고 나갈수 있겠는가.

구성단계에서 나는 김구의 최후에 대하여서도 여러모로 생각하였다. 김구의 운명에 1 부에서부터 품을 들였으며 복잡다단한 인생을 걸치었으므로 3 부에서 최후를 잘 그리면 효과가 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유혹을 랭정하게 뿌리쳤다.

인민들이 다 알고있는 력사적인물을 작가의 묘사를 통하여 최후를 목격시켜 눈물을 흘리게 하는것보다 력사적인 사료로 대치하는것이 실감있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클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3 부의 마지막에 김구의 피살장면을 감정선을 타지 않고 후일담형식으로 력사사료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것이 옳은 시도였는지는 모르겠다.

소설에는 이밖에도 김명호, 리순애, 김창기, 러운형, 김승원의 최후장면이 설정되어있다. 그들의 최후는 김명호를 내놓고는 독자들에게 여운을 줄수는 있어도 감동적으로는 안겨오지 않는다.

작가는 매 인물에 대한 묘사는 물론 감정조직에서도 평균주의를 할수 없다,

어느 인물에게 힘을 집중하겠는가?

이것은 작품안에서 매 인물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작가가 그들에게 부여한 문학적과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인물로 설정한바에는 끝없이 사랑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 인간의 운명에 막을 내릴 때에는 길게 메아리를 남기도록 감정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 영웅과 시

하남호

새싹이 움트는 약동하는 봄이 오면 사람들은 새로운 환희와 희열이 넘치는 열정을 가다듬는다.

이 열정은 나에게도 지칠줄 모르는 창작의 붓을 달리게 하여준다.

자기도 크면 아버지처럼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고 늘 뽐내는 딸애가 금방 시작한 나의 집필에 또 참네하였다.

《아버지, 무엇을 쓰나요?》

올해 여섯살 났는데 글읽기는 물론 제법 일기도 짤막하게 쓸줄 알았다.

《아버지는 리수복영웅에 대한 글을 쓴단다.》

《리수복영웅?... 나도 리수복영웅아저씨 잘 안다.》

딸애는 마치 가까운 삼촌이름을 들은듯 기뻐하였다.

《그래, 우리 열매는 리수복영웅아저씨를 어떻게 아나요?》하고 물었더니 딸애는 그것도 모르고있느냐 식으로 나의 귀에 가만히 소곤대는 것이었다.

《아버지, 리수복영웅아저씨를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난 영웅아저씨가 지은 시도 다 아는데...》

딸애는 무슨 큰 비밀이나 대주듯이 우쭐하였다.

나는 딸애가 기록하여 부쩍 추켜올렸다.

《그럼 어디 아버지앞에서 영웅아저씨가 지은 시를 읊어봐라.》

딸애는 무대이라도 나선듯이 곱게 인사를 하더니 시를 읊기 시작했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

어느결에 부엌에 있던 안해가 들어오며 박수를 쳐주었다.

나는 딸애가 오늘은 류달리 어른스러워보였다.

《우리 열매가 정말 웅쿠나.》

## 작가일화

## 평양에서 받은 충동

1953년 초 전간, 양삭, 리영, 엄진 등 작가들과 함께 평양을 찾은 중국의 이름있는 작가 파금은 큰 충격을 받았다. 미제공중비적들의 야수적인 폭격에 평양은 어느 곳 하나 성한데가 없었다. 가는곳마다 폐허만 남아있고 재가루가 날렸다.

하지만 다른 생활도 있었다. 폐허속에서 전동기소리가 씩없이 들려왔고 밤마다 모란봉의 지하극장에서는 《춘향전》 공연이 벌어졌다. 어른, 아이 할것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김살 없는 밝은 표정이었다.

파금에게 특히 큰 감동을 준것은 북구대의 작업모습이었다. 폭격이 시작되면 방공호에 대피했다가 적기가 사라지면 어느새 달려나와 일손을 잡았다. 게다가 입에서는 흥겨운 노래까지 흘러나왔다. 전쟁에 주눅이 든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영웅적인 인민이군. 이런 인민을 미제가 당해낼수 없지. 암, 그렇구 말구.)

연신 머리를 끄덕이며 생각을 이어나가는데 옆

딸애는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아버지, 영웅아저씨는 왜 시를 썼나요?》

칠없는 딸애의 질문이지만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다.

내 학창시절부터 그렇게 즐겨 읊던 영웅의 시, 그러나 오늘 딸애의 물음앞에서 마음속으로 다시 읊어보느라니 새삼스러운 감정이 복받쳐올랐다.

정말이지 이 시는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참다운 조국애의 노래이다.

그래서 우리모두가 이 시를 사랑하는것이다.

시는 감정과 흥분의 폭발이기앞서 불타는 사랑의 본출이다.

시!

이는 인간의 아름다운 세계이며 인간에게 위훈을 남게 하는 정신세계의 산물인것이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령결사옹위영웅으로 높이 내세워주신 하늘의 불사조 길영조영웅은 《우리의 날개우에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래 평양이 있다》고 격조높이 웨치면서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영생하는 삶을 찾은것이 아닌가.

영웅의 시는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말해주었고 그 조국을 위하여 기꺼이 바쳐야 할 우리들의 목숨을 말해주었다.

《애야, 리수복영웅아저씨는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더없이 사랑하였기때문에 그런 시도 썼고 세상이 다 아는 영웅이 된거란다.》

딸애는 머리를 끄덕였으나 나의 말뜻을, 영웅의 시에 대한 깊은 뜻을 다는 모를것이다.

하나 이제 크면 알게 될것이다. 영웅들이 쓰는 시는 글로써가 아니라 심장으로 이 땅에 쓴다는것을...

나는 정다운 눈길로 딸애를 바라보았다.

영웅의 시를 읊으며 자라날 우리 혁명의 또 한 세대였다.

에 있던 전간이 입을 열었다.

《평양에 와보니 정말 느껴지는바가 큼니다. 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에 머리가 수그러집니다.》

《나 역시 그렇소. 정말 생각되는바가 크오. 조선동지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젊은 시절에 왜 저렇게 살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이 드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이 더없이 민망스러워졌다.

파금이 무정부주의자들인 프루동이나 로씨야의 그로뽀뜨킨, 바꾸닌 등의 사상에 빠져버렸던것은 20대의 젊은 시절이었다.

그리고 이자들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파금》이라는 필명도 달았다.

(이제라도 더 분발하자, 우선 평양의 영웅적인 투쟁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마음을 다잡은 파금은 질새없이 창작전투를 벌렸다. 그리하여 며칠후 작가가 쓴 보고문학 《영웅도시 평양》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 구월산의 《아사남바위》

구월산성 밑에는 바위들의 생김이 사람이 쓰러져 굳어진 모양과 비슷한 4 개의 바위가 있다. 이 바위가 《아사남바위》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구월산성 성장 아사남이 군령을 받고 성을 떠나 서해도에 거의 이르렀을 때 왜적들이 빈틈을 타서 성을 차지하였으니 빨리 돌아와 왜적을 치고 성을 차지하라는령이 떨어졌다. 성장은 군사들을 불러일으켜 오던 길을 되돌아 구월산에 와닿았다. 그는 2, 000 명의 군사들을 3 개 대오로 갈라 성을 공격하였다.

적아간의 접병이 있을가말가한 그 시각 성우에는 흰 옷차림의 색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바로 포승을 지운 성장의 어머니와 안

해, 아들이었다.

왜장인 우니께는 성장의 어머니와 처자를 살리려거든 공격을 중지하고 50 리밖으로 퇴각하며 군량미 500 석을 넘겨달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의 가족들을 성 밑으로 던져 죽살케 하겠다는 것이었다.

성장과 고구려군사들은 놈들의 비렬한 짓에 치를 떨었다.

이때 성우에서는 퇴성벽력같은 소리가 울렸다.

《아들아! 이 어머닐랑 걱정 말고 어서 싸움을 벌려 성을 찾고 오랑캐놈들을 쳐부셔다오.》

성장과 군사들은 눈물을 닦으며 사납게 일어났다. 대오가 성 밑에 이르렀을 때 악에 반친 왜장은 어머니와 안해, 아들을 칼로 쳐 성 밑으로 던졌다.

복수를 위해 떨쳐나선 군사

들은 단숨에 성문을 열어제끼고 왜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죽쳐였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오를 때 성 밑으로 달려온 성장은 시신들을 모아놓고 어머니의 한 팔에 얼굴을 묻고 한쪽으로 쓰러져있었다. 이때는 아사남 역시 이 세상사람이 아니었다.

모여선 군사들은 그 자리에 4 구의 시신을 고이 안장하였다. 그후 그 자리에 4 개의 바위가 솟아났는데 신통히도 사람이 쓰러져 굳어진듯 한 누운 바위들이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아사남 성장의 충효가 하늘에 닿은 것이라고 하여 《아사남바위》라고 불렀고 후세에 길이 전하고 있는것이다.